군선교 신학

10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 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 · 민족 · 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 · 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제목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의 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며,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20만 명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4. 매년 20만 명 군인 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5.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6. 26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교역자, 기독군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7.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8.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9.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등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하게 하시며,
10. 기독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즈음 세상은 너무 험해졌습니다. 도움을 호소해 도와줬더니 강도로 돌변한 사람들, 택배기사를 사칭해 강도짓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르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강력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더 서로를 믿지 못하며 선한 의도로 하는 일조차 의심받기 일쑤입니다. 혹시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하여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험한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에서는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군복무 동안 기독장병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찾아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군사가 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캠페인이라는 이름만 없었지 신앙이 있는 장병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장병들이 선샤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좋은 군사로서 군복무를 할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대한민국의 선샤인"이 되어 우리 사회와 주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새로운 교회선교사역으로 펼쳐가기를 기대합니다.

《군선교신학》 논문집 10권 출간에 맞추어 개최하는 제12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심포지엄은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기독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논문집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증거와 실제", "선샤인 캠페인 실천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직접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에 관한 논문들과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등의 우정, 상담 등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논의하는 데 바탕이 될 만한 주제들을 다룬 논문도 실려 있습니다. 군선교 현장 속 생생한 신학적 이슈들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언하는 이 논문집이 아무쪼록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동기부여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 군선교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군선교신학회" 회장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쿰란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군선교교역자,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9월 30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선희 목사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한국 군선교 신학회는 군복음화 전략 개발뿐 아니라 강군 육성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연구한다. 따라서 금번 신학회 주제는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을 찾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집중 연구하여 이를 확산키로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신학자들과 학문적 수련을 깊이 있게 연마한 군목들이 심도 있게 연구한 15편의 주옥같은 논문을 싣게 되어 전군 군목은 물론 군선교 관계자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줄 믿는다.

국방의 성업을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군인들은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적 문제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내부적 문제들이 인격 수련이나 정신 무장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더 깊은 영적 상처와 질병을 어떻게,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자명하다. 그것은 상담이나 심리치료 요법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 이라는 명약이다.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신음하는 전우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 주자는 운동이다.

누가 나의 이웃이며,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신앙은 아가페 사랑으로 표출되어 불한당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싸매주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개인도, 부대도 구한다는 성경원리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사랑의 션사인 캠페인이 기독교인들을 통해 병영 내에 퍼져 나갈 때 대한민국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귀한 글을 써주신 분들과 한국군선교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Soli Deo Gloria

2012년 9월 30일

이종윤 목사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머리말 | 곽선희 목사 … 4
발간사 | 이종윤 목사 … 6

11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 | 이종윤

35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 박종화

45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 주연종

48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최석환

75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진섭

85 광야 - 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1-6) | 강사문

102 '되찾은 아들 비유' 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 김일수

135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 안명준

168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 이규철

203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216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 김동연

245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 오희준

271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 유 현

293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 홍석균

군선교신학 제10권 기조연설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의 실천적 방안-

이종윤 Lee, Jong Yun

■ 서울교회 위임목사(Rev. Ph.D., D.D., D.D.)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 Div, D.D.)
■ 영국 Univ. of St. Andrews(Ph. D.)
■ 독일 튀빙겐 대학
■ 장신대 명예신학박사(D.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회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비전2020운동 실천위원장
■ 장로교신학회 회장, 한기총 신학위원장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대한민국 65만 5천 명의 전 장병들의 병영 생활을 인적 사고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병영 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은 법과 제도적 장치 이전에 본질적으로 장병들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군내에 존재해 온 악습, 특히 반인륜적 폐습들, 즉 구타,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모욕과 개인적 고민이 군기를 문란케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군인의 생명인 단결을 저해하는 것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와 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본 신학위원회는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을 주제로 제14차 신학회를 개최케 되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 답을 찾고 문제 해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군생활이 그들의 인격적 변화를 통해 더욱 보람차고 미래 국가 지도자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1. 원리(Principles)

1)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문제를 회피한 이들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고난당한 이를 실제로 도운 이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실 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할 때 주신 말씀이다(눅 10:25-37).

여리고 도상은 험준하고 위험한 곳이다. 사람들은 피의 길이라 불렀다. 예루살렘은 해발 3,000피트, 그곳에서 27km 떨어진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1,000피트 밑에 위치한다. 산악지대의 낭떠러지들과 동굴들이 마을들 사이에 있는 여리고 성 길목엔 강도들이 숨어 있거나 쉽게 도피처로 삼는 곳이다. 여리고로 여행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야 했다.

이 음산한 골짜기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30절).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비유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 두 사람의 비겁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이 음산한 계곡을 지나가야 하는데 강도 떼가 모퉁이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자기 안전상 또는 치안 담당관에게 빨리 가서 알리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그곳을 허겁지겁 빠져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을 피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레위인의 규례 중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리니(민 19:11-16), 그는 7일 동안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제사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서는 죽었는지도 모를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직업적 종교인들에게 더 높은 사역을 위해 쓰러져 있는 이를 피해 간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요구하는 낯선 거류민에게라도 자비를 베풀라는 성경 말씀을 무시한 것이다(레 19:34).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이러니하게 어떤 이유에서이든 강도 만난 이를 피해 갔다. 제사장은 국민 보건을, 그리고 레위인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의무가 있는 이들이다.

그들의 짜여진 스케줄이 그들로 하여금 피하여 가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는 성도의 기본 원리를 분명히 부정한 것이다.

피 흘려 쓰러진 유대인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간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만났던 동일한 위험인물을 보게 된다. 그는

단순하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아주 적대적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해서 그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부르기도 했다(요 8:48).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33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필요를 돕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우정과 지원, 응급치료와 교통편 제공, 거액의 재정 지원금과 돌아올 때 다시 방문까지 하게 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눅10:36-37).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가 요구되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 재정 지원, 의료 봉사, 우정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의 모범(paradigm)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는 자기 안전이 위협을 받고, 스케줄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다른 민족이면서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더럽고 피 묻힌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는 '교회가 이와 같이 하라' 는 명령을 공동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보자.

(1) 질문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 율법사가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전혀 실제로 지키지 않는, 그리고 자기변명만 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비유다. 그가 이 비유를 통해 주신 여러 질문들은 오늘날도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를 행해야 영생이 주어지는가?

이 비유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적, 경제적 필요를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한 부자 관원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21절)는 결론적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굶주리고, 헐벗고, 집 없고, 병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마 25:31 이하). 그렇다면 사회사업가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Sola Fide)*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나? 어째서 자비 사역이 그리스도인 되는 중심 주제로 나타난 것인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 사역은 공로 신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참된 신앙을 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비(사랑)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비를 보이는 것이 참 신앙을 가진 이의 확실한 사인이 되는 것이다. 그 열매로 알지니 하신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 됨을 확증하는 것이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3-17; 잠 14:31, 19:17).

둘째로 질문은 자비 사역의 범위와 크기의 문제다.

율법사는 도움을 요구하는 자를 돌보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것을 부인하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불행에 처한 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가까이 그에게 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 봉사를 펴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 집에서 봉사는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고 한다. 우리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국가가 해야 할 일까지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무책임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스쳐 지나갈 때, 예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거스른 거짓 종교인들의 가면을 벗기신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가 원수일지라도 도와야 할 것을 보여줌으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셨다.

셋째로, 자비 목회의 동기 또는 원동력에 대한 질문이다.

이스라엘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을 망각한 율법사에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다. 사람이 의무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적 지식이나 윤리적 원리보다 노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과 민족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지식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겐 동정심(긍휼심)이 있었다.

교회가 무엇으로 자비 사역을 할 수 있을가? 현대 교회가 동정심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오늘날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하는 이를 채워주고 사회를 변혁시킬 능력을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 나라 백성이 기근이나 홍수, 지진을 만나 재난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구제 단체나 교회의 헌금 바구니에 구제금을 넣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 살기에 안전하지도 않고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이 거리에서 죽음에 누워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전쟁, 부정, 박해, 기근, 자연 재앙, 가정 파괴, 질병, 정신병, 장애, 민족주의, 범죄, 원자재 부족, 계급 투쟁 등,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 낸 문제들이다. 이것들은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비참으로 끌고 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여리고 도상에서 살고 있다.

2) 누가 나의 이웃인가?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도와준 이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신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나 성경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네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층, 노숙자, 임시직 종사자, 결손 가족, 청년 실업자, 다문화 가족, 탈북 난민, 노동자, 노인,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환자, 재소자, 장애인, 미혼모, 이혼자, 고아, 과부, 소외된 이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는 여리고 도상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의 필요는 다양하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강한 충정심(긍휼심)을 갖고 이들 새 이웃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도상에 누워 있는 이웃을 위한 책임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참 아담이시다(히 2:5-8; 엡 1:10).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시다(히 4:14-16).

그는 가난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신(고후 8:9), 그리고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막 10:45) 참 집사이시다(롬 15:8).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의 발을 겸손히 씻는 집사다(마 20:26-28; 갈 6:10) 모든 신자는 자비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히 13:13-16). 모든 신자는 만물을 주님께 복종케 하는 새 아담이다(마 28:18-20; 고후 10:5).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다. 설교자나 변증자로 훈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 상담자나 심리 치

료사의 기능을 갖추지 않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를 돕는 헬퍼(helper)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비 사역만은 신자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이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3) 자비 사역의 특성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의 다양한 필요 사항을 직시했다.

첫째, 육체적 상황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에게 가까이 갔다. 희망이 끊어진 이에게 친구나 변호사가 옆에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 계신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말한다(요일 2:1).

둘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셋째, 재정 지원을 하되, 그가 완치될 때까지 또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까지 비용을 책임지겠다 한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고 교통편까지 제공하는 것은 너그러운 관용이고 자비 행위다.

넷째, 사마리아인의 자비의 범위는 매우 넓고 크다. 육신적, 재정적으로 희생당한 이의 정서적 필요까지 채워 주었다.

다섯째,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요구한다는 것은 의존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피조된 의존적 존재다. 우리는 자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만족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4가지 소외(alienations)가 일어났다. 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② 자신으로부터 소외, ③이웃으로부터 소외, ④ 자연으로부터 소외가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자연 질서도 치유될 것이다(시 96:11-13; 롬 8:20-21).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 시 우리는 그의 왕권에 완전 복종을 하고 참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왕권이 모든 생명과 자연에게 미칠 것이다. 죄로 소외되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으로부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질병, 좌절, 궁핍, 저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 생명이 흘러넘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들이 물러가고 교회는 단순한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치유를 도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새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다(요 3:5; 롬 14:17; 마 12:28).

하나님 나라의 전도는 전인적((w)holistic)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험 공장(pilot plant)이다. 용서받은 개인들의 집합체뿐 아니라 반문화(反文化)적인 거룩한 나라다(벧전 2:9).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족, 사업, 종족 관계,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하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단체다. 죄의 결과로 맺은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심리적, 사회적, 육신적 상처를 교회가 치유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agent)이다. 하나님의 통치로 치유하는 모델일 뿐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벧전 2:9)이 교회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행 1:6-8).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상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과 동시에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여 개인, 가족관계, 국가간 갈등을 치유하는 일도 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말없이 행동으로 자비 사역을 했다. 행동 섬김을 신약성경은 '디아코니아(diakonia)' 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얘기가 나온다. 많은 여제자들이 음식 준비와 다른 육신적 필요를 도왔다. 이런 사역을 '디아코니아' (마 27:55; 눅 8:3)라고 부른다. 초대교회는 과부들을 위해 매일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다. 그것이 섬긴다는 '디아코니아' (행 6:2)이다.

신약에서 영적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주어졌다. 그 하나가 말씀 은사요, 다른 하나는 행동 은사다. 이 행동 은사는 누가복음 22장 24-27절과 요한일서 3장 17-18절에서 보인다.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diakonia)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눅 22:27). 희랍 문화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이다.

섬기는 자(diakonia)가 그리스도 사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자라는 개념이다. 무릎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삶의 모델이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요일 3:17-18).

4) 자비 사역의 동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눅 10:33) 그를 도와주었다. 자비 사역의 참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붙잡힌 데 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안다면 버림받아 소외된 이들과 사랑받지 못한 이들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크게 열게 될 것이다.

율법사는 자기의 도덕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생각했다. 그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이다(눅 10:29).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에게 보여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해주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스스로는 불가능한 무사기한 사랑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 영적으로 부한 자로 자처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율법사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다(사 64:6 참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강도 만나 쓰러진 자로 자신을 알고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자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율법사를 위해 예수께서 준비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자기 피를 흘리고 영적 파탄자요 잃어버린 자가 된 이에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영적 부요함을 제공하셨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부와 의를 그를 믿는 이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우리는 구더기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왕의 옷을 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잔칫상에 앉게 하셨다.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받은 자가 영광스런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이사야, 야고보, 요한, 바울)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자비 사역을 하는지로 보겠다고 한다.

사마리아인의 종족과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그의 행동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사회적 관례를 따른 것도 아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도 아니다. 다만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가 움직였다. 하나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명령이다.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남에게 큰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죄의식이 남을 돕는 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은 많은 나라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백성들이 지구상에 10억이 넘는데, 우리는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식으로 남을 도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기근을 위하여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고 한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도움을 받는 이들보다 더 상류층에 속하는 이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나? 그들의 넘치는 기쁨(고후 8:2)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림으로(고후 8:5) 자비행위가 일어났다. 자기를 비우신 주님께 대한 마게도냐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의 연보는 그들의 수입 수준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었다.

자비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에서부터 오는 자연 발생적인 풍성한 사랑에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은 관용을 베푼다. 따라서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크게 자유롭게 주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지 않으려면 거듭난 새 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비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제물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발에 기름을 바르도록 몸으로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사랑과

존귀로 그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섬기도록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요 12:1-8).

마게도냐 성도들의 구제 연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이라 했다(고후 9:12-15). 바울을 위한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다(빌 4:18). 히브리서는 경제적 나눔을 찬송의 제사라고 했다(히 13:15-16).

그러면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인가? 바울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빌 2:5).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본받으라. 세상을 향해 교회는 내게로 와서 내 언어를 배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서 듣고 필요를 찾고 공의와 자비를 행하여 성경적 진리를 나누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제시한 사회적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이들의 잠을 깨워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말하면서 희생적으로 주는 일은 본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 돈은 내 것이기 때문이며, 가난한 자는 보답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가난한 자는 받은 것을 남용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많은 것을 더 자주 자유롭게 감사가 없고 보답할 수 없는 불쌍한 이들에게 주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리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 복을 받게 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행20:35)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비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자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설 수 없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요, 여리고

도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다. 본래 우리의 원수요 아무 상관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자기 영적 부를 내게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설명된 것은 증명하기 난해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여리고 도상에 쓰러져 있는, 즉 영적으로 불쌍해진 사람을 자신으로 보는 사람은 오늘도 소외되어 버려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 균형 잡힌 삶 : 주는 것과 가진 것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눅 10:35).

그리스도인의 삶은 낮아질 때까지 희생적으로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부르심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가족이 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소유의 청지기가 되어야 부담없이 줄 수 있다.

먼저, 사마리아인이 준 것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다. 우선 자신의 시간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위험한 길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험을 느꼈다. 강도가 돌아온다면 그의 사역은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 주막에서 거하는 경비까지 지불하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다.

그리고 자비 사역은 값비싼 것이다. 사무실에서 나는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비 정신이 아닌 명목상의 구제를 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한다. 불쌍한 사람에게 단순히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되 충분하게(bountifully) 주어야 한다(신 15:7-8; 고후 9:5).

물질만 아니라 마음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시 41:1). 시간과 마음 그리고 애정을 갖고 도와야 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후 9:7).

오늘 중상류층에 속한 이들이 자기 삶을 급진적으로 개혁함 없이 자비 사역을 한다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은 검소한 생활(simple Life)을 해야 나눌 수 있다. 기본 생활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주기 위함일 것이다. 존 웨슬리는 죽었을 때 한 벌의 외투와 두 개의 은수저만 남겼다. 그는 설교와 저술한 책의 인쇄비가 연 1,400파운드였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연 30파운드도 쓰지 않았다. 그의 수입이 40배 증가했을 때 그는 이렇게 써놓았다. "내가 10파운드를 남겨 놓고 살다 죽으면 모든 인류는 나를 도적이요 강도라고 대적할 것이다."

'절제 있는 삶을 살라' (be moderate)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히 6:6-10).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먹을 것과 은신처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된 삶의 스타일을 말한 것으로 읽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고 절제 있는 삶을 살라 하신 것이다.

품위 있는 삶의 스타일(decent Life style), 즉 음식과 옷만 있으면 족한 삶을 사는 것으로 권유한다.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축재하지 말라는 것이다(마 6:19-21).

교회와 세상 중 우선권 설정을 해야 한다. 그들의 도움 요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불신자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무시하고 적대시한 유대인을 도왔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 구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가?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행하면……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 15:4-5).

자비 사역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복이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권하에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질병도 없을 것이라 한다(신 7:12-16).

먼저, 언약의 백성인 가까운 친족을 먼저 도와야 한다(레 25:25; 딤전 5:8).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회원을 도와야 한다(신 15:7, 14:28-29; 행 6:1-7; 딤전 5:3-5; 롬 15:23-28).

다음으로, 자국민을 도와야 한다(창 41:53-57; 신 15:8, 10).

마지막으로, 외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친척, 친구, 지인, 이방인, 원수가 도움을 요청할 시 도와야 한다. 모든 사람(all man)이 나의 형제는 아니지만 누구든지(everyman) 내 이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가 무가치하고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온 것처럼(롬 3:9-18)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내로 자비를 보여야 한다(딤전 3:12; 요일 3:17-1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눅 24:19). 그는 말뿐 아니라 행함으로 일하셨다. 자비 행위는 천국의 사인(sign)이다(마 25:31-46).

교회는 천국의 대리인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행 8:12, 14:22, 28:23). 교회는 기적을 행할 수는 없으나 세상에서 자비 사역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말씀과 주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행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자비 사역은 복음 전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행위는 동등하게 필수적이다. 상호 독립적이고 나눌 수 없는 사역이다. 둘 다 각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한 율법사의 질문을 '누가 네 이웃인가' 를 묻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율법사가 여리고 도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가 당신의 이웃인가를 물었을 때, 그는 내 원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네가 받은 대로 가서 행하라 하신 것이다.

자비 행위는 충격을 주었다. 마음을 녹이고 장애물을 제거한다. 복음에 적대하던 이로 하여금 복음을 존중히 여기게 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마 5:16). 서로 사랑하는 행위는 복음의 가치를 변증한다(요 13:35).

서로 나누는 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행 4:32)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른 형제들이 재빨리 관용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유물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 감사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 이들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행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의 산울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눅 6:33).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 그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볼 것이다.

말씀과 행위는 실제로 연관이 있는가? 함께 가야 하는가? 우선하는 것이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말씀과 행위 즉 복음 전도(evangelism)와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비 사역과 사회 정의 구현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정당한 기능이다. 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지만, 복음 전도는 우리 사명의 한부분이다. 사회적 관심과 복음 전도 즉 행위와 말씀은 그 중요성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동등하다. 복음 전도가 우선하고 행위 사역은 필연적이지만 차선에 놓는다.

사회적 관심은 세상에서 전혀 교회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말씀 사역과 행위 사역은 동일하게 필수적인 사역이다. 행위사역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와 왕직 그리고 제사직이 있었고, 신약에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직이 있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일(마 4:23) 즉 말씀과 섬김 사역을 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과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벧전 4:11). 말씀과 행위가 동등하게 명령된 것이라면, 그들은 둘 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필연적으로 동등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 관심은 복음 전도를 위한 단순한 수단인가?

행위 사역은 마치 은혜처럼 대가 없는 사랑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눅 6:35-36).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곳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7-18).

행함의 동기는 사랑이다. 복음 전도의 동기와 같다. 구원의 방법이 요

청된 이에게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준다. 사회적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들과 나누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은 교회의 선택 사항인가?

말씀 사역과 자비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한 교회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면 사회적 관심은 그다음 순서라는 말인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고치시고(요 9:1-7), 시간이 지난 다음 그를 부르셨다(요 9:35-41).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은 치유 행위를 하신 직후 또 직전에 그에게 도전 또는 제자로 부르셨다(마 15:21-28; 막 5:21-43). 말씀과 행위는 둘 다 명령된 것이고, 둘 다 사랑이 동기로, 교회는 동일하게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

말씀과 행위, 이 두 가지는 불가분리의 공생 관계요 상호 의존적 관계다. WCC방콕 선언문(1973)에서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은 복음 전도(evangelism)이다"라고 선언했다. 성경적으로 말씀과 행위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배고픈 자를 먹일 때 우리는 복음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행위는 복음 전도의 동반자(partner)이다. 동반자로 서로에게 속하나 각자 독립적이다. 서로의 수단이 아니고 다른 것을 나타낸다. 각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 또는 물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과 행위는 깨어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져온다. 궁핍, 질병, 부정, 감정적문제, 사회문제들은 모두 죄의 열매다. 우리는 전인 구원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정서적으로 온전해지도록 상담해 주고, 부정한 구조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육신적 필요를 채워 줘야 한다. 말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와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

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 선포는 믿음을 산출하고(롬 10:16-18), 믿음은 선한 행실을 낳는다(약 2:1-23).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통해 복음을 듣도록 마음 문을 여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신다(행 4:32-33; 요 13:35; 요일 3:17-18).

자비와 전도 사역은 연기와 불과 같이 함께 있다. 이 둘이 함께 올 때 성공적인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다.

2. 실천(Practice)

1) 4가지 채널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인 자비 사역의 성경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리에 우리는 포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자원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기능은 개발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비 사역을 4가지 채널을 통해 시작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채널은, 가족이다. 모든 개인과 가족들은 자비 사역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채널은, 지역 교회다. 개교회가 자비 사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은사와 자원을 동력화한다.

세 번째 채널은, 개인적 또는 가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단체(para-church organization)다. 병원, 고아원, 경로당 등을 설립, 또는 돕는 것으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채널은, 국가다. 국가는 성경적인 동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왕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다(단 4:26-27; 시 72:1-2; 창 47:13-17).

2) 어떻게 할 것인가?

소외당함, 구타, 언어폭력, 분노, 갈등, 성격 장애, 부적응, 알코올 중독, 마약, 실연, 이념 갈등, 불안, 무기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당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만날 때 'stop, look and listen'을 1004 군인 교회 안에서와 병영 안에서 해야 한다. 같은 부대원은 계급과 직책여하를 막론하고 전우면서 침식을 같이 하는 한 가족이다. 부모 형제자매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제일 먼저 가족이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stop, look and listen'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는지를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 얼음벽을 어떻게 깰지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한 도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 접근했다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에 뛰어들지 못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도와달라고 우리를 부르기 전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사정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접근하도록 선수를 써야 한다. 외인으로부터 사귐의 관계로, 사귐에서 친지 관계로, 친지에서 친구로, 즉 관계성을 통해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신뢰의 풍토를 만들어라. 그를 잘 아는 친구를 다리로 놓아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의 진정한 문제를 돕기 위해 그의 마음문을 열도록 작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가 갖지 못한 것을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공하라. 남의 도움만 받고 남의 것을 빼앗기만 하던 사람에서 남을 돕고 사는 법을 작은 것

을 통해 보여줘라.

관계를 밀접하게 갖게 되면 그와 대화를 하게 된다. 그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감정이입(empathy)을 시켜 그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하고, 문제에 동참하라.

개인과 가족이 도울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자비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복음주의적 교회라도 자비 사역을 교회의 주사역으로 삼는 교회는 많지 않다. 정원에 토마토 나무를 심을 때 땅을 먼저 고르고 씨를 뿌리듯, 교회 회원들이 자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교인 중 자원봉사자가 생기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의 짐을 져 줄 수 있는 믿음과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랑과 헌신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회중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주 채널은, 강단을 통한 메시지다. 설교자는 주기적으로 자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회중이 받은 은사와 자산을 청지기로서 사용하도록 교회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회학교 성경 공부반, 전도회나 선교회, 소그룹에서 자비 사역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봉사 그룹을 교회 안에 조직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한다.

봉사를 하는 개인이 매력 있는 성도로, 모범적 신자로 본을 보이면서 다른 성도들을 섬김의 자리로 끌어내야 한다.

종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은 갖고 있는가?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신 주님이 종 됨을 보이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요 13:1-14)고 명령하셨다.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눅 22:24-27)고 주님은 가르치셨다. 집사는 이 특별한 과업과 자세를 가진 이다.

교회는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구제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재난을 당한 이를 도와야 한다.

또 전문 봉사 단체와 협력한다. 시 또는 국가의 전문 기관, 사회사업 단체들을 돕고 협력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3.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과 비전2020운동

비전2020운동이 영혼 구원 전도 사역이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전우 사랑을 실천하여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한다.

교회를 경작하라. 굳은 땅을 갈아엎듯이 먼저 교회를 말씀과 행위 사역을 함께 하는 옥토로 만들어 교회 되게 해야 비전2020운동의 열매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먼저, 교회를 통전적((w)holistically) 시각으로 보게 하자.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옆문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육신 구원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둘째, 말씀 사역과 자비 사역을 통해 개인 성장과 교회의 질적 성장이 함께 오게 한다. 그러면 양적 성장도 이루게 된다.

4. 맺는 말

기독 장병들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아 건전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고 무사고, 무사기한 병영 천국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다음의 매뉴얼을 찾아 숙지한다.

① 선한 마음(33절) : 불쌍히 여기는 마음(그리스도의 사랑)

② 정확한 진단(34절) : 가까이 접근하여 상태 확인(관심표현)

③ 응급조치(34절) :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맴(문제해결)

④ 계속 치료(34절) :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봄(지속

적 관리).

⑤ 사후 관리(35절) : 주막주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계속 돌볼 것을 주문(끝까지 책임).

그 일을 위한 천사 역할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하기 : 먼저 접근하는 당신이 천사(웃으며,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② 경청하기 : 공감하는 당신이 천사(감정이입을 갖고, 애정을 갖고)

③ 동행하기 : 함께하는 당신이 천사(위기의 순간에 헬퍼로서)

④ 칭찬하기 : 격려하는 당신이 천사(낙심 중에 소망을 갖도록)

⑤ 선행하기 : 구원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생명 구원을 열심히)

1004 군인 교회 장병들이 진중에서 각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강한 병영을 조성하는 일에 힘쓰는 천사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전2020운동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된 통일 조국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군선교신학 제10권 발제 1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박종화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신학석사)
■ 독일 튀빙엔대학교 신학박사 학위(Dr. Theol)
■ 경동교회 담임목사
■ 대화문화아카데미(전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 대한기독교서회 이사장
■ (재) 국민문화재단(국민일보) 이사

1. 그 때와 오늘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다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북한과 남한의 중간 지역인 비무장 지대를 연상시킨다. 다만 우리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철조망이 있고 출입이 불가능하다.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는 유대 백성과의 증오와 불신 때문에 출입 기피 지역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유대 입장에서는 상종 못할 일종의 '불가촉' 부류에 속했다.

분단 시절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

면서 비극의 도시로 변했다. 사회 지도층을 강제로 식민 지역으로 흩어 내어 쫓고, 대신에 아수르 제국에 속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지의 사람들을 이주 오게 하여, 이들의 관습, 정치, 역사, 심지어 종교까지 들여와 이방 신 숭배의 진지로 만든 것이다(왕하 17:24-41; 요 4:9).

훗날 남방 유다가 바사(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후의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개축할 때 이미 잡신 중심지로 변하고, 혼혈로 잡종 종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건축 참여는 물론 성전 예배 참여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리심' 에 그들만의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드리게 될 정도로 민족적, 종교적 분단 상태에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회 내적으로 다양한 계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율법주의가 사회 구성체의 표준인 사회에서 본류에 속하는 제사장과 그 다음 순위인 레위인은 한국 사회의 주류 사회를 대표할 것이다. 천민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로 비유하면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서 볼 때 절대 빈곤층이고, 인종적 비유에서 본다면 빈곤국 출신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일 것이고, 버림받은 고아들이요 유랑하는 홈리스들일 것이다.

극단적인 대조와 대칭의 사회 현실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 을 베풀 수 있는 자격은 이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열려 있다. 오히려 이들의 진정한 사랑이 더욱 빛난다. 물론 사회의 주류 세력, 오늘날의 제사장과 레위인 사회, 이들에게도 사랑의 기회와 명령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

그런 뜻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은 민족, 계층, 문화, 심지어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임을 예수께서 말씀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존 칼빈(*Harmonie*, 561-565)의 말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모든 인간" 이고,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만과 돌짝 같은 위선" 의 대변자일 뿐, 사랑의 대변자는 아니다. 또 가톨릭 신학자 카제탄(Cajetan, *Evangelia*, 127)의 말대로 "모든 인간이" 인종과 나라의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의 이웃" (omnis homo est proximus)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Ev.-Katholischer Kommentar zum NT, III/2, 특히 97-100 참조).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의 첫째 요건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인 이웃은 모든 인간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병영과 군인 교회 운동을 펼치려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군인 교회는 물론 병영에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군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벌이려는 우리의 '이웃들' 이다. 계급, 보직, 종교, 신분, 계층, 성별, 학력 모두를 초월한다. 여기서 우리는 군신자화 운동의 새로운 '지평' 을 열어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의 둘째 요건이 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이웃이 분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자 하는가의 결단 문제가 있다. 달리 말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의 질문이 하나이고, '우리가 누구의 이웃인가?' 또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의 질문이 다른 하나이다. 이 두 가지는 주객이 서로 다르다. 전자는 사랑을 받는 자 중심의 이웃 사랑이고, 후자는 사랑을 베푸는 자 중심의 이웃 사랑이다. 전자는 수동적인 사랑의 행위이고, 후자는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이다. 전자는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족할지 모르나, 후자는 이웃과 삶을 함께하는 연대 행위의 사랑이어야 한다. 이 후자를 확인함이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둘째 요건인 셈이다. 군 병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나' 는, 그리고 '우리' 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의 이웃' 이 되기로 스스로 결단하는 신앙고백과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군신자화 운동의 또 다른 '차원' 을 열어가려 함을 알아야 한다.

일차적인 결론은 이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 중에서 '이웃 사랑' 의 진면목을 가르치심에 있다. 물론 그 첫째는,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

까' (눅 10:29)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이든 간에—이 이웃임을 확인시킨 점이다.

둘째는,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눅 10:36)라는 예수님 자신의 질문을 통하여, 적극적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자. '사랑은 관계의 삶' 이라는 점이다. '이웃 사랑은 받는 이웃과 베푸는 이웃 상호 간의 사랑' 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의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요 실증이 된다는 말이다.

2. 1004 군인교회의 '선한 사마리아인 공동체' 만들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두 데나리온을 선불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더 갚겠다며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여기서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s Evangelien-Auslegung, 738-749 in Ev.-Kathol. Kommentar, 상동)는 예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신 '주막' 과 '주막 주인' 에 주목하며, 그것의 교회론적 의미 내지 기독교적 윤리의 관점에 관심을 갖는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오늘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말하면, '주막' 은 '군인 교회들' 이다. 그리고 주막의 '주인' 은 군인 교회의 '군목들 및 군종요원들'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 설령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싶었다 해도 이 사람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주막(=병원)이 없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문이 닫혀 버렸다. 안식일 예배 말고는 다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의 업무도 끝났다. 종교적 임무 곧 성전 예배 말고는 강도 만난 사람 돕는 일은 이들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성전' 은 '안식일 예배의 장소' 일 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센터는 이미 아닌 것이다. 오늘의 '군인 교회' 는 주일의 교회만인가, 주일 예배의 장소만인가, 교인들만의 회집장인가?

주막의 주인인 군목과 군종 요원은 군 신자화만의 주역인가, 예배를 집전하고 각종 예전을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가?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과 1004곳이나 있는 병영의 군인교회는 위치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다. 유대 종교의 예배 장소로 기능하는 성전을 넘어서는 '만민' 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요 군인교회이다. 사마리아인은 '종교인' 이 아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군인들이 기꺼이 신뢰하고 환자를 모셔 가고 싶은 장소가 군인 교회인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기꺼이 생명을 맡기고 싶은 생명 살림의 위탁소로 기능하는 군인교회인가? 환자의 신분이나 종교나 계급을 불문하고 위로와 격려를 조건 없이 베푸는 곳이 군인 교회인가? 군목과 군종 요원은 이처럼 '신자화' 와 동시에 모든 벽을 뛰어넘어 '사랑의 봉사' 를 솔선수범하는 병영 전체의 목양자들인가?

병영 내에서 모든 군인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도움받기 위하여 가고 싶고 가야 하는 '주막' 으로서의 군인 교회가 계속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주막 주인' 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군인 교회 목회자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군신자화 2020의 구체적인 한 정향점이다. 병영의 안식처요, 정신적 보루요, 위로와 기쁨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정신적 오아시스의 풍성한 청지기가 군목이라고 믿는다. 말하자면 '병영이 군인 교회로 모여드는, 모이는 공동체' (a gathering church)로서의 기능이 심화확대되어야 한다. 이곳이 정신 전력의 산실이고, 인간 구원을 맛보는 보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펼치려 하는 군인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에서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 로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 말하자

면 강도 만난 자들을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동체' (a church inside-out)로의 탈바꿈이다. 주일의 교회에서 주간의 교회로 말이다. 특별한 날의 교회에서 일상의 교회로 말이다. 교회 모임 중심의 '신앙생활' 에서 병영 현장 중심의 '생활 신앙' 으로 선교와 전도의 틀이 옮겨 가야 한다. 군목과 군종 요원이 업무와 입장을 선택하라면, 성전예배에 전념하며 모이라고 외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기보다는 스스로 병영 속에서 아프고, 희생 당한 자를 찾아 돌보는 사마리아인,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목회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군인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모두여야 한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펼치려는 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모이는' 복음화에 진력한 나머지 '찾아가는' 선교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자기반성도 크게 자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강조된 신앙생활이 생활 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사회의 질책과 비판 앞에 서 있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군선교와 복음화 운동에 있어서도 역시 일종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군인 교회는 병영의 헌신적 '소금' 으로, 또는 그러고 난 연후에는 당연히 병영의 정신적 '빛' 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자각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병영 속의 '소금' 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 또 병영 속의 '빛' 은 어떤 모습인가?

3. 군복음화의 패러다임 쉬프트

결론적으로 말해서, 군복음화의 실체는 군신자화의 통계가 말하는 '양적 성장' 에 머물 수는 없다. 이것은 군신자화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서 기독교가 보여주고 또 사회가 보는 교회의 위상과 역할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락되는 평가에 걸맞게 양적 성장마저도 쇠락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제는 양적 성장의 담론을 넘어 '질적 성숙' 의 단계로 속히 진입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이 질적 성숙의 모습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군복음화 운동이 '병영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운 것은 혜안의 정책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 운동을 '질적 성숙 지향의 선교 운동' 으로 명명하고 싶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와 병영이 경험한 '종교' 는 반쯤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식 종교' , '끼리끼리만의 종교 단체' 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축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독교 복음은 우리들 교회를 "종교단체"로 전락시키려 하지 않는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삶이다.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sociality), 세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종말적 공동체(identity)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것이 살아 계신 주님의 '몸' 으로 기능하는 한, '세상에서 세상을 넘어' (in the world, but beyond the world)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소금과 빛으로 보여주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강원용 목사는 이런 모습을 "사이-넘어" (Between-Beyond)라고 표현하고 있다.

강도 만난 현장을 보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와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이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에 대한 눈은 같았다. 양쪽 다 그 현장이 몹시도 '아팠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양쪽의 반응은 극단으로 갈린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현장을 바로 피한다. 아마도 자기들도 강도 피해가 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유대인 특유의 율법주의일 것이다. 반쯤 죽어가는, 반쯤 시체가 되어 버린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결하기에, 금하는 정결 율법이 떠올랐을 것이다. 편리한 회피용 율법인 셈이다. 여기서 이들의 '아픔의 형태' 를 엿볼 수 있다. 아프긴 한데 먼저 '골치가 아팠던'

것이다. 머리가 아팠던 것이다. 이성적 주지적 율법신앙의 모습이다. 강도 만난 자와 이들의 '관계'는 법적, 율법적, 냉철한 합리주의의 발상에 근거한 관계이다. 이들 사이에는 '나-그것'(I-It)의 관계일 뿐 '우리'(we)가 없었다.

사마리아인의 반응은 달랐다. 현장을 목격한 이 사람은 우선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이 둘 사이는 이미 '한 몸' 이었다. '공감' 이요 '연대' 였다. 그러기에 둘 사이에 '나-너'(I-thou) 관계요, '우리'(we) 공동체가 성립된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자신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다. 물론 둘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실질적 잣대요 준거를 이웃 사랑에서 찾으시려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나아가 더욱 중요한 점이 있다. 이웃 사랑을 명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나아가 가장 진실로 사랑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사랑의 진실성과 최선성을 이웃 사랑에서도 똑같이 보이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랑의 계명은 이중 계명이라기보다는 '삼중의 사랑 계명'(M. Buber)이라고 명명함이 옳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강도 만난 이웃을 똑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고 본다. 강도 만난 이웃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이웃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보았을 것이다. 또 본 것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끊어질 수 없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속에서 이 인간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함께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라도 그분을 품고 담고 사는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담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나 실제로 보지 못한, 아니 보려 하지 않는 '종교인들'(=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교리와 신학(=율법)은 있었으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기에 '비종교인'으로 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파하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섬김(=복음의 은혜)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는 본 비유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인이다.

감히 말하고 싶다.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실천한 점,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실천한 점,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점 때문에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군복음화가 지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은 그냥 '사마리아인 운동'일 수 없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이고 또 그래야 한다.

4. 맺는말

건강한 병영은 군인 교회가 사는 세상이다. 세상과 교회는 운명을 같이한다. 병영이 건강해야 군인 교회가 건강하고, 역으로 군인 교회가 제대로 서야 병영이 평화롭다. 군인 교회는 병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 헌신적 선한 사마리아인 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동시에, 군인 교회는 병영의 '빛'이어야 한다. 그 말은 병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야

하고, 그 가치의 모범을 교회가 보여야 한다. 그런 뜻에서 군인 교회는 병영 교회로 살되, 병영을 넘어선 하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군인 교회가 '선한 주막' 이 되고, 군목이 '선한 주막 주인' 이 될 수 있으면, 병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들의 잠재력은 신자화 운동과 사랑의 봉사 운동을 통하여 '실천적' 사마리아인들로 바뀔 것이다. 이들이 병영을 넘어 제대한 후에 사회에 복귀해서도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성장하고 일하도록 병영 교회에서부터 양육되고 격려받으며 살아야 한다. 혹 사회 일반에서 잘못하고 있고 또 게을리하고 있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이 병영에서부터 그리고 군인 교회로부터 그 불길이 타오른다면 이 땅의 '건강한 평화' 와 '견실한 복음화' 가 크게 뿌리 내리고 결실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군선교신학 제10권 논찬 1

건강한 병영과 1004 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주연종

■ 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군종목사
■ 총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Th.M.)
■ 미 풀러신학대학원 수학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Ph.D.교회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현 사랑의 교회

박종화 목사님은 군종 목사로서, 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 운동의 큰 발자국을 남기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받는 분이다. 민주화의 여정에서 정치권의 통합을 위해 교회의 순기능을 발휘하시며 헌신하셨다. 실천하는 신앙인이며 군목 시절 구령의 열정을 아직도 놓지 않고 계시는 목회자이다.

박종화 목사님의 본 논문은 그 자신의 삶과 평소의 주장, 그리고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과도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굳이 논문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내용에 있어서 한국 군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량감이 느껴진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주

나 참고 문헌 등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논문으로 보기보다는 제안 발언(a proposal speech) 혹은 기조연설(a keynote address)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다.

발제자는 1장에서,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에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논문을 시작하고 있다. 사마리아의 지리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언급함과 아울러, 혼혈로 인해 잡종 종족이 되어 버린 상황적 처지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적 언어로 사마리아인을 절대 빈곤층, 다문화 가정 구성원, 버림받은 고아, 유랑하는 홈리스(homeless)로 유비(類比)시킴으로, 2천 년 전의 상황을 단번에 오늘, 여기로 끌어와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마리아인에게도 사랑을 베풀 자격이 열려 있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두 요체를 제시한다. 첫째 요체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모든 이웃이라는 것과, 둘째 요체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는 위 두 요체를 모든 군인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군인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시킨다.

2장에서 발제자는 주막은 군인 교회들이고 주막의 주인은 군인 교회의 군목들 및 군종 요원들로, 따라서 군종 목사와 군종 요원들은 종교 제의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던 레위인과 제사장과 달리, 사랑의 봉사를 솔선수범해야 하며 종교 의식이 끝나면 폐쇄되었던 성전과 달리, 1004 군인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모이는 공동체' (a gathering church)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병영 내의 군인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 찾아가는 공동체,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생활 신앙의 파견지, 주일의 공간에서 주간의 공간으로 변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 교회는 정신적 소금이며, 병영의 빛으로 기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3장에서 발제자는, 이제 군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질적 성숙 지향의 선교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삶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군인 교회와 사역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공감' , '한 몸' , '연대' 와도 같은 '우리 의식' 에 기반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고 있다.

4장은 결론부로서, 군인 교회가 선한 주막, 군목과 군종 요원은 선한 주막 주인이 된다면 병영 내의 잠재적인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기능함으로 병영이 변화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화 목사님의 본 논문은 지난해에 있었던 신학 세미나의 설교를 좀 더 정교하고 풍부하고 다듬은 것뿐 아니라, 목사님의 평소 사역과 삶을 연관지어 볼 때 명료하게 이해되는 내용이다. 특이한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자격과 책임을 동시에 가진 자로 설정하고, 군인들을 잠재적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박종화 목사님의 논문으로 제시된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양' 에서 '질' 로, '특정 장소' 에서 '모든 장소' 로, '예배 시간' 에서 '어느 때든지' 로 전환하는 실제적인 노력들이 선한 주막에서 그리고 선한 주막 주인들로부터 열매를 맺기를 기원해 본다.

군선교신학 제10권 발제 2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 총신대 신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 총신대 철학박사(Ph.D.)
■ 미국 자살예방센터(SPC) 수료
■ 현 육군 제6군단
■ 진군교회 담임
■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한국군종목사단 선샤인 캠페인 TF장

들어가는 말

2005년 6월 19일 최전방 GP에서 총기 사고로 여덟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1] 2011년 7월 4일 강화도 해병부대에서 총기 사고로 부대원 네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2] 2011년 7월 10일

1 〈국방일보〉, 2005. 6. 20. 1면.

2 〈국방일보〉, 2011. 7. 5. 2면.

포항의 한 해병부대에선 일병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들 모두 구타나 가혹 행위,[3] 집단 따돌림 등의 악습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4]

2011년 7월 4일 총기 사건 이후 해병대는 2011년 7월 18일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군 · 해병대 지휘부와 장병,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해병대 예비역 및 일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 문화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5] 병영 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 등 비위를 저지른 해병에게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떼어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병영 악 · 폐습 척결 명

3 육군본부, 〈안전 학습 프로그램〉 (대전: 국군인쇄창, 2011), 13. 폭행 및 가혹 행위 등은 사고가 아니라 범죄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

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상담심리코칭학회 엮음, 《목사님, 도와주세요! 병영 상담 2》 (서울: 쿰란출판사, 2012)를 참조하라.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행하는 군대 내 끊이지 않는 악습에는 많은 양의 과자 또는 빵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다리에 테이프 붙여 체모 뽑기, 담뱃불을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구타, 비타민 5-10알 강제 취식 등도 있다. 〈군선교 신문〉, 2011. 9. 30. 3면을 참조하라. 심리적 외상은 전쟁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강간, 성폭행, 중요한 사람의 죽음, 이별, 창피를 당한 경험, 심한 좌절경험, 심각한 질병, 신체적 장애나 심한 불안, 그리고 가족과 상급자로부터의 학대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심리적 외상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 하며, 증상이 한 달 미만인 경우를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ASD)라고 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김은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중재", 한국군상담심리학회, 《PTSD와 군 상담》 (서울: 한국군상담심리학회, 2011), 1, 3.

5 〈국방일보〉, 2011. 7. 19. 1면. '병영 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방부 장관은 "구타는 우리보다 훨씬 후진 국가, 제3세계 국가에만 일부 남아 있다. 구타와 가혹 행위는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절대 요인이 된다. 여러분 사이에서 구타 · 가혹 · 집단 행위가 누구로부터 촉발될 때에는 '이 사람이 우리 해병대를 갉아먹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선진 군대로 올라설 수 없다"고, 병영 문화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령을 위반하면 사령부 차원에서 소속을 변경하고, 명령을 위반한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었다. 또한 구타 · 가혹 행위, 폭언 · 욕설, 기수 열외, 작업 열외 등 병영 내 각종 악 · 폐습 척결과 관심 병사 식별 및 관리 대책, 작전 기강 확립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6]

아울러 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 관리를 위해 지휘관 및 주임 원사에 의한 병력 관리,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에 의한 병력 관리,[7]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비전 캠프 실시[8]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9]

이러한 해병대와 군의 추진 방안과 연계하여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부정적인(negative) 접근 방식에서 긍정적인(positive) 접근 방식으로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10] 본 연구자는 그 방안 중 하나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6 해병대는 병영 혁신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외부 기관의 진단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 컨설팅, 옴부즈맨 제도 등 선진 제도를 도입하며, 가정과 학교 · 예비역과 연계한 병영 혁신도 추진키로 했었다. 〈국방일보〉, 2011. 7. 19. 1면을 참조하라. 옴부즈맨(ombudsman)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세계 최초의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이다.

7 병영 생활 전문 상담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으로 상담 여건 보장을 위한 전문 상담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2006년부터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을 선발해서 2006년 8명, 2007년 12명, 2008년 42명, 2009년 105명, 2010년 106명, 2011년 95명, 2012년 148명을 운영하고 있다.

8 비전 캠프 프로그램은 2003년 개발되었으며, 육군의 중요한 사고 예방 시스템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다음을 참조하라. 육군본부, 《비전 캠프 2007》 (서울: 도서출판 뉴컴, 2007), 4.

9 정택수, "군 장병 자살 위기 관리 실태 분석 및 대책 방안", 육군3사관학교, 〈제1회 장병 위기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대전: 국군인쇄창, 2012), 189-194.

10 육군본부, 《긍정형 리더십》 (대전: 국군인쇄창, 2012), 3. 긍정형 리더십이란 마음, 말, 행동을 부정적인 접근방식에서 긍정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여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임무 완수에 전력 투구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선샤인 캠페인' (sunshine campaign)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선샤인 캠페인의 정의, 추진 경과 사항,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5대 실천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 실천 사례, 그리고 의의와 발전 방향과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1. 선샤인 캠페인의 정의

'선샤인 캠페인' 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의 애칭이다. '선샤인 캠페인' 은 대한민국 1004 군인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기독 장병들이 병영 생활에서 천사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는 전우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병영 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있다면 올바르게 개선시키는 등, 더 좋은 군사가 되어 사고 없는 건강한 병영을 만들자는 캠페인이다.[11] 즉 선샤인 캠페인은 육 · 해 · 공군 · 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 장병들이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대 사고 예방과 병영 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실천 운동이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선샤인' 을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첫째, '선샤인' 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을 의미한다. 둘째, '선샤인' 은 병영 문화를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을 의미한다.

1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건강한 병영만들기 선샤인 캠페인' 전단지 (등록번호 12-5-30).

2. 선샤인 캠페인의 추진 경과 사항

1)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첫 기사

〈군선교 신문〉은 선샤인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기사를 보도하였다. 특집으로 편성된 첫 번째 기사는 2011년 8월 16일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는가? 1004 군인 교회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여 생명력 있는 건강한 병영을 만들자! 기독 장병들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병영을 만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라는 글이다.[12] 기독 장병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군대 내 존재하는 악습을 뿌리 뽑고 힘들어하는 전우들에게 배려와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줌으로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자고 하였다.

2)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제시

2011년 9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건강한 병영 만들자! 선한 사마리아 캠페인은 1004 군인 교회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 사명, 절박한 상황에 있는 전우들에게 다가가 문제 해결에 실제적 도움을 주자. 기독 장병들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도하였다.[13]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으로 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를 제시하였다.

2011년 10월 31일자 〈군선교 신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식 신앙생활, 군대 내 사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기독 장병이 되자! 기독 장병들은 신자화보다는 신앙화를 통해 건강한 병영을 만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다하자"라고 보도하였다.[14] 그 기사는 2011년 10월 13일 한신대학교 신대원 예배실에서 열린 제11회 한국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개회 예배에서 박종화 목사가 선포한 말씀 전문을 게재하였다.

박종화 목사는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자를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과 가슴이 아픈 것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중략)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라고 하십니다"라고 강조하였다.[15]

3)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 회의 개최 및 5대 세부 실천 사항 제시

2011년 10월 4일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1004 군인 교회 캠페인 사역으로 공식 결의하였다. 이후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16]이 조직되었고, 세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1차 회의는 2012년 1월 19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실시하여 2012년 2월 8일 군종목사 영성 수련회 기간 중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브리핑하기로 결의하였다. 2차 회의는 2012년 1월 25일 육군 제6군단 진군교회에서 실시하여 브피핑 시 제시할 캠페인의 동기, 목적, 대상, 5대 실천 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을 토의하였다.

12 〈군선교 신문〉, 2011. 8. 16. 1면.
13 〈군선교 신문〉, 2011. 9. 30. 1면.
14 〈군선교 신문〉, 2011. 10. 31. 3면.
15 〈군선교 신문〉, 2011. 10. 31. 3면.
16 한국군종목사단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TF팀 지도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 김태식 목사, 팀장 최석환 목사, 팀원으로 육군 박요섭, 김성훈, 해군 정모세, 공군 김현우 목사이다.

마침내 2012년 2월 8일 군종목사 영성수련회 기간 중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으로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를 제시하였다. 3차 회의는 2012년 3월 26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실시하여 2012년 4월 12일 전반기 종단지원회의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신우회 지도교사 세미나 시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을 교육하기로 결의하였다.

4)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애칭과 슬로건 확정

2012년 3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캠페인 공식 명칭을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애칭: 선샤인 캠페인)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과 '당신이 천사입니다' 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스티커, 휴대용카드, 전단지, 포스터 등을 배포하기로 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TF팀과 군선교연합회가 2011년 3월 26일 실무 회의를 갖고 결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을 3월 28일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회와 군선교연합회 정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5) 선샤인 선포 주일

2012년 4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모두가 선샤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 6월 3일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 선포 주일, 1004 군인 교회마다 기도와 홍보와 나눔 실천으로 새 문화를 만들자"라고 보도하였다.[17] 2012년 5월 31일자 〈군선교 신문〉은 "내가 먼저 선샤인이 되자!"라고 보도하였다.[18]

17 〈군선교신문〉, 2012. 4. 30. 3면.

18 〈군선교신문〉, 2012. 5. 31. 1면.

2012년 6월 3일 선샤인 선포 주일을 앞두고 1004 군인 교회에서 누가복음 10장 20-37절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다.

실제적으로 올해 6월 3일 선샤인 선포 주일 예배 시 육 · 해 · 공군 · 해병대 1004 군인 교회에서 동시에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었다.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설교 시 군종목사가 직접 제작한 PPT를 활용하여 장병들의 동기 부여를 도왔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편집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병영을 만들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송과 특별 헌금 순서를 갖기도 하며, 5대 실천사항을 구호로 외치기도 하였다. 선샤인 주일은 단지 좋은 캠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나오기도 하였다.[19]

6) 선샤인 서약식

2012년 6월 30일자 〈군선교 신문〉은 "대한민국 선샤인 서약, 제22회 6 · 25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 대성황, 기독 장병 약 3,400명이 선샤인 실천서약" 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20] 특별히 제22회 6 · 25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 둘째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1004 군인 교회 비전 2020 및 선샤인 사역 페스티벌 행사를 가졌다. 이 시간에 3,400여 장병이 부대 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겠다며 선샤인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서약을 한 장병들은 기독 장병으로서 육 · 해 · 공군 · 해병대 각급 부대에서 선샤인 활동을 다짐하였다. 선샤인 서약서는 "나는 기독 장병으로

19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선샤인 선포 주일을 지키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육군 6군단 최석환 군종목사, 60사단 고재천 군종목사, 해군 1함대 정찬수 군종병, 공군 군종실 김광일 군종목사, 해병대 연평부대 이구 군종목사이다.

20 〈군선교 신문〉, 2012. 6. 30. 1면.

서 병영 생활에 힘들어 하는 동료 전우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어 주며, 따뜻하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선샤인) 사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좋은 군사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2012. 6. 22 서약인 ○○○(서명)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귀중" 으로 되어 있다.

3.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그렇다면 선샤인들이 누구를 도울 것인가? 바로 부대 부적응 장병들이다. 부대 부적응의 원인은 우울, 불안, 분노나 적대감, 정신증, 대인 관계 어려움, 인지 능력 저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자는 선샤인들이 부대 생활을 하면서 부대 부적응 장병을 쉽게 식별하는 방안을 '군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현장 대처 매뉴얼' 에서 인용한 몇 가지 질문들로 제시하고자 한다.[21] 이러한 질문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논할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과 5대 세부 실천 사항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1) 수면 문제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고 잠을 설치는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가?[22] 의도적으로 잠을 자려 하지 않는가?[23] 욕설과 괴성 등이 포함된 과격한 잠꼬대를 하고, 이 현상이

21 대전상담연구소, '군복무 적응을 돕기 위한 현장 대처 매뉴얼' (대전: 대전상담연구소, 2008), 5-10.

22 일조점호 시간에 조는 모습이 관찰되거나, 개인 시간과 정비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확인해 보고, 수면을 방해하는 선임병 혹은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2) 식사 문제

끼니를 자주 거르려고 하고 식사량이 급격히 줄거나 반대로 과식을 하는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주로 혼자 앉으려 하는가?

3) 건강 문제

자주 복통이나 두통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는가? 구토를 자주 하는가? 화장실에 가면 너무 오래 있다가 나오는가?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해 보이거나 안색이 좋지 않은가? 외래 진료를 자주 받기를 원하는가?

4) 위축되거나 무력한 행동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가? 일과 후 단체 활동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혼자 있는가? 혼자서 전화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갑작스럽게 개인 행동이 많아졌는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쉽게 무기력해졌는가? 남들이 웃는 상황에서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웃지 않는가? 가능한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졌는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동공이 풀려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가? 자살에 관해 언급하는가?[24]

23 과도하게 흥분해 있거나, 반대로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지만 본인이 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긴장되거나 불안한 행동

얼어 있거나 긴장하고 있거나 겁에 질려 있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는가? 눈치를 자주 보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는가?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가?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는가? 숨기는 것이 많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말을 잘 더듬는가?

6)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나면 종종 문이나 벽을 주먹이나 발로 차는가? 성미가 급하고 뜻대로 안 되면 상황이나 대상에 상관없이 성질을 부리는가? 선임병에게 대드는가? 말다툼을 자주하고 동료들과의 갈등이 잦은가? 동료나 후임병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가?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하는가? 경계 근무 중 총을 자주 만지작거리는가? 사회에서 뒷골목 생활을 했었음을 은연중 암시하는가?

---

24 육군본부, 〈안전 학습 프로그램〉(대전: 국군인쇄창, 2011), 33. 자살징후 목록표를 참조하라. 주위 동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죽고 싶다고 표현하는가? 수첩, 노트 등에 삶을 비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부모, 동료, 애인, 상관, 형제들에게 유서를 작성했는가? 말이 없어지고 대화를 회피하는가?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업무 회피 및 염증을 표출하는가? 고립되고 위축된 행동을 하는가? 매사에 흥미를 상실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가? 행동이나 표정이 밝지 않고 항상 우울한가? 죄책감을 표현하는가? 식사를 잘 안 하거나 의욕없이 식사하는가? 한밤중에 앉아 있거나 초조하여 잠을 못 자는가? 숙면이 불면으로, 불면이 숙면으로 변했는가? 사물함을 정리하며, 빌린 돈을 갚는 행동이 있는가? 가까운 전우와 차분한 대화를 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물건을 전달하는가? 몸치장을 하고 내복을 갈아입는 등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평소 '죽어버리면 그만' 이라는 언행 등 현실 도피나 죽음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발언을 하는가? 세상을 저주하고 삶의 애착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가? 이성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언행이 있는가? 쫓기듯 초조해지고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이 있는가?

7) 상식을 벗어나는 기괴한 행동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반복해서 떠올라 괴롭다고 하는가? 목적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는가?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는가? 환청을 듣는가? 헛것을 보는가? 참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가? 무언가를 기록하는 횟수가 많아졌으며 기록한 내용을 숨기는가?

8) 대인 관계 문제 및 갈등

본인이 다른 병사들을 따돌리는가?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자유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을 장소를 찾는가? 자신의 힘든 사정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동정을 유발하는가?

9) 휴가 관련

과도하고 빈번하게 휴가를 보내 달라고 하거나, 휴가 나가는 사람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되는가? 휴가 후 복귀 시간을 매번 지키지 못하는가?

10) 업무 관련

설명을 해도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가? 일을 시켜도 잘 못하거나 하지 않는가? 장교나 선임들에게 물어봐야 할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가? 훈련이나 작업 등 근무 시에 매우 수동적으로 행동하는가? 선임병임에도 불구하고 지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지시를 내리면서도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가?

4.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박종화 목사는 〈군선교 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화와 동시에 신앙화, 생활 신앙화가 같이 선행되어야 군대가 변화되고, 군대에는 군종목사가 필요하게 되고, 군대에 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중략)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부대에서 실천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군종 목회를 합시다. 병영 목회를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먼저 함께 아파합시다. 그러면 병영이 하나님의 가슴을 닮아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25]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독 장병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 좋은 전우가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3-35절을 보면,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26]

첫째, 선한 마음이다(눅 10:33).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확 진단이다(눅 10:34).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한다. 셋째, 응급 조치이다(눅 10:34). 강도 만난 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한 기름과 살균을 위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맨다. 넷째, 계속 치료이다(눅 10:34).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본다. 다섯째, 사후 관리이다(눅 10:35).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25 〈군선교신문〉, 2011. 10. 31. 3면.

26 〈군선교신문〉, 2012. 6. 30. 3면.

계속 돌보아 주도록 한다. 끝까지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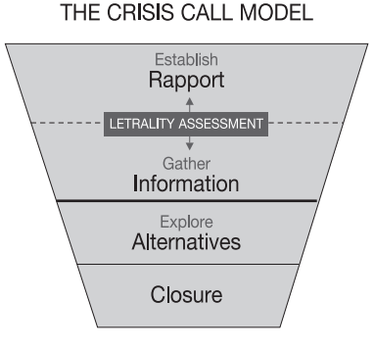
5.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본 연구자는 한국군종목사단 선샤인 캠페인 TF 팀장으로서, 미국 자살예방센터(Suicide Prevention Center)[27]의 위기 전화 모델을 중심으로 5대 세부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인 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를 5대 세부 실천 사항인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와 각각 연결하고자 한다.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은 24시간 위기 전화 운영을 위한 발런티어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 자살예방센터의 네 단계 위기 전화 모델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위기 전화 모델은 라포 형성(Establishing Rapport - Lethality Assessment), 정보 수집(Gathering Information), 대안 탐구(Exploring Alternatives), 마무리(Closure)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중 인사하기는 라포 형성에 해당하며, 경청하기는 정보

27 미국 자살예방센터(SPC)는 2012년 창립 54주년이 되었다. 저자가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 연수를 받으면서 획득한 SPC 2008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 16분마다 1명씩 자살하며, 거의 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또한 자살로 죽은 사람들의 절반 가량이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다고 한다. Didi Hirsch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주소는 4760 S. Sepulveda Boulevard Culver City, CA 90230이며, 전화번호는 310-390-6612이다. 별도의 건물인 Suicide Prevention Center(SPC) 주소는 11133 W. Washington Boulevard Culver City, CA 90232이다. 전화번호는 310-895-2300이다. 미국 자살예방센터(SPC)에 걸려오는 모든 위기 전화에서 확인해야 할 다섯 개의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자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 2개월 안에 자살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총이 옆에 있습니까? Suicide Prevention Center, *CRISIS LINE TRAINING MANUAL* (2008), 32.

수집, 동행하기와 칭찬하기는 대안 탐색, 선행하기는 마무리에 각각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28]



1) 인사하기

인사하기는 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병을 보고 찾아가서 라포를 형성하는 선샤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 라포는 하나 되게 하는 신비로운 접착제처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장병과 공감적인 얼굴 표정을 지으며, 눈을 맞추며,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이다.[29]

28 *Ibid.*

29 육군본부, 《참 군인의 길》 (대전: 국군인쇄창, 2012), 73. 맥아더 장군은 부하의 이름과 성격, 속마음까지 알기를 원했다. 맥아더 장군의 10가지 체크 리스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부하를 부당하게 비방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부하에게 정신적인 용기를 주고 있는가? 나는 약한 사람이나 잘못을 저지를 자를 구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가? 나는 부하의 이름과 성격, 속마음까지 알 수 있는가? 나는 임무 수행, 조직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숙지하고 있는가? 나는 남에게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일이 없는가? 나는 부하들이 나를 기꺼이 따르고 싶도록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부하에게 실행 가능한 임무를 맡기고 그 임무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가? 나는 인격이나 몸가짐, 예의 등에서 부하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 웃으며 인사하기[30]
- 눈을 맞추며 인사하기
- 악수하며 인사하기
-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기

2) 경청하기

경청하기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샤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31] 경청을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의 언어적 메시지를 마음으로 공감하며,[32] 귀로 집중하고, 입으로 맞장구치며 경청하고, 눈으로 비언어적 메시지인 행동을 관찰하며 경청하면 좋을 것이다.[33] 즉 신체적 행동, 눈 행동, 얼굴 표정을 보면서, 목소리의 고저와 크기와 속도와 톤 등을 들으면서 경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34]

30 최석환, "웃음 치료사", 합동참모본부, 〈합참〉 제28호(2006), 97-100; 노먼 커즌스, 양억관 · 이선아 역, 《웃음의 치유력》 (서울: 스마트비지니스, 2007), 171 참고.

31 국방부는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경청한다는 콘셉트(concept)로 24시간 365일 자살 예방 위기 상담 핫라인인 '국군 생명의 전화' 를 운용하고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전화 상담(수신자 부담): 일반전화 080-007-0179, 02-794-0179, 군 전화 국직 900-0179, 육군 960-0179, 해군 910-0179, 공군 920-0179, 해병대 928-0179, 사이버 상담: 인트라넷 www.lifeline.mil , 인터넷 www.mndcic.mil.kr . 또한 국방부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24시간 실시간 운영하고 있다.

32 스티븐 E. 콘, 빈센트 D. 오코넬, 김광수 역, 《함께 일하고 싶은 팀장》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6), 99-100. 콘에 의하면, 공감이란 말은 감정을 이입한다는 뜻의 그리스어 'empatheia' 에서 유래했으며, 다른 사람의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33 스티븐 오거니, 토머스 네블 공저, 전지현 역, 《리더를 세우는 코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32; 마츠모토 유키오, 은영미 역, 《7일 만에 말을 잘하게 되는 책》 (서울: 나라원, 2003), 90.

34 육군본부 군종실, 《군 동료 상담 길라잡이 함께 걷는 친구》 (서울: 셋방기획, 2009), 39-52. 힐(Hill)은 격려의 의미인 'encourages' 로 경청의 자세를 말했다. 즉 부드러운 시선 접촉 유지(eye contact), 적절한 횟수의 고개 끄덕임(head nods), 비언어적 행동 이해를 위해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 존중(cultural difference), 내담자를 지향한 열린 자세(open stance), 관심을 기울여 듣고 있음을 나타내는 짧은 "음" (um)을

• 마음으로 공감하며 경청하기[35]
• 귀로 집중하며 경청하기
• 입으로 맞장구치며 경청하기
• 눈으로 행동 관찰하며 경청하기

3) 동행하기

동행하기는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는 응급조치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장병과 함께함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 조치적 역할을 하는 선샤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36]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은 그 누군가가 자신과 동행해 준다면 자존감을 급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행하기는 임재 사역으로, 기독 장병들이 경제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도움이 필요한 장병과 예배하며 동행하기, 기도하며 동행하기, 운동하며 동행하기, 놀이하며 동행하기 등을 추천한다. 즐거운 놀이 활동에는 음악듣기, 악기 연주하기, 영화

사용, 이완되고 자연스러움(relax), 주의를 분산시키는 비언적 행동 피하기(avoid), 내담자의 문법적 스타일과 말의 속도에 맞추기(grammatical style), 제3귀로 듣기(a third ear), 내담자와의 사이에 적절한 공간 두기(space)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C. E. Hill, *Helpihg Skills* (Washington,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35 공감적 경청(empathetic listening)은 무엇보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것에 대한 판단 혹은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물을 보는 관점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스티븐 오거니, 토머스 네블 공저, 《리더를 세우는 코칭》, 31-32;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업무 Know-How〉 (대전: 국군인쇄창, 2011), 126-127.

36 게리 채프먼, 장동숙 역, 《5가지 사랑의 언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61-82.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이다.

보기, 편지쓰기, 그림그리기, 목욕하기, 조크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37]

• 예배하며 동행하기
• 기도하며 동행하기
• 운동하며 동행하기
• 놀이하며 동행하기

4) 칭찬하기

칭찬하기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치료해주는 것처럼, 병영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병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계속 치료하며, 자존감을 높이며, 새 힘을 불어넣는 데 효과적인 선샤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

해병대상륙지원단 상륙지원대대장 강송구 중령은 병영 문화 혁신의 첫 단추는 2011년 7 · 4 사건이었고, 종결자는 〈국방일보〉의 '칭찬합시다' 캠페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38] 그는 칭찬하기를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칭찬하기는 도움이 필요한 장병의 자존감을 최고로 높여주어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39]

37 최석환, "정신적 차원의 자살 예방법", 육군종합행정학교, 〈남성대〉 (2009년 제2호), 168-174; 오승근,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 실천 방안", 한국 생명의 전화, 〈2012 지역사회 자살 예방 네트워크 교류 워크숍-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실천 방안〉(2012), 176; 더 트리 그룹,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 4, Level 4 Worksheet 23(1), 2006. 참고적으로 국제 심리학 자문 그룹인 더 트리 그룹은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다. 그룹 산하의 다섯 영역에서 기업 자문, 경험 과학에 기초한 심리사회적 통계 연구, 법정 심리 서비스, 심리 평가 및 출판, 영어 및 한국어권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8 〈국방일보〉, 2012. 5. 23. 20면.

39 육군본부, 〈참 군인의 길〉 (대전: 국군인쇄창, 2012), 8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언 27:21)는 말씀처럼, 우리 선샤인들도 칭찬하기를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병을 강하게 단련할 수 있을 것이며,[40] 그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치료하고 병영 문화를 혁신하는 선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여 군생활을 위한 동기 부여를 해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칭찬하여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며, 개인적으로만 칭찬하는 것 대신에 할 수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자신이 인정받는 군인임을 느끼게 하고,[41] 과장되지 않고 적절하게 칭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기
-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 공개적으로 칭찬하기
- 적절하게 칭찬하기

5) 선행하기

선행하기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사후 관리를 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끝까지 책임있는 사후 관리를 하는 선샤인 캠페인 세부 실천 사항이다. 즉 어려움에 처한 장병을 한 번 만나 도움을 주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적 차원

40 조현삼, 《말의 힘》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128-129. "비판을 받으면 사람이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된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칭찬은 사람에게서 불순물을 분리해 낸다. 사람은 원광석과 같다. 금이 섞인 돌 말이다. 칭찬을 통해 사람 안에서도 돌과 금이 분리된다. 원광석에서 돌을 제거해 내면 금만 남듯이, 칭찬으로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면 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칭찬은 사람을 금같이 존귀하게 만든다. 금 같은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41 존 맥스엘, 레스 패로트, 한근태 역, 《신뢰를 얻는 25가지 심리 기술 작은 시작》 (서울: 다산라이프, 2008), 59; 신시아 샤피로, 공혜진 역,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서울: 서돌, 2007), 245.

에서 계속 접촉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선행하기의 예로, 교육훈련 등 부대 생활에 부적응하고 있을 때 잘 적응할 때까지 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42] 힘든 업무 도와주기,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지휘라인으로 보고하기, 안전한 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기 등을 추천한다.

- 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선행하기[43]
- 힘든 업무 도와주는 선행하기
-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지휘라인으로 보고하는 선행하기[44]
-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는 선행하기[45]

42 최석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국방부, 〈참된 삶〉 (서울: 화신문화, 2005), 9-13.

43 구체적인 선행하기를 예를 들면, 후임병이 체조 틀려도 괴롭히지 않고 가르쳐 주기, 점호 후 선임병은 자고 후임병은 담당 구역 청소하는 관행을 깨고 함께 청소하기, 식사 시 선임병만 테이블에 손 올리지 않고 모두 자유롭게 식사하게 하기, 근무 관련 암구호와 시간과 근무자 현황 등을 후임병이 확인하여 선임병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선임병이 직접 확인하기, 신병 전입 시 근무 요령이나 서열에 대해 암기 강요하지 않기, 장난을 빙자한 레슬링, 복싱, 목 조르기, 팔 꺾기 등 하지 않기, TV채널을 선임병 마음대로 선택하여 보지 않고 자유롭게 보게 하기, TV 시청 시 침대, 관물대, 모포에 기대는 등 자유롭게 보게 하기 등이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육군본부, 〈긍정형 리더십〉 (대전: 국군인쇄창, 2012), 28.

44 정택수, "군 장병 자살 위기 관리 실태 분석 및 대책 방안", 육군3사관학교, 〈제1회 장병 위기 관리 체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대전: 국군인쇄창, 2012), 195. 상담 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휘 조치(외출, 외박, 휴가, 전속, 보직 변경),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정신과 군의관, 군종 장교, 법무관에게 의뢰, 가족이나 애인에게 서신을 띄움, 가족이나 애인을 부대로 초청하여 지휘관(자)이 직접 상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성금을 모아 전달, 장교가 외출, 휴가 시 병사의 개인적 일을 대신 보아줌,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학력이 높은 병사가 학력이 낮은 병사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주선, 분대장에 의한 전입 신병 관리, 상급자나 업무에 대한 소원 접수 및 정기적인 집단 상담 기회 마련, 정기적으로 같은 부대 내의 병사나 장교에게 편지를 쓰도록 함, 친한 동료 병사를 통해 상황의 진전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 등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손영철, 《군 상담 이렇게 합니다》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89-90.

6.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

〈군선교 신문〉에서 실시한 기독 장병 인터뷰를 통해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46]

1) 23사단 일병 김대진

"○○대대 근무 중인 병사 중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위기였는데, 대대 군종병 병장이 계속적으로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보살펴 주고 또한 간부에게 사정을 전달하여 휴가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후 그 형제는 부대 생활에도 잘 적응해 나갔으며, 교회에도 출석하게 되었다."

2) 26사단 상병 구요한

"사단 군종병들끼리 상담 활동을 같이한다. 상담 일지를 써서 관리하는데, 병사 중에 부인이 출산을 하는 병사가 있었다. 원래 갈 수 없는데 상담일지로 보고가 잘되어 휴가를 가게 되었다. 상담이라고 해도 앉아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샤워할 때, 운동할 때 등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물어보고 밀착형 상담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3) 52사단 상병 심종한

"여자 친구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자해도 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한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 그 병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했다. 처음에는 분노가 많아서 힘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마음을 열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고 내 경험을 나눴다. 결국 감사하게도 자해를 멈추고 자살시도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병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

"한 병사는 자대 배치를 받고 어리숙한 편이라 뒤처져서 고참들에게 지적받고 밉보여서 무엇을 해도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함께 있거나 마주 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음에 미숙한 것은 당연하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라며 격려해 주었다. 또 같은 생활관에 있는 병사들이 그 병사에게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인식을 바꾸려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며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7. 선샤인 캠페인의 의의

선샤인 캠페인의 의의는 몇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45 예를 들면, 방치된 노끈류, 야전상의 조임끈, 전투화끈, 운동화끈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음을 참조하라. 육군본부, <안전 학습 프로그램> (대전: 국군인쇄창, 2011), 16-17; 정택수, "군 장병 자살 위기 관리 실태 분석 및 대책방안", 육군3사관학교, <제1회 장병 위기 관리 체계 활성화 방안 세미나> (대전: 국군인쇄창, 2012), 193.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한 환경적 예방의 중요성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조용범, "충동적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 환경 구축에 대한 법제화 방안 연구"(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 K. Hawt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thods of suicide as a means of suicide prevention."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icidal behavior: From science to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6 <군선교 신문>, 2011. 9. 30. 3면.

1)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전환

비전2020사역이 영혼 구원 전도 사역이라면, 선샤인 캠페인 사역은 영혼 구원 받은 기독교인이 사랑의 삶을 생활화하는 실천 사역이다. 그러므로 선샤인 캠페인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비주얼 캠페인이다.

2)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

선샤인 캠페인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책감에서 죄사함으로, 지옥에서 우리의 기업인 천국으로의 전환을 돕는다.[47] 선샤인 캠페인은 병영 문화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비추어 짐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빛난 건강한 병영 문화 확립을 돕는 영적 도구가 되고 있다.

3) 부정적 기독교 이미지에서 긍정적 기독교 이미지로의 전환

선샤인 캠페인은 지금까지 파생되었된 이기적이고 맛 잃은 소금처럼 영향력이 없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고, 기독 장병이 군복무 기간 동안 선샤인으로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병영을

47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18). "to open their eyes and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so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 pla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NIV). "*ἀνοῖξαι ὀφθαλμοὺς αὐτῶν, τοῦ ἐπιστρέψαι ἀπὸ σκότους εἰς φῶς καὶ τῆς ἐξουσίας τοῦ Σατανᾶ ἐπὶ τὸν θεόν, τοῦ λαβεῖν αὐτοὺ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καὶ κλῆρον ἐν τοῖς ἡγιασμένοις πίστει τῇ εἰς ἐμέ*"(UBS4)

밝히고, 나아가 전역 후 사회로 나와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교회와 사회를 회복하는 새로운 기독교 이미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48] 선샤인 한 사람이 따뜻하고 건강한 병영을 만들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8. 선샤인 캠페인의 발전 방향

1) 선샤인 캠페인 송 만들기

선샤인 캠페인 송을 만들어 반복해서 부르게 함으로, 효과적으로 선샤인 캠페인을 1004 군인 교회를 포함하여 국군 장병에게 알린다.

2) 선샤인 캠페인 홍보 동영상 제작

비전 2020 선교단장 이순귀 권사가 제작한 영상인 Jesus 사랑 흘려보내기, 2012 기독 장병 구국 기도회 파송 영상 피날레 부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2012 기독 장병 구국 기도회 보고 영상 중 "선샤인 사역 페스티벌" 등의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하고,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3) 선샤인 캠페인 성경 공부 교재 활용

건강한 기독 장병 양육을 위한 12주 생활편인 <The 좋은 군사>를 잘

48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49 한국군종목사단, <The 좋은 군사>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192-203.

활용하여[49] 선한 사마리아인의 개념을 계속 숙지하게 하는 것이다.

4) 선샤인 캠페인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활용

2012년 6월 22일 한국군종목사단 회의 시 선샤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자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현재 제작된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를 충분히 인쇄하여 홍보에 활용함으로 선샤인 캠페인을 알리게 한다.

5) 선샤인주일 지속적 시행

2012년 6월 3일에 최초로 지켰던 선샤인 주일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1004 교회가 공동체적 책임을 상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6) 선샤인 멤버십 운영

2012년 제22회 6 · 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 시 3,400여 장병이 부대 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겠다며 선샤인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앞으로도 캠페인 동참 희망자는 멤버십 카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며, 상징물로 선샤인 배지를 증정하면 좋을 것이다.

7)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집 발간

선샤인 캠페인 실천 모범 장병을 선발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군선교 신문>을 통해 홍보하고,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이다.

9. 선샤인 캠페인의 과제

1)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 연구, 수립, 제시

해군 1함대사령부 정찬수 군종병은 포스터, 전단지, 구국성회를 통하여 선샤인 캠페인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이 너무 추상적이라 병영 내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다고 애로 사항을 표현한 바 있다.[50] 또한 그는 군생활을 어려워하는 장병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샤인 캠페인을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수립,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된다.

2) 기독 장병과 비기독교인 장병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요망

해병대 연평부대 이구 군종목사의 인터뷰 내용처럼, 선샤인 캠페인이 믿지 않은 장병들도 수용 가능한 복음으로 제시되고, 사마리아인도 소외받는 자였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51] 이를 위해 기독 장병과 비기독 장병들이 함께 추진하는 선샤인 캠페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연합 작전적 열정 필요

선샤인 캠페인을 장병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004 군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의 열정이 중요하다. 군종목사와

---

50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51 〈군선교 신문〉, 2012. 6. 30. 3면.

군선교사 모두가 연합 작전을 수행하듯 열정적인 자세로 선샤인 캠페인을 후원 및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선샤인 캠페인의 정의, 추진 경과 사항,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5대 실천 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 실천 사례, 의의, 발전 방향, 과제 등을 연구하였다. 대한민국 국가 공인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군대에서 육 · 해 · 공군 · 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 청년들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참 기독 용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샤인으로서 병영 내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선샤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인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는 오르고, 전투력도 업그레이드되고, 군기는 살아 있고, 구타 및 폭언, 기수 열외 등 악습은 사라지고, 부대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고 건강한 국군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 선샤인들이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을 바꾸기를 기대한다.

군선교신학 제10권 논찬 2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김진섭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B.S.)
고려신학대학원 (M. Div.)
미국 Covenant신학대학원 (구약학 전공, Th. M.)
미국 Dropsie대학원 (고대근동학 전공, M.A.; Ph. D.)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내용 요약

최석환 박사는 본 논고의 서론에서 군이라는 특수 공동체에서 언제나 예상되는 여러 형태의 사고들(총기, 자살, 구타, 가혹 행위, 언어폭력, 집단 행위)과 악 · 폐습(기수 열외, 작업 열외, 'PX빵', '엽문', '악기 테스트', '다리 체모 테이프로 뽑기', '비타민 5-10알 강제 취식' 등)을 척결하고, 관심 병사의 식별과 관리 대책 및 작전 기강을 확립하며, 지휘관 및 주임 원사에 의한 병력 관리,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에 의한 병력 관리, 사고 예방 교육 실시, 비전 캠프 실시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공동으로 2011년 가을에 제

안하고 2012년 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선샤인 캠페인' (sunshine campaign)을 소개한다.

본론에서 '1. 선샤인 캠페인의 정의 2. 추진 경과 사항 3.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4.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5.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6.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 7. 선샤인 캠페인의 의의 8. 선샤인 캠페인의 발전 방향 9. 선샤인 캠페인의 과제' 를 상론한다. 그 논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선샤인 캠페인의 정의

'선샤인' 은 누가복음 10장 20-37절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과, 병영 문화를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으로, 육 · 해 · 공군 · 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 장병들이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대 사고 예방과 병영 문화 개선에 앞장서자는 기독교 실천 운동이다.

2) 추진 경과 사항

첫째로, 〈군선교 신문〉을 통한 홍보로서, ① 2011년 8월 16일자에 캠페인 첫 기사를 낸 후, ② 9월 30일자에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을 제시하였다. ③ 10월 31일자에 '선한 사마리아인식 신앙생활, 군대 내 사고 머리 아파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는 기독 장병이 되자!' 는 독려와 제11회 한국 교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개회 예배(10월 13일)에 전한 박종화 목사의 같은 맥락의 설교 전문을 게재하고, ④ 2012년 3월 30일자에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의 애칭(선샤인 캠페인)과 슬로건("당신이 천사입니다")을 소개하면서 스티커, 휴대용 카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배포함을 보도하였다. ⑤ 4월 30일자에 "6월3일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 선포 주일, 1004 군인 교회마다 기도와 홍보와 나눔 실천으로 새 문화를 만들자' 라고 보도하고, ⑥ 5월 31일자에서 '내가 먼저 선샤인이 되자!' 라고 독려하고, ⑦ 6월 30일자는 '대한민국 선샤인 서약, 제22회 6 · 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성회 대성황, 기독 장병 약 3,400명이 선샤인 실천 서약' 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둘째로, ① 10월 4일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1004 군인 교회 캠페인 사역으로 공식 결의한 후, ② 6명으로 구성된 TF팀의 세 차례 회의(2012년 1월 19일, 25일, 3월 26일)를 통해 2월 8일 군종목사 영성수련회 기간 중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의 동기, 목적, 대상, 5대 실천 사항, 5대 세부 실천 사항(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을 제시하고, ③ 3월 28일 한국군종목사단 중앙위원회와 군선교연합회 정책회의에서 세부 실천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2일 전반기 종단지원회의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신우회 지도교사 세미나에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 세부실천사항을 교육하기로 결의하였다. ④ 6월 3일 선샤인 선포 주일 예배에 육 · 해 · 공군 · 해병대 1004 군인 교회에서 동시에 누가복음 10장 20-37절의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었다. ⑤ 6월 22일, 제22회 6 · 25 상기 기독 장병 구국 성회 둘째 날 오전 예배 시간에 3,400여 장병이 '나는 기독 장병으로서 병영 생활에 힘들어 하는 동료 전우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어 주며 따뜻하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선샤인) 사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적극 동참하는 좋은 군사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2012. 서약인 ○○○(서명)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귀중' 으로 된 선샤인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3) 부대 부적응 장병 식별 방안

선샤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대 부적응 장병들이 갖고 있는 '수면, 식사, 건강, 행동(위축이나 무력, 긴장이나 불안,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비상식적 기괴), 대인 관계 갈등, 휴가나 업무 관련' 의 문제점들을 제시한 질문들을 통해 식별한다.

4)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누가복음 10장 33-35절을 근거로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이 제시된다. 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 (33절) ②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정확 진단' (34절) ③ 강도 만난 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기름과 살균을 위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는 '응급 조치' (34절) ④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는 '계속 치료' (34절) ⑤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계속 돌보아 주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사후 관리' (35절)

5)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

미국 자살 예방센터(Suicide Prevention Center)의 24시간 위기 전화 네 단계(라포 형성, 정보 수집, 대안 탐구, 마무리) 운영 모델을 중심으로, 최석환 박사는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선한 마음, 정확 진단, 응급 조치, 계속 치료, 사후 관리)을 그가 제언하는 5대 세부 실천 사항과 연결을 시도한다. ① 인사하기(웃으며, 눈 맞추며, 악수하며, 이름 부르며) ② 경청하기(마음으로 공감하며, 귀로 집중하며, 입으로 맞장구치며, 눈으로 행동 관찰하며) ③ 동행하기(예배하며, 기도하며, 운동하며, 놀이하며) ④ 칭찬하기(결과보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적절하게) ⑤ 선행하기(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힘든 업무 도와주는,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지휘 라인으로 보고하는,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는)

6)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

① 23사단 일병 김대진 ② 26사단 상병 구요한 ③ 52사단 상병 심종한

7) 선샤인 캠페인의 의의

①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전환 ②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 ③ 부정적 기독교 이미지에서 긍정적 기독교 이미지로의 전환

8) 선샤인 캠페인의 발전 방향

① 선샤인 캠페인 송 만들기 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선샤인 캠페인 홍보 동영상 제작 ③ 선샤인 캠페인 성경공부 교재(12주 생활편인〈The 좋은 군사〉) 활용 및 발행 ④ 선샤인 캠페인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전단지 활용 ⑤ 선샤인 주일 지속적 시행 ⑥ 선샤인 멤버십 운영 ⑦ 선샤인 캠페인 실천사례집 발간

9) 선샤인 캠페인의 과제

①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 연구, 수립, 제시 ② 기독 장병과 비기독교인 장병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요망 ③ 군종목사와 군 선교사의 연합 작전적 열정 필요

2. 논평

1) 훌륭한 점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약 4,500교회가 동참하여 군대 내 모든 부대의 1004개 처소에 진중(陣中) 교회가 세워졌고, 군대를 통해 매년 20만 명이란 군인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대대 수준에서 세례 교인을 효율적으로 양육하여 제대 후 민간 교회로 연결할 수 있다면, 2020년에는 전 국민의 75%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류 역사 초유의 기적을 통해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 운동'의 비전과 사명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군선교는 이 시대 세계 최대의 영적 추수밭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비전과 사명이 달려 있는 황금어장임에 틀림없다. 황금만능과 쾌락과 종교 다원화의 쓰나미 속에서 노방 전도, 학원 선교, 산업 선교 등이 한계에 봉착한 오늘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국내 선교, 그것도 청년 선교의 유일한 돌파구로서 지금까지 누렸던 군선교의 호황 조건과는 달리 10년 내에 군 징집 인원 감소, 예상보다 지원병제의 조기 가시화 등의 큰 변화로 인해, 집단적인 종교 행사(세례 등)는 물론 공식적, 비공식적인 군부대 안에서의 선교 행위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2020년까지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호기임을 명심하게 된다.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군선교 '비전 2020 실천 운동'이 계획한 세례, 양육, 배출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차질을 빚으며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만일 군선교가 한국 교회 미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기독교계가 범 군·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군선교 전략이 범기독교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당위성은 더욱 증대되어 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군종목사단 선샤인 캠페인 TF팀장으로서 이 캠페인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있는 최석환 박사의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는 여러 형태의 기존한 병영 사고에 대처한 '병영 문화 혁신'의 구체적 해법 제시는 물론, 더 포괄적인 의미의 군선교 전략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고무적인 논고로 치하할 수 있겠다.

먼저 이 캠페인의 명칭인 '선샤인(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 33-35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놓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병영 문화를 밝게 비추는 그분의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다원주의 세태 속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장점을 시위한다.

같은 맥락에서 선샤인 캠페인 5대 실천 사항 역시 본문 석의를 통하여, 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33절), ②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정확 진단'(34절), ③ 강도 만난 자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기름과 살균을 위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는 '응급조치'(34절), ④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보는 '계속 치료'(34절), ⑤ 주막 주인에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계속 돌보아 주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사후 관리'(35절)로 규명한 것은 탁월한 해석적 적용이다.

선샤인 캠페인의 대상인 부대 부적응 장병들이 갖고 있는 '수면, 식사, 건강, 행동(위축이나 무력, 긴장이나 불안,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비상식적 기괴), 대인 관계 갈등, 휴가나 업무 관련'의 문제점들을 식별하는 질문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논고자가 2008년 9-11월에 미국 자살예방센터

(SPC)의 해외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4단계 위기 전화 모델'을 적용하여, ① 인사하기(웃으며, 눈 맞추며, 악수하며, 이름 부르며) ② 경청하기(마음으로 공감하며, 귀로 집중하며, 입으로 맞장구치며, 눈으로 행동 관찰하며) ③ 동행하기(예배하며, 기도하며, 운동하며, 놀이하며) ④ 칭찬하기(결과보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적절하게) ⑤ 선행하기(부대생활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힘든 업무 도와주는, 부적응 장병을 식별하여 지휘라인으로 보고하는,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제거하는)를 선샤인 캠페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으로 제안한 것은, 이 논고의 백미로 추천할 만하다.

비록 3개의 소수이지만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이 캠페인의 의의를 3가지로 간략히 정리한 후, 발전 방향에 대해 7가지 제안과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한 것은 본 논고의 실천적 논의를 확장하여 진행하는 데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2) 건의할 점

앞서 언급한 훌륭한 점들을 좀 더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논평자의 건의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선샤인 캠페인'의 태동 과정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본 논고는 바로 '추진 경과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는 바, 이 훌륭한 캠페인의 아이디어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출발점을 알 길이 없다. 특별히 본 논고자가 이 캠페인에 처음부터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궁금하다. 앞으로《군선교 신학》제10권에 게재할 때 이 부분이 역사적 자료로서 충분히 제공되었으면 한다.

(2) '선샤인 선포 주일'(2012년 6월 3일)에 누가복음 10장 20-37절의 동일한 본문으로 1004 군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런 경우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모범적 공동 설교문'을 몇 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면 보다 더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통일된 한목소리를 내는 데 유익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3) 누가복음 10장 20-37절에서 추출한 '5대 실천 사항'은 선샤인 캠페인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들의 협조를 받아 매뉴얼화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의 6대 '긍휼 사역'(Mercy MInistry)을 실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신구약성경 전체의 조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1]

(4) 선샤인 캠페인 '실천 사례'는 가장 생동감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범주에 따른 '사례 모음란'을 신설하거나, 1980년대에 풍미한 '간증 문학'의 형태로 우수한 사례들을 표상하거나 소책자화하는 것을 제언하며, '발전 방향'과 관계하여 한국 교회의 교단별 '군선교 담당' 기구나 담당자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함과 한국의 신학적인 학회들과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연구, 발표, 동역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으면 한다.

(5) 논고자가 잘 의식하고 지적한 대로, ①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의 연구, 수립, 제시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② 기독 장병과 비기독교인 장병

---

1 이 주제의 필독서인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Nottingham: IVP, 2004) = 김재영,《현대를 위한 구약윤리》(서울: IVP, 2006); Christopher J. H. Wright, *Mission of God* (Nottingham: IVP, 2006) = 정옥배 · 한화룡,《하나님의 선교》(서울: IVP, 2010), 449-498("11장.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삶").

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요망, ③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연합 작전적 열정, 필요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전략들을 기대하게 된다.

최석환 박사가 마무리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육 · 해 · 공군 · 해병대 1004 군인 교회와 기독 청년들이 신행일치의 선샤인으로서, 병영 내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 좋은 군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한다. 특히 선샤인 5대 세부 실천 사항인 '인사하기, 경청하기, 동행하기, 칭찬하기, 선행하기' 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향상되고, 구타 및 폭언, 기수 열외 등 악습은 사라지고, 부대마다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고 건강한 국군이 되기를 함께 소망한다. 더 나아가, 국군 선샤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까지도 바꿀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탁월한 논문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격려를 제공한 최석환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군선교신학 제10권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

(시편 23편 1-6절)

강사문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 D.)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야전에서 복무하는 군인으로서 다윗 왕이 고백한 시편 23편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다는 다윗의 구원의 확신은 국군 장병들에게 많은 용기를 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는 다윗 왕의 신앙고백인 시편 23편 1-6절의 삶의 자리와 신앙적 고백을 음미해 보려 한다.

1.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

1)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의 전 이해로서 광야

사막[1]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래 사람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는 존재, 즉 아담은 아다마(땅)에서 와서 아다마로 가는(창 3:19)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가 나서 살던 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땅(신 11:10-12)에서 왔느냐에 따라 생사관(生死觀)이 결정된다. 이는 광야 사막의 약속의 땅과 애굽 땅의 대조에서 잘 증명된다(신 11:10-12).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신앙은 사막에서 나온 신앙 체계이다. 구약 인물들의 신앙은 사막에서 생성된 신앙이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토양에서 모세, 바울과 예수님 같은 신앙인들이 나왔고, 그리스 땅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인들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남북의 길이가 약 400km이고, 동서의 길이가 약 100km의 넓이로, 현재 점령 지역을 빼면 20,232㎢이다(전라남북도의 넓이 20,240㎢와 유사하다). 따라서 23편 시편의 말씀도 철저하게 광야 사막이라는 실제적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다윗의 신앙고백이다.

2) 약속의 땅으로서 광야 –사막

광야 사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는 광야-사막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막들 중에 가장 큰 광야-사막은 시내 반도이다. 시내 반도의 크기는 동쪽과 서쪽 한 변이 약 320km의 삼각형 지대로, 약 7만㎢이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물이 남에서 북서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들어간다.

북쪽 해안 연안 지역은 모래언덕이 32km 연속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성경의 수르 곧 에담 광야가 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언급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 해변 길' 이 이 지역에 있다. 곧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언급된 대로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에 이르러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못 얻은 곳' 이 바로 이 지역이다.

중앙 지점은 석회암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티 사막이 있고 동쪽 끝에는 바란 광야와 친 광야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민 34:3)은 신(친) 광야를 지나 가데스와 남방에 이르고, 거기(민 32:51) 신(친)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반역했던 곳이고, 이곳은(수 15:1) 또 유다 지파의 극남단 지역으로 에돔과 접경이고, 남으로는 이스마엘이 신(친) 광야 곧 바란 광야에 거했던 곳이고(창 21:21),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던 곳이다(삼상 25:1).

남쪽은 화강암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위쪽으로 시내 광야가 이곳에 위치한다. 인구 조사를 한 곳이 이곳이고(민 1:19), 제3월 즉 출애굽 후 50일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 곧 시내 광야에 도착한다(출 19:1-2).

3)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였던 시내 반도에 있는 5개의 사막들과 그 특징

(1) 에담 광야(애굽 호칭 : 방어벽)/수르 광야(히브리어 명칭 성벽)

홍해 연변에 접하고 있는 풀이 없고 모래만 쌓인 넓은 벌판이다(출 13:20, 15:22; 민 33:6-9).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넌 후 도착한 첫 번째 광야이다.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갈이 머물렀던 곳이다(창 16:7-14).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체험하는 곳이다. 그 광야 한 곳에 있는 마라라는 곳은 물은 있으나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었다.

인생 행로에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첫 광야 학교이다. 이곳은 요셉의 고통과도 유비된다. 종으로 팔린 요셉이 그 발에 차꼬를 차고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시 105:17-19).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제

1 사막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책이 유용하다. Nogah Hareuveni, *Desert and Shepherd in Our Biblical Heritage* (Neot Kedumim, 1991).

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았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쓰디쓴 물이 있는 수르 광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훈련받아 후에 감옥은 총리가 되는 통로가 되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처럼 수르는 여호와에 의해 치료받던 곳이다. 약 8-27m의 모래 언덕이 32km에 걸쳐 있으며, 어떤 지역엔 소금기 있는 우물과 종려나무가 자라는 지역으로 구성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기까지 40년간 체험한다(출 16:18 ; 고후 8:15).

(2) 신 광야(Sin)

신 광야는 홍해 연변에서부터 시작하여 양편에 작은 산들이 보이는 골짜기로 전개되는 광야이다.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광야다(출 16:1 이하).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 신 광야이다. 이 곳 역시 광야의 연속이라 배고픔과 굶주림에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자 생존과 직결된 불평에는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 만나와 메추리기를 보내어 생존 문제를 해결하신다. 즉 하나님은 공급자(provider)임을 알게 된다. 신 광야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신 8:3; 마 4:4).

(3) 시내 광야

시내 산 근처의 광야로 산과 함께 있는 골짜기 사막이다(출 19:1-2; 레 7:38; 민 1:1). 모세 일행이 출애굽한 후 50일쯤에 도착한 곳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로 알려진다. 출애굽 후 50여 일 만에 도착한 곳이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수여된다. 곧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오순절의 역사의 기원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과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4) 바란 광야(Paran)

티 사막 동쪽에 있는 광야로, 해발 600-700m의 돌출된 산악 지역의 사막이며 또 산에 굴이 많은 지역이다(창 21:21; 민 12:16, 13:3; 삼상 25:1). 모세와 그의 일행이 시내 산에서 1년 정도 지난 후 그 곳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이다.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고조되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훈련시켰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취했다. 계속해서 조건이 나빠지고 어려워지자 백성들의 불평은 고조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여기서는 생존 조건보다는 좀 더 편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과 타인에게 돌리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곳이 바란 광야이다.

(5) 친(Zin) 광야(한글개역개정에도 신 광야로 번역되었으나, 친 광야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2)번의 신 광야와 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데스바네아 근처에 있는 광야이며 하갈의 삶의 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도 연계된다. 이곳은 창 20:1, 25:11; 민 13:21, 20:1, 27:14, 33:36 등에 언급된다. 가데스바네아를 포함한 아라바 광야의 남단에 속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훈련받던 곳이 친 광야이다. 여기서는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다. 성화의 길 마지막 단계로 본다. 여기서 직접 요단 동편으로 못 가고 다시 홍해 길로 내려가서 에돔을 경유

한다.

위의 5개의 광야-사막들은 시내 반도 내에 있는 광야 사막들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 내에 있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에 자주 언급되는 곳이다.

(6) 유대 광야

세례자 요한이 복음전파하던 곳,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받으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곳이다(막 1:1 이하; 마 4:1 이하). 가톨릭 성경인 불가타를 번역한 제롬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3년간 유대 광야에서 훈련받고 주후 398년에 라틴어 성경 번역(Vulgate)을 완성했다. 비잔틴 시대에는 이곳에 100개의 수도원이 있어 영성 훈련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4) 광야-사막의 신학적 구조

(1) 광야-사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 은혜로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 받은 바, 즉 출애굽 구원(Justification)이 주어진 곳이다(출 1-18장).

(2) 율법 수여와 준수로서의 구원에 이름: 성화의 단계(Santification-레위기).

(3) 미래에 완성으로서의 구원: 영화의 단계(Glorification-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5) 광야-사막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 물과 식물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존했다는 신앙을 체험한 곳이다.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체류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에 목적이 있다.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태도를 배운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배운다.

삶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삶을 배우는 데 의의가 있다. 사람은 조건이 좋으면 기뻐하나, 조건이 나빠지고 악화될 때에는 불평한다. 원망과 불평에는 두 유형이 있다.

첫째,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 이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벌과 심판이 수행되지 않는다.

둘째, 욕심과 불신에서 파생되는 원망과 불평.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명령을 따른 자들은 광야에서도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1) 사막의 지혜(사막 교부들의 말씀).[2]

사막에는 양면성이 있다.

① 광야 : 자신과의 투쟁. 욕망, 분노, 불평과 고독 같은 사막의 사탄과 싸우는 일.

② 낙원 :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일. 신앙적 인간으로 성숙함. 장작불을 피우듯이 눈물 흘리며 거룩한 영혼의 불을 피워야 한다.

사막은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의 훈련소다. 금식은 개인 구원의 범주이고, 봉사는 공동체 구원의 범주다.[3]

6) 광야 교회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신자들

첫째, 두 종류의 애굽 신자가 있는데, 애굽 신자는 교회에 등록하고 예

---

[2] 《분도소책 26》, 분도출판사, 1988.

배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상태이다(고전 2:14).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이다. 애굽에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이 있었던 것처럼 영생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행 13:48).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벧전 2:2). 다른 애굽 신자는 곧 애굽인과 같은 자로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는 자이다(마 7:22). 이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딤후 3:5) 자들과 같다.

둘째, 두 종류의 광야 신자가 있는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수의 손(눅 1:74), 곧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을 얻었지만 마음속의 애굽의 습관을 벗지 못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고전 3:1). 세상과 반복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자이다(삿 3:12). 두 마음을 품고 고민하고 갈등하며(롬 7장의 상태), 생활 염려로 자주 시험 들고, 믿음이 자주 흔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과 주장과 계획과 감정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헌

3 사막의 수도 생활에 관한 이런 일화가 전해온다. "수도자의 옷은 3일간 밖에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때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기도 중에 조는 사람을 꼬집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수도자는 말하기를, '그때 너는 내 무릎을 베고 자세요' 라고 말해야 한다. 수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입을 다무시오. 그리고 자신을 남들과 비교 평가하지 마세요.' 사탄이 수도자에게 길을 막고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금식, 기도, 봉사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 고 했다. '그것이 무엇이요' 라고 수도자가 물었다.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당신의 겸손' 이라고 한다. 7주간 금식했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암자에서 나와 친구를 찾아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겸손한 수사. 나무를 심고 수도자에게 물을 주라고 한다. 그래서 수도자는 밤새 걸어가서 물을 길어 새벽에 와 물을 3년간 주었다. 3년 후 맺은 열매를 가지고 교우들에게 '이는 순종의 열매이니 받아 드세요' 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수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문하고,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신이 됩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해야 목회하죠. 그래야 평천하(平天下)하지요.' "

신하지 못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려 들지 않는 자이다. 광야에서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기 분쟁하며, 생활의 문제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인들과 같다(고전 3:3). 다른 한 부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환경에서도 가나안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자들이다.

셋째, 두 종류의 가나안 땅의 신자가 있는데, 가나안은 이 지상에서 향유하는 심령 천국의 모형이다. 가나안 신앙은 죄의 장소인 마음과 영이 깨끗해진 성결의 은혜를 받아 죄와 세상에서 완전 성별(겔 18:30-32), 곧 모든 죄악에서 떠난 자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들이다(고전 2:15). 경건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이다. 가나안에서도 내적인 적과 싸움을 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도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인을 살려두고 짝한 자들이 있었고, 갈렙처럼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신 1:36). 이처럼 가나안 신앙에도 완전 순종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여, 자주 성결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잃고(계 2:4) 쉽게 성령 충만을 잃는 자들이 있고, 에녹, 엘리야, 여호수아, 갈렙,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 제자들, 바울과 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엡 6:24) 순교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4]

7) 광야–사막에서는 인간이 끝없는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건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어 하며, 더 크고

4 왕평, 《하늘에 속한 8가지 행복》 (서울: 쿰란출판사, 2005), 74-79.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더 예뻐지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평생 만족이 없다.

미국의 한 유명 신문에 특이한 광고가 났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다. "만일 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10만 불(약 1억 원)을 줍니다."

이 광고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낸 사람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서로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심사 결과 그들 중 한 사람도 그 광고주로부터 10만 불을 받아 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광고주가 던지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겠는가?

"당신이 참으로 만족한다면 왜 당신에게 10만 불의 돈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돈에 욕심이 난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난 셈이다.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불만이 늘어나고, 가난할수록 만족도가 높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버스 운전사, 비행기 조종사, 택시 기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잠을 자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가? 그래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이다.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듯이,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만족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오는 것이다.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울 사도에게서 봉사하는 비결을 배워 평생 자족하는 생활, 기뻐하는 생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설삼용 목사).

8)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기쁨과 행복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로 연주하고 감격과 감동이 벅차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들 안에 애굽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신 10:13)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었다. 광야 학교를 거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9)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약속의 땅인 광야-사막의 신학적 의미

아담은 '아다마' 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즉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의미다. 지질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소고기 1파운드를 먹으면 그중에 2-3%는 철분(F)이므로 2-3% 바위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인한 전쟁과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얻은 교훈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운명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했다.

오히려 비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다(시 13편).

고(苦)에 대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선 새로운 이해를 했다. ① 고난은 의인들의 대속적 희생이다. ②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의 반영이다.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③ 고난은 하나님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이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부활이 없다. ④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강자의 발언은 항상 정의이다. 또 적의 적은 친구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국가 이익이 영원할 뿐이다. 사람은 죄를 나누어 연합하고 이익을 다투어 분열한다. 우리의 경우 식민사관과 중화사관에서 갈등했다.

위에서 언급한 광야-사막의 신학적 삶의 자리와 신앙을 이해한 후에 다윗이 고백한 신앙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는 신앙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윗의 시편 23편의 구조와 주해

1) 본 시편의 구조

본 시편은 두 구조로 구성된다.

1-4절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목자로 고백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움이 없이 그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5-6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환대함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다.

(1) 목자이신 여호와의 보호와 평안

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이다.

(2) 여호와의 집의 환대를 찬양함(5-6절).

(3) 주께서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4)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겠습니다. 1-3,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3인칭으로 묘사되고, 4-5절에서는 2인칭으로 호칭하며,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과거를 넘어선 감사의 표현이다. 1절은 총 주제이고, 2-3절의 내용은 6절 하반절에 요약된다. 즉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의의 평탄한 길은 여호와의 집으로 함축된다. 4-5절은 6절 상반절에 요약된다. 즉 사망의 골짜기에서의 위험한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잔칫상의 초대, 평생토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의 은총과 구원의 삶으로 요약된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이란 사막에서라도 은총과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목가적 신뢰의 시이다.

2) 시편 저자의 신앙적인 표현=목자와 양

하나님은 목자이고 시인 자신은 양으로 비유하는 목가적 신뢰의 시이다. 대개는 하나님이 목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으로 비유된다(시 74:1, 80:1, 95:7, 100:3 등).

1절에 사막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흐사르)은 낙원의 다복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다.

(1) 목자란 누구인가?

성경에서 먼저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시 23:1, 78:52, 53; 암 3:12; 마 25:32)을 지칭한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 '로에' 라는 목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분을 지칭한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양을 지켜 보호해 주는 자처럼, 하나님은 위험한 곳에서라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해 주는 분임을 고백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안전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벨도 본래 직업이 목자였다(창 4:2).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에서 인도해 낸 목자였다(출 3:1). 여호수아 역시 목자였고(민 27:16-23), 다윗 왕(삼상 16:11)과 고레스도 목자(사 44:28)로서 민족과 역사를 인도한 자이다. 신약에서는 목자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된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 묘사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 목자의 임무

가. 인도자–렘 50:17; 겔 34:6; 마 9:36, 10:6, 15:24; 대상 4:39-41; 벧전 2:25.

2-3절은 주로 인도의 주제를 다룬다. 2절의 להב(나할), 3절의 החב(나하)는 출애굽 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쓰던 단어이다. 출애굽 구원과 광야 인도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역사 신앙에 기초한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신앙의 기반(The bedrock of Israel' s Faith)에 서 있다고 하겠다.[5]

나. 보호자–삼상 17:34-36.

사막의 위험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이다. 보호자로서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상적인 왕으로 또 지도자로 인식된다.

5 김이곤, <숨 쉬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국성서학연구소 자료집, 95.

다. 공급자–창 29:2-9.

양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이 있는 샘으로 인도하여 생존의 요소들을 공급한다. 우리의 생존을 지속하게 해주는 자가 목자란 뜻이다.

라. 이상적인 지도자–왕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목을 인도하는 지도자였고, 바사의 고레스는 세계와 역사의 흐름을 통제하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 23: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요 10:11).

(3) 각 구조에 대한 주해

가. 1절, 총 주제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쉬움이 없도다).

사해 북쪽 끝 유대 광야의 일부와 건너편 요단 동편 사막은 지금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시인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 "……내가(하나님) 너(이스라엘 백성)를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렘 2:2). 다윗은 본래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삼상 17:28). 광야-사막이 곧 목초지(pasturland)이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 간 마온 광야-사막-헤브론 동쪽(삼상 23:19, 24-29)

예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레갑 사람들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고 한다.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마 6:28)는 말씀은 의식주에 대해 근심과 걱정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뜻이다.

아가서 5장 13절에 입술은 백합화(הבשׁוֹשׁ, Anemone caronaria)라고 하는데, 여기 수산나가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로 번역되는데 이 꽃은 빨간색

꽃이다. 빨간 젊은 여인의 입술을 상기하는데 하얀 백화화로 번역됨에 따라 노인 할머니를 연상케 된다.

나.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렘 31: 24-25).

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6]

라. 4-6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은 죽음의 골짜기란 말이다. '베케 찰마베트' 란 말은 최상의 어둠, 전적 흑암이란 의미로, 예레미야 2장 6절이나 욥기 10장 21-22절에서 죽음의 위협을 표현할 때 쓰인 용어이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위험이 해소되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이런 신앙고백은 이사야 7장 14절의 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임마누엘 신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 평화로운 삶에 대한 절대 확신에 찬 신앙고백시이다.

6 '목자를 따라 양들이 다니는 양의 길' , '잃은 양의 비유(눅 15:4-7), 목자 없는 양의 비유(마 9:36)' , '하나님과 동행하던 유대 광야' 와 같은 모티프가 투사되어 있음.

3. 시편 23편의 신앙적 결론

여호와는 위험과 죽음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증언하는 시이다. 하나님의 목자상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30절, 요한계시록 5장 1-14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재현된다. 그러나 구약의 목자상은 희생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희생의 목자상이 특징이다.

군선교신학 제10권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독일 München 대학 법학박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검찰 개혁 자문위원장
검 · 경 수사권 조정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 외국 편집자문위원

1. 들어가는 글

최근 각종 흉악범죄와 ‘묻지마’ 살상범죄가 빈발하자 사회가 온통 불안과 분노와 격앙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찰의 순찰인력을 증강하고 감시카메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진열장 속에 넣어 두었던 불심검문을 활성화하고, 성폭력범죄 전담반을 가동시켰다. 몇몇 언론은 지난 15년간 녹슨 채 방치해 두었던 사형집행을 다시 손질하여 극형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청을 드높인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30여 년간 형법을 연구해 온 필자 자신도 과연 죄와 벌, 범죄와 형벌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이들 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길을 찾기 위해 필자는 ‘되찾은 아들 비유’ (눅 15:11-32)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 비유를 통해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풍부한 의미들 속에서 죄와 벌의 근본문제에 대한 길찾기도 숨겨져 있으리라는 예감을 가지고, 길을 더듬어 찾아나서 보고자 한다.

2. 인간상(人間像)의 정립문제

형법질서에서 죄와 벌의 의미는 인간상과 밀접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일찍이 라드브루흐(Radbruch)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상의 변화가 법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만든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과 그 죗값을 묻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규명하려면 이 시대 우리의 생활세계, 사회의식 속에 각인된 인간상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1]로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자기존재(Selbstsein)임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존재(Mitsein)이다. 자기존재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계 내에서 각각 유일한 인격으로서 스스로 생활세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인간은 내면을 향한 성찰을 통해 세계를 자신의 중심 속으로 내면화시킬 뿐만 아

1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존재의 규명에 관하여는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1997, 80면 이하 참조.

니라, 외부세계로 향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 자기존재로서의 인간은 이 세계 내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서 특정한 개인, 개별인격으로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이 같은 개별존재(Individualsein)로서의 자기존재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처분될 수 없으며,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단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처분이 가능하다.[2]

인격으로서 인간은 자기존재의 발현행태이므로 각자 인격적 독립성을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인격은 고유성, 독창성, 비교환성, 비대체성, 불가처분성을 지닌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립된 개인일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인격적 존재이다.[3]

인간의 자기존재성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일면이라면 다른 일면은 더불어 사는 존재, 즉 다시 말하면 사회존재성(Sozialsein)이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잠재적 · 현실적 본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자기존재만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4]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자기실현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연적 · 사회적 환경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세계와의 공존적인 삶을 통해서만 개별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개별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5]

정신사적으로 볼 때, 관념주의적 인간상은 인간을 단지 '추상적 주체' 또는 '고립된 개인' 으로만 파악한다. 이러한 인간상은 19세기에 등장한

2 마이호퍼,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심재우 역), 1994, 24.

3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2012, 112 이하 참조.

4 하이데거(Heidegger)의 '현존재의 기초분석' 에 나타난 자기존재 가능성의 결핍과 망각, 그리고 비본래성으로의 추락에 관하여는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기상 역), 240면 이하 참조.

5 Muller,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1974, 119.

유물론과 실존주의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6] 유물론과 실존주의는 더 이상 인간을 '정치적 동물' (Aristotle)이나 '이성적 인간과 경험적 인간' (Kant)과 같이 추상적 · 관념적 형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물론과 실존주의의 인간상은 '사회관계의 총체' (Marx), '생활관계의 총화' (Sartre)와 같이 정의된다.[7]

더 나아가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세계내적 존재이며, 이를 근거짓는 이중의 관계 속에서 자연관계적 인간(Natur-Mensch)과 인간관계적 인간(Menschen- Mensch)의 모습으로 실존한다. 따라서 현실적 인간은 세계 내에서 인간 이외의 존재자인 자연 및 자기 이외의 존재자인 타인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 살고 있다.[8]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계를 자연세계(Naturwelt) 또는 환경(Umwelt)이라 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세계를 인간세계(Menschenwelt) 또는 사회(Mitwelt)라 한다.

자연관계적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내의 사물들은 인간실존에 필요한 자연환경으로서 존재필연적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보존과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이에 비해 인간관계적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현 존재는 현실적으로 타인 없이는 자신의 인간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신 없이는 타인의 인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공존자이다. 인간존재에서 타인은 자기실현을 위한 존재필연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공존자의 광장이 이른바 사회이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주체의 객관화에 의해 타인 중의 한 사람으로 사회화됨과 동시에 객체의 주관화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개별화된다. 무엇보다도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대

6 Maihofer, *Menschenbild und Strafrechtsreform*, 1964, 9.

7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urde im Strefrecht*, 1983, 70.

8 Maihofer, *Konkrete Existenz*, Wolf-FS, 1962, 264.

화적 존재이므로, 더불어 사는 타인과의 관계는 인격성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고립된 개인은 완전한 의미에서 인간일 수 없다. 법에서 인간은 더 이상 로빈슨 크루소나 하와 이전의 에덴에 홀로 거닐던 아담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적 인간이다.[9] 이를테면 아내와 남편, 아들과 아버지, 소송의뢰인과 소송대리인 같은 대자관계(對者關係) 또는 특정직업종사자 · 신분자와 같은 향자관계(向者關係) 속에서 인간은 각각 주체와 객체, 객체와 주체로서 서로를 주고받으며 전인(全人)적 인간을 형성해 나간다.[10] 그러므로 인격으로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도 타인과 존재필연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11] 그것은 존재필연적으로 사랑의 관계이다.

인격으로서 인간을 형성하는 육체 · 정신 · 영혼과 같은 본질적 요소는 전인(全人)을 바라보는 준거점으로서 작용하지만, 그것을 각각 인간으로부터 분해할 수는 없다.[12] 인간이해의 관점에서 인간존재에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자면 무엇보다도 인간을 정신적 존재(Geisteswesen)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이 정신적 의식활동을 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이다.[13] 여기에서 정신이란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존재구조에 대해서 일종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형성하는 고유한 존재구조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은 본능과 환경에 속박되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인간은 정신능력으로 인

9 Radbruch, *Der Mensch im Recht*, 1957, 9.

10 Buber, *Das Problem des Menschen*, 4.Aufl., 1971, 165.

11 v. Wiese, *Der Mensch als Mitmensch*, 1964, S.7;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2 (1948), 270f.

12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유호준 역), 1999, 348.

13 Scheler,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4.Aufl., 1962, 34.

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세계를 향하여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개방된 존재이다.

또한 정신은 존재를 존재로서, 가치를 가치로서 체득할 수 있고, 의식적인 자아의 결정을 가능케 하는 인간고유의 특별한 능력이다.[14] 이는 정신이 체험의 충족인 의식 및 자유, 가치인식, 책임있는 자기결정을 위하여 충분히 깨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인 자유 안에서 행위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유독 인간만이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은 일체의 의미전달과 관계형성에 대해서 능동적 · 구성적 · 창조적이다. 또한 정신은 추상적 · 독백적 존재가 아닌 대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파악하여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는 본체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은 정신활동에 의해 고립된 개인으로부터 관계로서의 인격(Person als Relation)이 된다.[15] 전체 인류도 각 인종의 다양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무와 책임을 나누어 지는 하나의 가족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16]

이 정신의 최고단계를 넘어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이다. 그의 영적 능력을 통해 인간은 초월자인 신과 교통할 수 있으며, 신의 소명자 내지 사명자로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신의 분부를 좇아 신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다.

반면에 인간의 정신능력 · 영적 능력에는 많은 실패와 파행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바로 이 능력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의 한계에 직면해서도 자기실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발전

14 Wenzl, *Philosophie der Freiheit*, 1947, 171f.

15 Arth. Kaufmann, *Rechtsphilosophie in der Nach-Neuziet*, 1990, 40.

16 Schuler, *Die Verantwortung*, 1948, 57.

시켜 나가게 되는 것도 인간의 이런 능력 때문이다.[17]

결론적으로 죄와 벌을 둘러싼 형법질서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구체적 · 현실적인 전인(全人)으로서의 인간이다. 이러한 현실적 인간상은 육체 · 정신 · 영혼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지닌 인간이 정신적 · 윤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환경을 책임있게 형성할 수 있는 소질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중시한다. 현실적 인간은 인간존재에 고유한 개별성과 사회성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존재이다. 비록 역사적 · 현실적 삶 속에서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자유와 책임, 양심과 긴장 속에서 인격성과 가치의 실현을 위해 창조적 모험을 하는 것이 현실적 인간인 것이다. 형법은 이러한 인간상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전인적 인격의 발현 내지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죄 및 그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제재를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죄와 벌의 문제

1) 문제 제기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통 신앙인들은 먼저 윤리적인 안경을 끼고, 윤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쉽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이를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 신세가 된 둘째 아들의 건달 행세를 죄로 규정지으려 한다. 그의 인격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기심, 방종과 일탈, 쾌락추구 등이 이 죄의 뭉치 속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방탕생활에서 귀환한 둘째 아들이 자기 입

17 Portmann, *Zoologie und das neue Bild des Menschen*, 1951, 67.

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점에서 이 같은 이해는 큰 착시에 빠진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고백을 잠깐 뒤로 제쳐놓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둘째 아들을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죄인이라고 단정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물론 둘째 아들은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너그러이 받아들여 통 크게 두 아들에게 각각 떼어 주었다.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하는가는 아버지의 영향권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아들들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달렸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어떤 주인처럼 그것을 후에 계산할 요량으로 유보조건부로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산의 탕진을 죄로 읽는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신성시하는 문화전통의 선이해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산에서 이미 나누어진 몫은 신성성의 차원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가 된다. 현실의 세계로 한번 열린 문은 다시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열 수도 없다. 떼어준 몫은 이미 열린 문의 문지방을 넘어섰고 다시 되돌아 올 수 없다. 희년에 되물리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 아니다. 분명한 점은 둘째 아들의 몫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처분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을 죄로 읽는 사람들의 관성에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불효가 선이해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일견 일리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제5계명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귀결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보면 부모를 두고 떠나가 버린 것이 바로 죄로 연결되는지는 의문이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신 21:18-21)과 같은 구체적인 율례가 그 점을 암시한다. 이 경우 야곱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곁을 도망쳐 나

와 먼 곳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야곱을 불효막심한 죄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은 이 불효자가 죄의 회개는커녕 죄를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그를 인도하고 감찰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의 귀환사건에서 보여주는 죄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귀환자의 자기고백이 단지 아버지의 귀를 임시변통으로 즐겁게 하기 위한 교언영색이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에 숨겨진 죄의 베일을 벗겨서 무엇이 심각한 죄이며, 귀환자의 자기고백이 어떻게 진정한 죄의 회개에 해당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2) 죄의 연원

까닭없는 죄는 없다. 범인이 무슨 동기로 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데는 단순히 형벌의 크기와 정도를 양정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다. 오늘날 형법상의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내면의 행위의사보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바 사회에 미친 유해한 결과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즉, 행위반가치보다 결과반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결과적 측면보다 행위자가 지닌 내심의 작용과 그 의지의 빗나간 방향에 중점을 둔다. 살인이라는 행위결과보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분해서 욕설을 퍼붓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자와 같다는 것이다(마 5:21-22). 또한 간음이라는 행위결과가 아니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죄를 저지른 자라는 것이다(마 5:27-28).

이처럼 죄의 발단으로 파고 들어가 그것을 근원적으로 문제 삼는 성경의 죄 관념은 바로 죄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탈적 동요를 이미 죄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 전제로부터 볼 때 둘째 아들의 재산지분 청구는 복합적인 동기를 내포한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 생전에 미리 청구한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살아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벌써 죽어 있음을 감히 전제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요구이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이미 아버지의 생명과 그 존엄을 밟고 넘어가 정신적으로는 아버지를 죽음의 지경에까지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놓고서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버지를 한번 죽이는 일과 같이 정신적으로 패역한 일이다.

왜 둘째 아들은 이와 같은 패역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바라보고 위선적인 충성을 쏟는 형의 행태에 구역질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는 형의 곤궁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사들이고,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야곱만큼 잔머리 굴리는 위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는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솔직담백한 기질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형의 위선 때문에 양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자주 괴로워하고 죄짓기보다는 한번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형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것이 훨씬 속편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의 마음속엔 소비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기보다 돈을 더 우선하여 섬기는 마음자리에 나아갔으며 궁극적으로 그 물질을 우상화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진탕 즐기고 심지어 그것의 노예가 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불사했던 것이다. 그는 먼 나라로 나가 눈먼 소비주의적 광포에 휩쓸려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을 소진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황폐화 그리고 동물적 세계의 비인간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야말로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막장인생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범한 패역의 발단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여 아버지처럼 행세하기 위해 아버지와의 근원적인 사랑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탈하려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 탐욕, 교만, 거역이라는 마음자리이다. 둘째 아들의 홀로서기와 이탈의 순간부터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은 무시를 당했으며, 또한 모종의 상실의 아픔과 고통까지 깊이 겪게 된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그와 같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서 아파하고 연민하는 기다림과도 같은 것이다.

3) 죄와 범죄

죄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무겁게 마주하는 것은 유대 · 기독교적 사상의 전통에 속한다. 신약성경은 죄를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말이 하마르티아이다. 표적 또는 과녁에서 빗나간 것, 목적지를 이탈한 것을 의미한다. 아디키아는 불의 또는 부정을, 포네리아는 사악 또는 부패를 가리킨다. 파라바시스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노미아는 무법, 즉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을 말한다.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죄에서부터 무법, 불법한 행위의 단계까지 죄가 미치는 스펙트럼은 넓고 깊다.

죄에 관한 상이한 언어들의 용도가 각각 달라도 죄에서 하나의 공통분모는 신 자신의 존재법칙이요 신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법칙이기도 한 도덕률을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거슬리고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죄의 본질은 단순한 탈선을 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반항이요, 하나님께로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처럼 행세하려는 교만이기도 하다.[18]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죄를 구약사상의 연속선상에서 ① 악에 근거한 자유의지의 결과(아담의 범죄), ②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에 대한 의식적인 반항으로 이해한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긴 채 사탄의 힘의 지배 밑으로 타락한다.[19]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인류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비록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야기된 죄악이라 할지라도 실은 이미 아담의 타락에서 비롯된 죄의 세력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죄의 뿌리는 이처럼 깊고 그 영향력은 이처럼 끈질기다.

물론 이런 의미의 죄라는 언어는 세속화된 오늘날 인간의 삶 속에서 거의 잊혀져버렸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Karl Menninger)는 죄라는 말이 한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 이유를 그는 첫째, 이전의 많은 죄들(sins)이 범죄(crimes)로 바뀌면서 그것을 다루는 직책이 교회에서 국가로, 성직자에게서 경찰관에게로 넘어갔으며, 둘째 많은 다른 죄들이 질병으로 또는 질병의 징후로 바뀌면서 형벌이 치료로 대체되었으며, 셋째, 집단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편리한 장치에 의해 죄인의 일탈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아닌 사회전체, 혹은 사회 내의 많은 집단 중 하나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는 오늘날의 정신문화 속에서 죄라는 말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취급할 것을 당부한다. 죄는 결코 문화적 금기나 사회적인 큰 실수 정도로 대강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죄는 "숨어 있는

---

18 존 스토트, 《그리스도의 십자가》 (황영철/점옥배 역), 1988, 112 참조.

19 본 회퍼 엮음, 《윤리학사전》 (임홍빈 외 옮김), 1998, 92(기독교윤리).

공격적 성질 - 잔임함, 상처를 입힘, 신 또는 다른 인간들로부터의 이탈 혹은 반란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 누군가가 무시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20]

그러나 이미 계몽기와 합리주의를 거치면서 사회의 법은 다시 돌아가 결합할 수 없을 만큼 종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 형벌과 함께 형법을 구성하는 중추개념의 하나인 범죄는 오늘날 더 이상 종교적 또는 순수한 도덕적 의미의 죄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법익에 대한 유해행위(harmful doing)를 말한다. 죄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이어야 한다.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개인과 사회를 포함한 공동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둘째, 형법규범 위해행위여야 한다. 형법규범이 명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부터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21]

형식적 범죄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형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갑은 을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이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행위가 상해범죄에 해당하려면 위법해야 한다. 만약 갑이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행위로 을을 상해했다면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의롭게 간주된다.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상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행위는 유책해야 범죄가 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갑이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유책한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 존 스토트, 앞의 책, 113 이하에서 재인용.

21 김일수, 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2006, 14.

이에 비해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법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유해적 법익위해행위를 범죄로 취급한다. 이 경우 한 형태의 중대한 사회유해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자는 다음 두 가지 기본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살인 · 상해 · 강도 · 절도 같은 중한 사회유해적 행위를 허용하고서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란 없다. 그 즉시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의 형벌권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위만을 처벌대상, 즉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단순한 생각 · 속마음 · 계획 · 의도 따위는 외부적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22]

죄와 범죄의 차이는 죄가 인간의 인격관계의 전체영역, 즉 인간과 신, 인간과 다른 인간, 인간과 환경 등에 미치는 반면, 범죄는 단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삶에 특별히 중요한 다른 피조물의 관계에만 미친다는 점 및 죄가 인간의 내면과 양심의 문제에까지 깊이 관련된 반면, 범죄는 인간의 인격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었을 때만 문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죄는 범죄보다 심원하고 넓으며, 따라서 모든 범죄는 죄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죄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인간의 죄와 범죄에 공통된 자기결정(자기선택)의 문제, 의사자유의 문제, 양심의 문제는 양자에게 똑같이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22 *Ibid.*, 15.

4) 자기결정(자기선택)의 문제

둘째 아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동기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소외의 길로 들어선 것은 물론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의 결과이다. 법공동체가 인간을 법신호의 수신자로 삼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윤리적인 자기선택능력과 자기행위결정능력을 갖고 있음을 전제한다. 여기에서 윤리적인 자기결정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당위요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법의 특별한 당위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한다.[23] 인간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윤리적 자기결정의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점은 일견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근거지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유신론적 실존철학의 입장에서는 실존의 전제인 자기결정을 여러 가지 행위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실존적인 결정과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철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은 인간이 의사결정에서 외부의 그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함을 뜻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의사자유를 둘러싼 비결정론(Indeterminismus)의 관점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인간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은 인간이 다른 생물에 비하여 특별히 빼어나게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고 의미내용과 가치 그리고 당위규범에 맞추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의미내용과 가치 및 당위규범에 반하고 의무위반적인 행동은 자기결정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결정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두 가지 정신능력, 즉 사고작용을 통해 생활관계와 인과관계를

23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urde*, 1983, 111.

인식할 수 있는 인지능력, 그리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 통찰능력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인간은 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인지적 사고와 이성적 통찰을 통해 인간은 그의 행동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목적합리적으로, 의미와 가치충족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자기결정능력은 법규범의 준수와 법질서 확립에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 능력이 일면 법적 당위질서의 실현 자체를 가능케 하고, 타면 그것을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위요청을 지닌 법규범이 수행하는 결정기능은 법이 첫째로 수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준수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법은 먼저 그들의 이성적 통찰에 호소하여 그들이 자신의 목적과 이해의 추구에서 공동생활의 질서요청과 일치하도록 인도하고,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의 조정능력에 의해 사회유해적인 충동의 분출을 억제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당위규범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고된 제재나 그 밖의 유사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학습하게 한다.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법규범의 당위요청을 자신의 가치체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의식함으로써 그 규범의 의미가 내면화된 이상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자기책임 부담의 원리로 귀결된다.[24]

5) 의사자유의 문제

인간은 자기결정의 능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개개인의 구체적인 자기

24 H. Henkel, *Die Selbstbestimmung des Menschen als rechtsphilosophisches Problem*, in : Larenz-FS zum 70. Geburtstag, 1973, 6ff.; H. Welzel, *Personlichkeit und Schuld*, in : Abhandlungen zum Strafrecht und zur Rechtsphilosophie, 1975, 185ff.

선택 · 자기결정을 놓고, 그를 비난하거나 칭찬하려면 그에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었느냐가 또한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느냐를 놓고 이른바 결정론과 비결정론이 심각하게 대립되어 왔다.

결정주의는 인간의 행태가 전적으로 인과법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범죄를 인간의 소질과 환경의 필연적인 소산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비결정주의는 인간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따라서 인간은 법과 불법 어느 쪽이든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결정주의에 대해서는 인간은 자신에게 작용하는 본능적 충동을 통제하고 그의 행태를 가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존재론적 · 인간학적 측면으로부터의 반론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비결정주의에 대해서는 의사자유가 대략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에서는 그 경험적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양극단적인 견해는 어느 것도 자신의 논거를 정당하게 내세울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어느 입장이 옳은지에 관해 입증도 반증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 결국 결정주의냐 비결정주의냐 하는 입장의 선택은 하나의 논증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5]

인간은 본능과 환경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신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본능의 철쇄와 환경의 굴레를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에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인간의 자기결정의 자유는 동물의 삶처럼 "가치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의미 있는 행위 속에서 추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가치에로의 자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25 Vgl. Lenkner, Strafe, *Schuld und Schuldfahigkeit*, in: Handbuch der forensischen Psychiatrie, Bd. 1., 1972, 20.

자기결정의 자유는 애당초 무절제하고 자의적인 자유가 아니라, 의미충만한 삶의 형성을 위한 제한된 자유를 의미한다.[26] 만약 가치실현적인 자기결정의 자유의 이 같은 기본구조를 무시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모든 자유는 그 파괴적인 동물의 야성과 구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27] 물론 인간의 정신능력에도 실패와 파행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윤리적인 자기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28]

문제는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다. 먼저 신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비록 세상의 모든 일이 신의 예정행위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은 선 또는 부패한 성품을 모두 창조했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은 자유행동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29]

모든 죄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지 않는 한, 중한 벌로 그 죗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 도덕적 책임은 자유의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책임없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죗값을 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또 예견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다 실행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일탈과 죄에 대해 진노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26 H. Welzel, *Personlichkeit und Schuld*, in: Abhnadlungen zum Strafrecht und zur Rechtsphilosophie, 1975, 203; Ed Dreher, *Die Willensfreiheit*, 1987, 396.

27 J. Rhemann, *Einfuhrung in die Sozialphilosophie*, 1979, 20ff.

28 김일수, 《한국형법 I (개정판)》, 1996, 80; 한국형법III, 359.

29 R. Kane,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Free Will*, 2005, 148.

연민을 느끼신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저 바라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멍에와 사슬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방도를 열어놓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실지언정 우리의 행동에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실제 우리가 하는 일과 달리 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결국 제한된 자유의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결정된 부자유한 의지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것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30]

창세기의 인간창조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짓고, 그에게 인격적 자유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미리 입력된 정보자료에 따라 로봇처럼 행동하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엄성에 잇대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의 신학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자기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과 중에서 어느 것을 따먹느냐는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였다. 하나님이 미리 금한 바 선악과를 따먹는 쪽을 선택했을 때, 그 위반의 결과인 에덴추방과 고역 그리고 죽음이라는 벌을 자기책임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죗값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적인 행동의 결과로 져야 할 자기책임 몫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0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자유의지에 관한 다양한 견해(Boethius와 Aquinas의 신의 영원성에 입각한 해법, Ockham의 반대입장, Molina의 입장 등)에 관하여는 R. Kane, *ibid.*, 152-162 참조.

6) 양심과 죄책의 문제

양심은 윤리적인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아의 최종적 기관이다. 따라서 양심은 모든 환상이나 망상을 포괄하는 주관적 확신과는 달리, 언제나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리게 되는 진지한 인격적 결단을 말한다. 양심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항상 새롭게 쟁취되는 인격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교육에 의해 계발될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학습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격성숙을 위한 교육은 양심교육을 내포한다. 양심은 인격의 중핵적인 조종기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요구는 인격에게 그에 따라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도리어 인격으로 하여금 옳다고 승인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 양심이란 개인의 의지와 이성을 넘어선 보다 깊은 곳에 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인간실존의 부름[31]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것 자체와의 일치를 요구하는 소리이다. 양심은 인격 속에서 양심에 거슬러 행동하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벌을 과하는 하나의 법정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경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파괴와 인간실존의 몰락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32] 결국 양심 속에서 각 사람은 신과 인간의 만남, 나와 너의 대화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은 자아의 윤리적 조종기관으로서 항상 세계의 의미와 질서에 자아를 정향시킨다.

양심은 가치개념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미리 결정하도록 하는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매개자로서의 기능은 양심이

31 하이데거는 이것을 '관심의 부름'이라 해석했다.

32 본 회퍼, 《기독교윤리》(손규태 역), 209 이하 참조.

앎의 총화, 합일된 앎(conscientia)임을 전제한다. 인간실존의 존재구조로부터 볼 때 인간은 세계 내의 존재이다. 인간은 세계 내에서 진정한 자아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영원한 당신인 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아와 타인과 신과 함께 더불어 아는 앎의 영역을 갖고 있다. 이 더불어 아는 앎(Mitwissen)의 영역이 바로 양심(Gewissen, conscience)이다.[33]

따라서 양심은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신의 뜻을 좇도록 인간을 부르는 내면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 일치되도록 부르는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 넓은 차원에서 타인과 세계와 더불어 일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부르는 내면의 소리도 된다.

이렇게 볼 때, 양심은 개인의 인격과 세계의 매개와 일치를 지도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 속에서 앎과 행함의 매개와 일치를 지도하는 기능도 한다.[34] 만약 한 개인에게 그의 양심에 반해서 행위하도록 강제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간 인격의 관계성을 단절시키는 일이요, 인격의 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책임은 인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는 점과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존엄성의 근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한, 인간은 원칙적으로 사물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심적으로(객관적인 가치질서에 따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양심범의 문제를 불법의식의 범주나 면책사유의 영역에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때문에 책임영역에서 양심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33 Thielicke, *Theologische Ethik*, 1.Bd., 5.Aufl., 1981, 506.

34 Troger, *Erziehungsziele*, 1974, 93.

7) 형벌의 윤리적 근거

국가형벌의 윤리적인 정당성을 속죄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었다. 형법 연구문헌과 형사판결 중에서 종종 속죄는 응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응보란 범인이 자신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가해인 반면, 속죄는 범인 자신의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 그의 진정한 자아와 사회에 대해 죄를 뉘우치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화해(Versohnung)를 의미한다. 즉 속죄는 범죄인이 형벌을 자기죄책의 속량으로 기꺼이 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범행을 심리적·정신적으로 힘써 청산하며, 그러한 회오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이고도 사회적인 성실성을 되찾는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속죄사상에서만 유독 의미있고 절대적인 형벌이론이 발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35]

속죄라는 표현이 피해자와 공동사회의 측면에 관련되는 한, 이는 우리의 사회현실에서 우선 '복수', '응보' 또는 '낙인' 등의 어의와 짝을 이룰 수 있다.[36] 여기서는 속죄가 응보를 실행하고 수형자를 낙인찍는 대로 오용될 염려가 많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에 대한 행위자의 속죄란 그의 진정한 속죄작업이 사회로부터 그렇게 인정되든 않든 상관없이 범죄인이 형벌위하를 그의 회심활동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의 일방적 보복과정을 다른 말로 미화한 것밖에 안 되기

35 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는 W. Trillhaas, *Zur Theologie der Strafe*, 1961, 48; Arth. Kaufmann, *Das Schuldprinzip*, 272f.

36 Neumann, Schroth, *Neue Theorien von Kriminalitat und Strafe*, 1980, 18.

때문에 속죄설은 범인과 사회의 속죄면보다는 자기의 본래적인 자아의 속죄를 주된 문제로 삼는다.

지배적인 초자아(Uber-Ich)를 통해 속죄가능한 정신상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심층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속죄가 우선 자기가책(Selbstbestrafung)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속죄는 우선 강한 초자아를 지닌 범죄인에게만 기대될 수 있다. 그 까닭은 이러한 범인에게서 초자아의 요구는 물론 범죄행위에 의해 일단 무시되었지만 다시 죄책감(Schuldgefuhl)의 형태로 그 후 회복되어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형벌의 속죄기능은 범인의 일정한 심적 성향에 좌우될 것이며 아무 죄책감도 보이려 하지 않는 범인에 대해서 형벌은 전혀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속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형벌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결국 희귀한 행위자 유형, 즉 자기죄책을 스스로 인정하고 죄의 아픔을 깊이 체험하며, 이로써 형벌을 적극적인 선행의 기회, 즉 인격의 개선과 책임 · 배상 등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속죄의 용의가 있는 기회범(suhnebereite Gelegenheitstater)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37]

그러나 만약 속죄가 개개 범행자의 심신상태와 관계없이 형벌의 일반적 기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면 속죄의 의미 가운데서 화해되어야 할 대상인 '진정한 자아'는 경험적 · 현실적 자아가 아니라, 도리어 '초월자에 부착된 존재' (Ein dem Transzendenten verhaftetes Sein)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38]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속죄가 인식론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입장이 합리성과 인간존중성을 지향하며 세계관적으로 중립을 지키려는 형법의 자유이념에 합당한가는 경험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적 · 사회적 법치국가질서에서 형법은 더 이상 그와 같은 형이상학적 속죄개념으로 형벌의 윤리적 정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37 Maihofer, *Menschenbild und Strafrechtsreform*, 1964, 19. 그러나 이러한 속죄체험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자, 수형자에게 얼마나 희귀할 것인가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38 Naegeli, *Das Bose und das Strafrecht*, 1966, 36.

그러나 이러한 속죄개념이 형사정책적으로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속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속죄능력의 배후에 상존하고 있는 인간의 존재론적 근거로부터 형사정책의 실천적인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죄는 항상 '자율적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인격의 회복' (Wiederherstellung der eigenen Personlichkeit)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39] 이러한 속죄가능성은 본래 그의 존재론적 · 인간학적 근거를 인간의 개별인격성에 두고 있고, 그의 실천윤리적 결과는 바로 자기책임이다.[40] 이러한 이유에서 처벌받는 자는 그의 사회성 결핍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아와의 화해능력과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정책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처벌받는 자는 언제나 자기책임에 상응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자기책임의 정도를 넘어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행형단계에서 재사회화는 자기 자신이 재사회화되려고 하는 성실한 의지의 결단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국 속죄이념은 이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재사회화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속죄가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을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형벌이 되도록 내용적으로 구속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9 Frey, Schuld, *Verantwortung, Strafe,* 1964, 307, 337.

40 인간의 개별인격성과 자기책임원리의 상세한 내용과 그것이 인간존엄 개념의 한 구성요소가 되는 점에 관하여는 Il-Su Kim, *Die Bedeutung der Menschenwurde im Strafrecht*, 1983, Diss. Munchen, 78ff.

만약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기책임에 근거해서 속죄를 자기결정의 한 노작성과로 기꺼이 형성해 보일 수 있고 또 보이기를 원한다면, 그 수형자에게 속죄의 가능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속죄가 외부로부터 강요되거나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1차적으로 사회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목표로 삼는 사회적 법치국가는 개인의 윤리적 자기결정을 개인 자신에게 맡기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단편적 · 보충적 임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형법의 임무와 목적도 제1차적으로 보충적인 법익보호를 통한 사회공동생활의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지, 결코 개인의 도덕적 순화나 시민의 윤리적 수준을 고양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형벌은 물론 수형자에게 유리한 속죄가능성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41] 이 속죄가 법과 제도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형사정책적 의미를 속죄이념은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한 법적 · 국가적 차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사적 · 윤리적 · 종교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적 · 법적 ·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형벌에 대해 그 유일한 근거로 삼기에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속죄는 바로 인간의 자기책임이란 의미한도에서 자기책임을 넘어가는 국가형벌의 한계표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국가형벌의 윤리적 근거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8) 되찾은 아들의 죄와 벌

유대 · 기독교 전통에서 죄와 벌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는 일견 두 가지

41 이런 의미에서 행형의 실제에서 교회(행형법 제31조), 교육(행형법 제32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밖에도 사회사업가, 교육자, 심리분석이나 치료전문가, 정신의학자 등 각 방면의 봉사와 활동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상반된 견해가 보인다. 하나는 응보적 정의와 배제의 관점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과 포용의 관점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렘브란트의 저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란 유화 속에서도 사랑의 빛에 밝게 조명된 아버지의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얼굴과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은 둘째 아들의 어깨를 보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즉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결합된 아버지의 따뜻한 품 그리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이 같은 포용을 용납할 수 없는 장자의 냉담한 바리새적인 얼굴과 돈주머니처럼 보이는 그 무엇을 억세게 움켜잡은 오른손이 대조를 이룬다.

집 나갔던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부정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비극적이고 공격적인 악용 내지 거부이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다. 오늘날도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에서 인간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인간 사이에 사랑과 배려로 짜여진 평화로운 공존관계가 인간의 근본상황(Grundsituation)이라면, 죄란 이러한 근본상황의 부정, 즉 사랑의 부정이다. 이 근본상황을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인간의 삶을 어두운 한계상황(Grenzsituation)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42]

사랑의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벌은 이 근본상황의 부정을 부정하여 한계상황을 다시 근본상황으로 회복시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부정의 부정, 즉 사랑의 회복을 의미한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인이라 할

42 김일수, 《위험형법 · 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고려법학 제65호 (2012. 6.), 24 이하.

지라도 그는 근본상황적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인간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의 가슴속 한구석엔 여전히 사랑의 가능성,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의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이 점을 외면하면 죄만 보고 죄를 저지른 '관계 속의 인간' 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죄의 심각성 못지않게 벌의 무게도 중요하다. 벌이 일면으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붓지만, 분노 그 자체가 벌의 목적일 수 없다. 오히려 죄로 얼룩진 인간본성의 찌꺼기를 벗겨내고 그 속에 감추어진 사랑의 잠재력을 북돋우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일깨워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형벌이 담당한다. 벌을 통해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잠시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죄의 심각성과 형벌의 무서움이 보여주었던 저 바리새적 정의에 입각한 관계단절과 공포의 형법을 사랑과 희망의 형법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형법의 미래음악이다.[43]

증오의 채찍 대신 사랑의 매가 담겨 있는 것, 강철로 된 수갑 대신 사랑의 줄이 매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형벌이다. 물론 형벌이라는 사랑의 매도 고난을 수반한다. 모종의 상실을 수반하지 않는 형벌이란 현실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고난은 '고독해방의 심리학' 의 저자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니에(Paul Tournier)가 말했고, 영국 성공회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스토트(John Stott)가 인용했던 '창조적 고난' 의 의미를 지닌다. 모종의 상실이 창조성을 자극하여 변화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고난과 고통이 바로 성장의 기회인 셈이다. 고통의 초기단계에서 수형자들은 미움과 분노, 절망의 반응을 보이지만, 점차 과형이라는 고통

43 Il-Su Kim, *Das Liebesstrafrecht hinterm Berge des Feindestrafrechts*, 고려법학 제49호(2007), 19 이하; 김일수, 〈나의 형법학 이해 30년〉, 고려법학 제62호(2011), 1 이하 참조.

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돌아온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44]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결코 관계단절이나 차별화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의 관계회복과 통합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범죄는 같은 범죄로, 악은 같은 악으로 되갚아져서는 안 된다. 살인자의 생명은 제도적인 살인을 통해 되갚아지는 방법으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파괴와 단절의 극치일 뿐이다. 살인에 대한 보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Shillum 또는 Shalam은 평화를 의미하는 Shalom과 어근이 비슷한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형사정책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흉악범죄의 재범 · 누범현상에 대한 통속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왜 형벌을 통해 어떤 사람은 변화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변화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유전적 성향보다 외부의 다른 사람 또는 제도의 운용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사랑이 없는 형벌은 재범의 원인이 되기 쉬운 반면, 사랑이 있는 형벌은 기왕의 죄책과 수치 · 고통이 변화 · 성숙의 열매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아주 오래된 감옥 제도, 교도소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질적으로 선한 사랑의 형벌, 거듭남의 지평을 열어 가는 교도소 제도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5] 사랑만이 인간심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낳고 새로운 삶을 향한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물론 신 · 구약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죄의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 즉 내심의 미움이나 가벼운 실언까지도 심각한 불의로 여기시며, 그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불태우기도 하신다. 모

44 J. Stott, *The cross of Christ*, 1986, 397.

45 H. Zehr, *Restorative Justice*, 2005, 165.

든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며,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떨어질 죄의 값, 즉 형벌은 사망이다(롬 6:23).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하고 있는 재판적 정의(Mishphat)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충족되었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고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정의의 요구를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하게 하셨음을 말해주는 증언이다. 정의가 불의한 자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서 집행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절묘한 일치와 조화를 볼 수 있다.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 안에서의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도 정의 안에서의 사랑이다. 그것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의 합치의 극치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정의와 정의로운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이며, 이 본래적인 정의를 체데카(Zedeka)라 부른다.[46]

다시 귀환한 아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공격적으로 단절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죄의 길로 나갔다. 괴나리 봇짐에 유산의 분깃을 팔아 모은 돈이 두둑했을 때 그것은 죄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내는 우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등에 진 우상은 점점 마모되어 가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 극도의 궁핍 속에 빠져들어 간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자연도 거부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결과였다. 그는 돼지 치는 이방사람의 노동노예가 되었음에도 배고픔을

46 K. Braun, *Justice and the Law of Love*, 1950, 30; 김일수, 《위험형법 · 적대형법과 사랑의 형법》, 26 이하.

채울 길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핍절하니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된 셈이다. 죄의 삯인 사망에 이르는 여정은 이렇게 혹독한 것이다. 그는 굶주려 죽을 지경까지 인생의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거기서 그는 문득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관계를 기억 속으로 회상해 낸다. 물론 그것도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이다.

그리고 그는 회심한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용기도 없다. 단지 아버지 집의 품꾼 중 하나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극적인 회심의 전환점에서 집을 나간 아들은 정신적으로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유산을 청구하면서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던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죽어 품꾼의 자리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벌로 죗값을 갚는 최종적인 의미는 그냥 손쉽게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변화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 끝자락에서 죽음을 맛보고 돌아서서 거듭나는 데 있다. 회개와 중생의 절묘한 조합이 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처럼 행형제도 속에서 교정은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재소자들이 범죄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회심하고 변화를 체험하여 피해자 및 사회와 화해하고, 진정한 자아와도 화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신과 화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예수님이 범행현장에서 붙잡혀 온 간음한 여인에게 정죄 대신 죄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다.[47]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과 치유적 사법의 길이다.

그것이 저 렘브란트의 유화 속에 표현된 정의로운 사랑의 손과 사랑스러운 정의의 손으로서 돌아온 아들의 어깨를 보듬는 아버지의 다른 두 손

47 S. J. Barrows, *Jesus as a Penologist*, 1902, 12.

이 암시하는 손길의 의미이다.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아버지의 환희와 희락으로 가득 채워진 잔치의 진정한 의미는 아들의 육적인 귀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돌아온 그의 정신적인 귀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들의 거듭난(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의 지평 위에 펼쳐놓은 놀이마당에서 아버지와 아들, 가속들과 이웃들이 한데 어울려 엮어내는 기쁨과 즐거움의 춤판인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의 복원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만큼 아버지도 아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왔다. 생명적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이 춤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아버지는 머슴의 자리로 비하된 아들의 처지에까지 정신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들의 빈자리와 상실의 아픔은 원래 마주하고 있어야 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의 한 축이 무너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들의 속죄적 귀환과 아버지의 영접으로 아버지도 화해와 화목의 새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비록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기대는 성취된 것이다.

4. 결론

현대 형법의 조류에서 죄와 벌의 어두운 단면을 응보정의로 맞서야 한다는 물결이 거세다. 반복되는 엄벌주의의 회귀(punitive turn)가 그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러나 죄와 벌의 문제에서 죄를 저지른 개인만을 고립시켜 갈라 세워놓고, 모든 죗값을 그의 어깨에만 무겁게 지워야 한다는 관점은 진실로 바리새적인 율법의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불법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가차없는 처벌과 감시에 너무 손쉽게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죗값을 묻는 공동사회의 의식률은 가혹해서 죄의 역사보다 형벌의 역사가 훨씬 잔인했다는 기록도 갖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인간해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동해보복에서 속죄형으로 넘어오면서 속죄예물은 일단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이자를 덧붙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소 한 마리를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소 다섯마리로 갚게 하고, 양 한 마리를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출 22:1). 또 도적질한 것이 아직 살아 있으면 소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출 22:4). 그러나 국가의 공형벌로 넘어오면서 엄혹형의 시대도 있었으나 근대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얼굴을 지닌 인도주의적 형벌관이 점차 확립되었다. 따라서 형벌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자기책임 · 자기죄책의 한계 안에서 목적합리적인 형벌로 자리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문제를 다루어 오면서 인류사회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문화권에서든 공동체적인 사회윤리적 비난과 낙인,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추방 또는 배제를 일삼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처벌의 변함없는 속성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문둥병자들과 절름발이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대응이나 아니면 돌로 쳐 죽이는 처형 따위를 보면 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형벌의 이 같은 속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신성한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킨 범죄자를 공동체와 분리된 타자(他者)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신성성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중동과 서방에서 행해졌던 이 같은 죄와 형벌관에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죄를 타인의 몫으로 분리시켜 죄인에게 전담시키는 응보적 사고에 반기를 들고, 남의 죄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 죄에 대한 처벌의 고통을 홀로 지고 가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된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으셨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

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예수는 죄의 문제를 분리와 배제와 단절의 문제로 풀지 않고, 사랑과 연대에서 비롯된 관계회복의 문제로 푸셨다.[48]

예수가 가르쳐 준 새로운 길이 무려 2천년 전 일이건만 오늘날까지도 인류사회는 죄와 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돌아온 아들 비유에 나타난 장자처럼 모세의 대열에 서서 공동의 죄책보다는 바리새적으로 정죄하고 응보하기에 바빴다.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를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에서 절교하고 추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얼굴에 얼룩진 죄의 흔적을 씻겨주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바리새파인 첫째 아들은 밖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의 예수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를 안으로 끌어안자고 말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예수의 구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의 죄와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세워줌 그리고 그들의 화해와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던 큰아들, 새 생명과 사랑의 잔치 자리로 나오기를 거부했던 그 아들 역시 새롭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마음자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49]

---

48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손진 옮김), 2010, 117 이하; 김일수, 《형법실현에서 사랑과 희망의 이념》, 남상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6; S.J. Barrows, *Jesus as a Penologist*, 1902, 10.

49 김병종, 〈내 영혼의 책갈피(4):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국민일보 2012. 7. 28. 오피니언 면 참조.

군선교신학 제10권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1]

안명준

■ 합동신학대학원(M.Div)
■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Th.M..)
■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 남아공 Univeristy of Pretoria (Ph.D.)
■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회장 역임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오늘날 현대 문명은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수보다는 소수에, 정통보다는 비정통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2]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3] 21세기의 문화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의 해방과 그리고 성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싫든 좋든 만나게 되었다. 따라서 동성애 문제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신자

1 이 논문은 평택대학교 논문집 16호(2002) 발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특히 2012년 인터넷 검색 조사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했다.

나 비신자라는 구별에서 오는 이해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신학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고 그 대안들을 다루려고 한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된 범위에 제한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동성애를 2가지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는, 동성애란 남녀 각자의 경향(orientation)을 묘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는 같은 성끼리 성적 흥분을 주고받는 행위(action)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다.[4]

그러나 필자는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용어를 지속적인 능동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행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한다.

먼저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동성애와 그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2 Anthony C. Thiselton, *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 On Meaning, Manipulation and Promise* (Edinburgh: T&T Clark, 1995), 11. 여기서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자아의 능력이 자신의 운명을 주장할 수 있다는 무지한 확신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Postmodernism implies a shatterng of innocent confidence in the capacity of the self to control its own destiny)라고 정의를 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 계획의 전체적인 전략들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그리고 이성의 보편적인 기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고, 분노, 소외, 불안,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과 같은 감정적 부수물들을 수반한다고 한다. 맥그래스(McGrath)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절대적인 것들, 고정된 확실성들 그리고 건설적인 것들을 갖지 않고 다원주의나 다양성을 좋아하는 문화적 인식으로 보며, 또 인간 사고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진 것들을 통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인식으로 본다. 참조.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4), 102.

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특징에 대한 참고로, 안명준, "21세기를 위한 해석자: 칼빈의 해석학에 있어서 성령과 해석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신학〉, 통권 2권 (1999): 164-210. 이 논문을 인터넷으로 보기 http://theologia.co.kr.

4 C. G. 스코러, 《성경과 현대 성윤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1), 126.

문제점들을 성경을 통하여 비판하고, 동성애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세속 문화에 대한 신학의 영향, 성의 신학, 동성애와 창조 세계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본 대안들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제안들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신학의 정립과 교육을 언급하고, 전도를 위한 인권의 존중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의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2.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동성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의 혁명 시대이다.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성과 관련되어 매순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시민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세속적인 사람에서 성직자까지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성의 위력 앞에 연약한 인간의 죄악성을 세상 곳곳에서 보고 있다. 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전 세계는 지금 금지된 사랑 즉 동성애(homosexuality)에 대한 문제로 뜨거운 담론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동성애에

5 2012년 8월 14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KBS의 뉴스(http://news.kbs.co.kr)에서 동성애 검색어 관련 보도는 1,985건이다. MBC의 뉴스 경우 동성애 관련 뉴스는 1,041건이 검색되었다. SBS의 경우 692건이 검색되었다. KBS가 약 10년 동안 연 평균 동성애 뉴스를 약 200회 했다고 볼 수 있다. Naver.com 검색에서는 과거 2002년 55개의 동성애 사이트에서 8월 14일 218개로 등록되어 있었다. 네이버에서 과거 2002년에 문서(text)로는 동성애가 31,567건이며, 신학 관련 문서 검색은 106,478건이었다. 그런데 8월 14일 등록 사이트가 218개, 그리고 문서가 902,522건으로 검색되었다. 신학 문서는 1,793,797건으로 검색되었다. 한국 구글 검색에 따르면, 동성애 문서가 약 4,680,000건이며, 신학 문서가 약 12,600,000 이다. 동성애 관련 문서들이 10년 만에 엄청 많이 증가했다. 〈조선일보〉에서 1993년 12월 29일부터 2002년까지 동성애는 572건이었지만, 8월 14일에는 3188건이다. 〈중앙일보〉에서는 2001년 10월 24일부터 2002년까지 동성애는 194건이었지만, 8월 14일 8076건이다. 외국의 유명 검색 회사에서 나타난 신학과 동성애에 대한 웹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2002년 http://www.yahoo.com에서는 신학(theology)은 2,000,000건의 웹문서가 있었는데, 2012년 8월 14일에 80,500,000개 있다. 당시 동성애(homosexuality)에 관한 웹

대한 여러 소식은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다.[5]

최근 한국만 보아도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2000년 9월 25일 한 연예인의 커밍아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영향이 서서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에 대한 혼란은 하리수와 같은 트랜스젠더까지 매스컴을 타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런 모습을 동경하게까지 만들고 있다.[6] 최근 10년 동안 동성애자들의 사이트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트들도 조직적이며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자신들의 견해를 전파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다. 지금 금지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동성애가 문화를 입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며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벌써 포스트모던 사상에 물들여진 대중문화의 활동가들은 이미 적대감 없이 친숙하게 소외되고 변형된 사랑의 이야기를 정상적인 것처럼 크리스천들의 사고에 자리잡게 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이 동성애자들로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이다.[7] 심지어 신학을 배우는

문서는 754,000개의 웹 문서가 있었는데, 8월 14일에는 동성애가 약 37,400,000개 있다. Google.com의 검색 결과는 8월 14일 현재 신학이 약 66,500,000개이며, 동성애가 약 29,500,000개가 발견된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의 총 웹문서에 비해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동성애에 관한 웹 문서는 실로 거대한 것이다.

6 조하식,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본 성전환자 하리수 문제 연구," (M. Div. Thesis, 평택대학교, 2002).

사람들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동성애자로 나서고 있다. 멜 화이트(Mel White)는 YFC(Youth for Christ)의 지도자, 신학교 교수, 전도 영화 제작자, 대형 교회 목회자였으며, 그는 빌리 그레이엄과 제리 포웰, 제임스 케네디, 그리고 펫 로버트슨의 대필자 등 화려한 경력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문 밖의 낯선자》(*Stranger Outside the Gate*)[8]라는 책을 써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책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훗날 성인이 되기까지 동성애로 몸부림친 것들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성향을 바꿀 수 없으며 동성애적 지향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주장하였다.[9] 영국의 성공회 사제인 베일리(Derrick Sherwin Bailey)는 자신의 책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10]에서, 행동 과학과 관련된 성구들의 재해석으로부터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전통적인 교회의 견해에 도전을 했다.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스 대주교도 그동안 동성애자의 성직자 임명에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 대주교 지명 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성에 대한 견해는 신학자의 각자의 의견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성애가 현재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다. 외국의 경우 예배가 끝난 후에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으며, 심지어 어떤 교회는 1부 예배는 일반

7 http://kidoktimes.com/inside.html?id=3208(2002년 자료, 현재 kidoktimes.co.kr로 변경됨).

"시사 주간지 〈타임〉은 최신호(4월 1일자) 커버스토리에서 1985년 루이지애나에서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이 폭로된 이후,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자와의 합의 보상금으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올 들어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보스턴 글로브〉 지가 1월 존 거간 사제(66)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부터이다. 이 신문은 열 살 난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월 10년형을 선고받은 거간 사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130여 명의 소년을 성추행해 왔으며, 이를 알았던 대교구 측은 외부에 알려질까 봐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예배이며, 2부 예배는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예배를 드린다. 물론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교회도 탄생하기 시작했다.[11]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이 심하여 그들을 보호하려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 미국의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에서 신학 교수를 선발하는데, 자격 요건으로 가장 소외된 자를 정하였는데 흑인이며 여성이며 레즈비언으로

8 Mel White, *Stranger at the Gate*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Mel White 홈페이지, http://www.melwhite.org/. 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멜 화이트의 삶의 경력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For thirty-five years, The Rev. Dr. Mel White struggled to 'overcome' his homosexual orientation through prayer, fasting, various aversive therapies, exorcism, and even electric shock. A victim of misinformation and biblical misuse, Mel thought his same-sex orientation was a sickness and a sin. During those 'closet years' Mel served the Christian church as a prize-winning television producer and filmmaker, a best-selling author, a pastor, seminary professor, and ghost writer to religious leaders including Billy Graham, Pat Robertson, and Jerry Falwell. After a time of terrible depression, Mel finally reconciled his Christian faith and his sexual orientation. In his autobiography, Stranger at the Gate: To Be Gay And Christian In America, Mel announced, 'I' m gay. I' m proud. And God loves me without reservation.' For the past six years, Mel and his partner, Gary Nixon, have traveled across the country as the UFMCC Minister of Justice seeking equality and understanding for God' s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children. In 1997, Mel and Gary received the ACLU' s National Civil Liberties Award in Atlanta, Georgia, for their efforts at applying the 'soul force' principles of Gandhi and King to the struggle for justice for sexual minorities. Consider joining their interfaith, ecumenical Network of Soulforce Friends by visiting Mel and Gary' s new Soulforce web page.

9 잭 볼스윅과 주디스 볼스윅, 《진정한 성》 (서울: IVP, 2002), 115-116.

10 Derrick S. Bailey,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Longmans, Green, & Co., 1955).

11 http://www.cathedralofhope.com/(2002년) 댈러스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은 결코 동성애를 심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경에 여러 구절들을 왜곡하고 있다.

하였다.

미국 교회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갤럽의 통계에서 볼 수 있다. 1999년 갤럽이 실시한 '동성애가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라는 여론 조사에서 '예' 라고 대답한 비율은 50%를 넘어, 지난 1982년의 34%와 큰 변화를 보였다. 또 1997년 바나 리서치 그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46%의 사람들이 '교회는 동성애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12]

동성애자들의 각 국가에서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페르-크리스티안 포스(52) 노르웨이 재무장관이 스톡홀름에 있는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게이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한 국가의 공적인 임무를 맡은 장관이 동성애자로서 공개적인 결혼을 한 것은, 분명히 인류 문명의 틀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는 영화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렸다. 동성애 영화로는 1996년 박재호 감독의 〈내일로 흐르는 강〉을 통하여 본격적인 동성애 논의가 마련되었다. 최근 동성애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로는 〈번지 점프를 하다〉(눈엔터테인먼트, 김대승 감독), 〈인사이드〉(태창엔터테인먼트, 유상욱 감독), 〈봉자〉(박철수필름, 박철수 감독) 등이 꼽힌다. 김인식 감독의 〈로드 무비〉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영화로 화제가 되었다.[13]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점점 호의적으로 증가하며,[14]

12 자료 인용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1072000000084018&s=308&e=555, 〈국민일보〉, "동성애자 안수 고민하는 미국 교회," 2001. 7. 20.

13 동성애를 다룬 외국 영화는 〈아이다호〉, 〈결혼 피로연〉, 〈패왕별희〉, 〈크라잉 게임〉, 〈싸베지 나이트〉, 〈필라델피아〉, 〈M 버터플라이〉가 있다.

14 남성의 경우 3–16%, 여성의 경우 1–3% 가량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25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활동이 실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이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이성 간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중 절반은 동성애자와 동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5] 따라서 자유로운 성의 해방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캠퍼스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심지어 미국 군대에서처럼 한국의 군대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신고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에이즈 경우에 동성간의 성 접촉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DNA 분석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16] 물론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성애자들의 거센 항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과는 서로 연관되어 조사되고 있다.

과거는 청소년들이 친구나 선배에게 동성애적 감정이 일어나는 경험으로 끝났지만, 요즘의 일부 청소년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동성애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17]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나타난 내용을 소개한다.

"비근한 예로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189명을

15 〈중앙일보〉 2002년 10월 14일, 자료 인용은 http://service.joins.com/asp/search_article.asp?aid=1814497&serv=society&sec=1450(2002년).

16 http://news.kbs.co.kr/news9/20021017/2002101712.htm. KBS 9시 뉴스, 2002년 10월 17일.

17 2002년 10월 26일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0대 동성애의 두 얼굴' 이라는 제목으로 동성애를 다루었다. 인터넷 재방송 참고 227회 http://tv.sbs.co.kr/docu/. 방송의 주 내용 가운데 첫 부분을 소개하면, "지난 8월, 대구의 한 여중생이 연인의 결별 선언에 절망해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아파트 19층에서 발견된 그 학생의 유품에서는 한 사람을 애타게 사랑하는 사연을 담은 편지가 발견됐다. 놀랍게도 그 대상은 남자가 아닌 여고생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가운데 무려 15%가 가벼운 신체 접촉 이상의 동성애 행위를 했다고 대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상으로 성 의식을 조사한 결과, 54.4%가 '동성애는 있을 수 있다' 고 답해 청소년기 소녀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금기가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중고 여학생들의 동성애 문화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학생들의 동성애 행각은 상당히 대담하다. 오죽하면 서울의 모 여고에서는 교내에서 학생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거나 화장실에 같이 가는 것까지 금지시켰을까? 원인은 두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서로 적나라하게 키스하는 장면을 학생 주임교사에게 들켰기 때문으로 교내에서 레즈비언같이 행동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18]

초등학생들도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19] 심지어 학생들의 신앙 훈련이나 성경 캠프에서도 동성애 경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20]

한국 사회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인정되는 그룹들이 있다.[21]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동성애 그룹을 인정하지 않지만 조만간에 이해하는 교회가 나오리라 예측된다.[22]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비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구약은 율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사랑을 강조함으

18 변영인, http://www.wooltari.com/n_najon_n4.htm(2002년).

19 한철호,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 사상〉, 2000년 11월호, 81. 한 어떤 초등학생이 여자로서 같은 반 여자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20 샌튼 존스,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IVP, 1994), 5. 이곳에서 그는 자기가 아는 피터라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 때 성경 캠프에서 동성애를 실험한 후,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통하여 경험하고, 끝내 결혼에서 동성애 경향이 나타나 파혼한 후 현재 게이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21 예를 들면, 창립 13 주년을 맞은 '여성교회' 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뉴스앤조이〉 47호, 2002년 10월 31일.

로써 동성애자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3]

이런 주장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이 아닌 수정주의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3. 동성애 문제에 대한 배경

동성애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루기 전에 동성애에 대한 정의와 동성애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동성애에 대한 정의

앞서 간략하게 동성애에 대하여 언급하였지만 동성애를 정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영어로 동성애를 'homosexuality' 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1869년 커르트비니라는 사람이 벤커르트라는 익명으로 최초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는 'homosexuality' 라는 개념을 남녀 동성애 모두에게 적용시켰지만, 그것을 정의하면서 발기 실패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24]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같은 성을 가진 자의 지속적인 성행위를 동성애로 말한다. 이 정의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22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인터넷 커뮤니티(http://cafe.fgtv.com)에는 2012년 6월 1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성애자 모임' 이란 이름의 카페가 개설됐다가 며칠 만에 폐쇄되었다.

23 곽분이, 동성애에 대한 성의 입장, http://spring.peacenet.or.kr/~maria/kcwn3.htm(2002년).

24 http://bomul.catholic.to/dogma/society/09/011.html(2002년).

이성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성과 여성 간의 성행위로서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으로 말한다.

동성애자 중에서 남성들의 동성애는 '우라니즘' (Uranism)이라고도 부르고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 라고 부른다. 남성 동성애자들 중에서 여성의 역할을 떠맡는 상대를 속어로 'fairy' (요정이라는 의미)라고 하며, 또한 여성적인 면을 지닌 남성 동성애자를 'fag' 또는 'faggot' 라고 부른다.[25] 또한 동성애자들의 권리 운동에 관한 용어는 'homophil' 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역시 동성애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26] 게이란 용어는 호모란 용어와의 차별성에 반대한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란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게이라고 지칭했으나, 지금은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킨다.

여성의 경우 레즈비언이란 말을 사용한는데, 이 어원은 동성애에 빠졌던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Sappho, B.C. 600년경)의 이름을 따서 사피즘(sapphism), 또는 사포의 출생지 레즈보스 섬의 이름을 따서 레즈비언 사랑(lesbian love)이라고 한다.

2) 동성애의 역사

동성애는 고대시대부터 종교와 정치에 관련하여 변형된 성행위로 나타났다.[27] 특히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은 구약에 나타난 동성

25 여장 남자를 '드랙퀸' (drag queen)이라고 하며, 남장 여자를 '드랙킹' (drag king)이라고 칭한다.

26 성과 관련된 용어에 관하여 참고로 소개하면 조하식,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본 성 전환자 하리수 문제 연구," 34이다.

27 고대에 많은 문헌과 시 그리고 선사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동성애는 많이 나타난다. John Jefferson David, *Evangelical Ethics: Issuses Facing the Church Today* (Phillipsburg: P&R Publishing, 1993), 96.

애의 이해에 올바른 도움을 준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경험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여인에 대한 사랑은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미소년들과 사랑을 함으로써 정신적 상승을 가져와야 한다고 믿었다고 한다. 로마의 첫 열다섯 명의 황제들 중에서 열네 명이 동성애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28]

스칸조니와 몰렌콜트에 의하면, 역사상 유명하고 세상에 큰 기여를 한 인물들 가운데 동성애적 지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헬라어 신약성경의 편집자인 에라스무스(사제의 아들),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임스 1세 왕, 미켈란젤로, 프란시스 베이컨, 여왕 메리 2세,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 차이코프스키, 헨리 제임스이다.[29] 히틀러는 동성애 행위가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혈통을 부끄럽게 하는 열등한 행위라고 보고, 유대인처럼 가스실에서 죽였다. 동성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었다.

3) 동성애의 원인

학자들은 동성애의 분명한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의 주장들이 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원인이 주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것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인간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동성애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다.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고 해서 원죄를 당연한 우리의 정상적인 규

28 문시영, 《기독교 윤리 이야기》 (서울: 한들, 1996), 141.

29 잭 볼스윅과 주디스 볼스윅, 《진정한 성》, 87.

범의 요소로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설령, 동성애의 요소가 분명하게 밝혀진다고 해도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성향은 선천적인 영향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영향일까?[30] 이에 대한 논쟁도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동성애의 원인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인, 즉 동성애자들의 유전자 패턴과 배열이 이성애자들의 것과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이것이 동성애자들을 유발하거나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뇌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나 또는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서서히 성장하면서 동성애적 성향을 갖게 된다는 하나의 견해가 있다.[31]

또 다른 동성애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동성애의 원인이 가족 관계에서 학습된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가족 및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을 익혀 가는 과정에서 성 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 경우인 것이다.

이 글은 동성애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다만 동성애는 좀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어린이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점은 설득력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4. 동성애자들의 주장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자들까지 많이 있다는 점이다.

30 변영인, http://www.wooltari.com/n_najon_n4.htm(2002년).

31 한철호,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82.

동성애에 대하여 동성애자들의 강한 주장은 동성애를 이성애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것으로 당연히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이 자신의 이성애 성향에 대해 원인을 묻지 않듯이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도 원인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5년에 발표된 동성애자 인권 선언문에는, 동성애의 원인을 밝히려는 모든 노력을 이 사회의 광기와 폭력이라고 선언한다. 동성애란 잘못된 선천적인 자질도 아니고, 나아가 성장과 교육의 왜곡에 따른 비정상적인 결과는 더더욱 아니라고 한다. 또 동성애를 해부하고 규명하려는 그 어떤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은 동성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많은 이들의 삶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광기와 폭력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란 단지 이성애에 비해 소수일 뿐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이성애와 함께 있어 왔던 성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한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최근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 김효성 목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지지하는 목회자와 신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2] 1979년도의 한 책에서, (연합감리교회 소속) 남부 감리교대학교의 빅터 폴 퍼니시(Victor Paul Furnish)는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정말 동성애를 정죄했는지 의문(疑問)하였다고 한다(*Christian News*, 1997년 10월 27일, 5쪽).

1982년 연합감리교회에서 출판된 '인간의 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동성애적인 남자들과 여자들이 교회 목회나 지도적 직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 보고서는 주장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동성애적이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완

32 김효성, 자료 인용은 http://www.oldfaith.net/st/st.htm(2002년).

전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생활을 하고 상호 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Christian News*, 1997년 10월 27일, 5쪽).

하버드 대학교 기념교회의 동성애 목사 피터 고움즈(Peter Gomes)는 말하기를, "그 교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Huntsville Times, 1997년 7월 17일; Calvary Contender, 1997년 8월 1일). 또한 1997년 10월 3일《유에스에이 위켄드》(USA Weekend)와의 대담에서 고움즈는 레위기에서의 동성애의 금지가 동성연애자가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행하였고 그러므로 그것이 의식적(儀式的)으로 불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로마서 1장 27절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바울의 비평이 '본성적으로' 동성애자인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고 이성애자들에 의한 동성애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모두 그것의 타락한 이방적 표현이었다. 그는 그런 무지 때문에 정죄될 수 없지만, 그의 무지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위한 변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Christian News*, 1997년 11월 10일, 7쪽).

하버드 대학교의 비교 종교 및 인디언학 교수 다이애나 에크(Diana Eck)는 1998년 7월 그의 동료 교수이며 20년간 그의 동성애 파트너인 도로시 어스틴(Dorothy Austin)과 함께 하버드 대학교의 로웰 기숙사의 사감으로서의 임무를 맡았다(Huntsville Times, 1998년 4월 26일). 에크는 1988년 세계교회협의회의 이방 종교들과의 대화 위원장이었다(Christian Beacon, 1988년 12월 1일, Calvary Contender, 1998년 6월 1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the pro-gay theologians)과 수정주의자들(the revisionists)의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가이슬러는 이들의 주장을 잘 설명하고 비판하였는데,[33]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3 노르먼 L. 가이슬러,《기독교 윤리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36-340.

첫 번째로,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원인이었는가에 대하여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악함이 보여준 집단 강간이 그 원인이지 동성애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이기심으로 멸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에스겔 16장 49절[34]에 근거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과 이웃을 돌보지 않음으로 멸망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9장 1-25절에서 '야다' (yada)를 성행위로 보지 않는다. 창세기 19장이나 사사기 19장 13절-20장 38절[35]의 설명에 대해 베일리(D. S. Bailey)는 하나님이 벌하신 죄는 성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호의를 깼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헬뮤트 틸리케와 같은 학자는 구약에서 남색에 관한 구절들이 실제로 동성애 행위를 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는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단순하게 인용할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36] 이런 그의 주장은 성경을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동성애가 가장 큰 원인인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뒤에서 시도된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레위기 18장 22절의 구약 율법을 더 이상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레위기는 돼지고기와 새우를 먹는 관습을 비난하였지만, 이런 제사법은 이미 철폐되어 버렸다고 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금하는 율법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34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겔 16:49).

35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18:22).

36 헬뮤트 틸리케, 《기독교 성윤리》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289.

37 센튼 존스,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8.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동성애적인 매춘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애정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37]

세 번째로, 바울의 견해는 개인적인 것으로 주께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본문은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질서에 어긋나 동성애 행위에 빠지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동성애자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성애자들은 이성애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성애자들이 이성애를 넘어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왜곡 이외에도 동성애 주장자들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시킨다. 첫 번째로, 동성애는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므로 강압적으로 침해하지 말라고 한다. 두 번째로, 성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말하라고 하면서, 법적 보호를 주장한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경우와 죄로 보는 경우는 매우 차이점이 나타난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반 오웬(Van Owen), 오토 피퍼(Otto Piper), 월펀덴(Wolfenden)과 같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동성애라는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에서 훌륭한 능력을 지닌 구성원으로 평가한다.[38]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테오도르 보베트는 동성애를 도덕이나 죄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네 번째로, 자연 과학자들은 포유동물도 동성애를 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주

38 헬뮤트 틸리케, 《기독교 성윤리》, 282-283.

39 "미국의 대표적 동성애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 세계협회의 지도자 그윈 깃보드(Gwynne Guidbord) 박사는 최근의 미국 교회협의회총회에서 연사로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회집된 교회협의회 대표들 중 최소한 절반은 서서 그 여자에게 갈채를 보내었다(National Liberty Journal, 1999년 2월호). 그 여자는 실제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젊은이들을 매춘, 마약, 알코올 남용에 빠지도록 강요한다고 비난했다." 자료 인용 김효성, http://www.oldfaith.net/modernch/4p6.htm (2002년).

장한다. 다섯 번째로, 동성애를 막는 것이 젊은이를 매춘, 마약, 알코올로 빠지게 한다고 주장한다.[39] 마지막으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경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동성애를 받아 주는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5.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먼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오늘날도 권위를 갖는 우리의 신학과 윤리에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그 자체는 현재의 모든 도덕적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물론 성경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답을 100%로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답을 찾는 일은 해석학적 과정을 포함하여 성경신학적인 도음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답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서 성경은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비판

초대 교회의 속사도였던 폴리캅(Polycarp)과 아테네에 살았던 아리스티데스(Aristides), 타티안(Tatian), 아테네의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of Athens), 안디옥의 테오필루스(Theophilus of Antioch), 클레멘트(Clement), 오리겐(Origen),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크리소스톰(Chrysostom)[40] 등은 동성애는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거스틴(Augustine)과 토마스 아퀴나스(Aquinas)는 동성애를 거절하였는데, 그들은 비생식적인 성행위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정죄하였다.[41]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하여 동성애는 거부 당하여 왔다.

앞서서 밝힌 동성애 지지자들의 견해들을 가이슬러의 설명과 더불어서 몇 가지로 비판할 수 있다.[42]

첫 번째로, 동성애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관계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전후 관계 문맥에서 성관계이다. 특히 '야다' (yadha)의 단어는 성관계와 관련하여 자주 쓰였다. 물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반드시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죄악들과 포함하여 동성애가 원인 중의 하나였다. 특히 유다서는 그곳의 영원한 불의 형벌의 원인으로 성적 부도덕(간음)과 다른 색(perversion, 헬, 사르코스 헤테라스)을 말하고 있다.[43]

두 번째로, 구약 레위기의 의식법은 신약에서 변경되었다. 그러나 동성애는 반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철폐를 못한다.

세 번째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성경을 기록하게 역사하신 분은 바로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동

---

40 David D. Bundy, "The Church Fathers and Homosexuality," *What You Should Know about Homosexuality*, ed., Charles W. Keysor (Grand Rapids: Zondervan, 1980), 117-143.

41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8. (London: Routledge, 1988).

42 참고로 Responding to Pro-Gay Theology by Joe Dallas. http://www.stonewall-revisited.com/issues/theo.html.

43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 1:7).

성애에 대해 강하게 금지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말씀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창조의 본성과 모순된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44] 하나님은 동성이 아닌 이성을 사랑하라고 하신다(창 2:24; 고전 6:15-17). 동성애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경고한다(고전 6:9).[45] 디모데전서 1장 9-10절은[46] 부분적으로 십계명의 업데이트인데, 7계명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는 남색하는 자(sodmoy)까지 포함하여 바울은 설명한다.[47] 그렇다면 십계명은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요구로서,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십계명의 7계명과 관련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교란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결혼의 범주 안에서는 동성애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결혼관은 무엇인가? 동성의 하나 됨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창조 질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이외의 다른 증거에 대한 것들도 반박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동성애를 자유로운 성적 표현으로 주장하는

44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롬 1:27).

45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전 6:9).

46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딤전 1:10).

47 "Homosexuality," *The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Part 2 (Leicester: IVP, 1994).

견해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단순하게 사생활로 보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사회가 단순한 사생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아직까지 동성애 성향이 유전한다는 확고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다만 동성애는 학습 받은 행동이라는 주장이 더 강하다. 설령 그런 경향이 유전되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네 번째로, 포유동물도 동성애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의 행동을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 볼 수 없다. 대부분 동물의 경우 일시적인 것이며, 습관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동물은 이성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도 않다. 그런 동물과 비교하여 인간의 규범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매춘, 마약, 알코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학적, 범죄학적, 통계학적, 그리고 윤리학적인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것이다. 물론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삶은 올바르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도 그들의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 어떤 사회도 동성애를 이성 간의 사랑과 동등하게 두지 않는다. 어떤 사회도 동성애를 통해 유지될 수 없다.[48]

성행위란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서 결혼의 범주 안에서는 동성애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성경

48 소카리데스(Socarides)는 "Homosexuality cannot make a society, nor keep one going for very long"라고 말한다. 자료 인용 http://www.dtl.org/ethics/subject/homosexuality.htm(2002년).

이 동성애를 주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결혼관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성의 한 몸 이루기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볼 때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모든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가 동성애를 죄로 보고 있다.[49]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성경 해석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했던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며 생식과 관련하여 결혼 제도에 맞지 않는다.

2) 동성애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인가? 물론 인간에게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다.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은 것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 타락 이전의 아담의 의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아담의 의지가 죄로 물들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그의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은 실패로 끝났다.

지금의 우리는 타락한 부패한 인간으로 인간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가 문제이다. 인간의 자유는 무한정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그 말씀 안에서 자유이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지나친 것이다.[50]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 아담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오늘날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말에서 재판하실 것이다.

3) 세속 문화에 대한 변혁적 신학

아퀴나스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데, 동성애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며, 출산과 관련된 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말한다. 따라서 동성애가 있는 곳에는 사회가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한다. 크리스천도 반대해야 한다. 교회는 동성애를 병으로 보지 말고 도덕적인 악으로 보아야 한다. 바울이 살던 당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정죄받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순리와 역리라는 당시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반대했던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준다.[51] 따라서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었다면 당연히 죄악으로 선언해야 한다. 기독교는 세속의 문화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사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 없는 사랑과 관용을 통하여 스스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파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위대한 사건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9 칼빈(Calvin)은 동성애를 자연의 모든 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증스런 것으로 본다. Comm. on Rom. 1:26(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79. 로마의 클레멘트, 아리스티데스, 타티안, 아테나고라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은 레즈비언을 비판한다. David W. Bercot, ed., *A Dictionary of Early Christian Beliefs* (Peabody: Hendrickson, 1998), 347.

50 Socarides, http://www.dtl.org/ethics/subject/homosexuality.htm(2002년).

51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롬 1:26).

동성애 문제는 노예 해방이나 여성 안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데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 몇 개의 성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동성애를 문화적인 산물로 혹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의 과잉 탄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죄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 우리의 순종이 있을 뿐이다. 그것을 위반하면 죄악이다.

4) 성의 신학

우리는 인간을 몸과 영혼의 연합체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시켜서 성을 이해해야 한다. 성은 거룩한 것이며, 성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신학적 접근에서 볼 때 성행위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경은 성행위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그것은 이성의 결합이다. 다른 성이 서로 합하는 것이다.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 완성하는 행위이다. 다른 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행위는 자녀를 낳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성경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닐 경우 남성과 남성의 경우에 성행위는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꼭 자연적인 질서의 성행위만이 참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만족을 위한 방법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형태로서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런 육체적 접촉에 의한 행위를 바른 성행위로 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과 결혼을 말할 때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 연합을 밝히고 있다. 같은 동성에 대한 언급은 결코 없다. 그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성행위는 결혼의 범위에서 반드시 수행되는 것이다. 혼외의 관계는 인정받지 못한 잘못된 행위로 되었다.

성 도덕의 핵심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연합을 고안하셨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란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 완전한 성적 친밀감인 성적 결합을 사용하신다(고전 6:16).[52] 앤드류 그릴리(Andrew Greeley)가 쓴 "신실한 매력"(Faithful Attraction)에 따르면, 결혼 전에 성관계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 후 외도를 더 잘하고, 결혼을 통한 최상의 성관계를 누리기가 더욱 힘들며, 결혼에 대해 만족도, 행복하기도 더 힘들다고 주장이다.[53]

5) 동성애와 창조 세계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세계가 움직인다면 창조 세계에 많은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의 유지와 보존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문화적 사명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과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심으로 남게 된다. 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 보시기에 좋았으나 타락 후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자연과 세상에서 땀을 흘려 가며 살게 되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에 새롭게 완전하게 창조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날까지 청지기로서 문화적인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수행해야 한

---

52 샌튼 존스, 《동성애, 어떻게 볼것인가》, 15.,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고전 6:16).

53 *Ibid.*, 15.

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들의 생존 방식은 인공적인 변형을 통하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생태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파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파괴된 인간을 회복하고 창조 세계에서 왜곡된 문화에 사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인도하셨다. 바로 동성애는 이런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인간의 부패한 문화 현상이다.

6. 신학적 관점에서 본 대안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근거로 하여 동성애에 대해 몇 가지 신학적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 과제는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발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1) 동성애에 대한 바른 신학의 정립과 교육

동성애의 경우 주로 어릴적 경험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성애자들은 부모에 의해 학대를 심하게 받은 자들이며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54]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동성애 방지를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성의 정체성에 대한 지혜로운 교육이 크리스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기 교육을 통하여 동성애가 죄악인 것을 지혜롭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성경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

54 잭 볼스윅, 주디스 볼스윅,《진정한 성》, 95.

동성애도 역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동성애에서 사랑의 행위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사랑은 무제한적 자유 속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과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이 주로 성을 즐기는 문화로 퇴폐화시킨 점을 비판하면서, 성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신비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동성애가 성경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청소년 교육이 시급하다. 모방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경적 성 윤리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소보다도 후천적,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교육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 충동을 승화시키는 데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2) 전도를 위한 인권의 존중과 사랑의 실천

최근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의 견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전도와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좀 냉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뉴욕 시에 있는 어떤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크리스천 간부 회원들은 에이즈가 진행되고 있는 게이들과 접촉하기를 꺼

55 Udo Schuklenk and Tony Riley, "Homosexuality, Societal Attitudes towar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Vol., 2 (San Diego: Academic Press,), 601.

리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55] 크리스천들은 동성애 공포증이나 혐오(homophobia)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전통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핍박한 주요 주체를 기독교인으로 인식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경의 진리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지나친 감정적 증오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방법은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은[56] 그 기준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그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하나

56 다음의 내용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선언문을 소개한다. 그러나 그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적, 신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자료 출처 http://members.tripod.lycos.co.kr/seinpower/koreamove/donin/dihpropa1.htm(2002년).
"이 선언문은 한국 동성애자 인권 운동 단체들이 스톤월 항쟁 기념일을 기하여 대사회적 커밍아웃을 했던 1995년 6월 26일에 발표된 선언문이다.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발족 선언문

이 땅의 모든 레즈비언, 게이 벗들에게, 오늘 1995년 6월 26일 마침내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침묵의 재갈을 풀고, 자신을 비난하고 모멸했던 세계를 향해 자신의 언어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지난 26년 전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뉴욕의 스톤월에서 자신들을 겨눈 폭력에 저항함으로써 마침내 수세기 간 지속되어 온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조롱에 종지부를 찍었듯이, 우리 역시 이제 이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비난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그간 국내에서 활동하여 온 네 곳의 남녀 동성애자 인권 단체는 동성애자의 삶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가해진 온갖 유형, 무형의 조롱과 박해를 물리치기 위해,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함께 연대하기로 결의한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첫 동성애 인권 운동의 지평을 열게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반문하고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는 이 땅의 레즈비언, 게이 벗과 모든 이성애자들에게 자신의 출범을 알리며, 그 첫 각오와 주장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그간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을 부정하고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우리 시대의 집단적 침묵을 비판하고자 한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존재한다! 수많은 이성애자들이 생각하듯 이성애라는 성적 지향성만이 유일하고 정상적이며, 이와는 다른 종류의 성적 지향성은 변태이고 도착이며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 역시 이성애와 같은 독자적인 사랑과 성의 제도이며, 이

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사회에나 존재하고 또 그곳에나 유행하는 문화가 아니다. 더욱이 동성애란 잘못된 선천적인 자질도 아니고, 나아가 성장과 교육의 왜곡에 따른 비정상적인 결과도 더더욱 아니다. 동성애를 해부하고 규명하려는 그 어떤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 그것은 동성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것이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광기와 폭력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동성애자들과 어떻게 민주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모색하는가일 뿐이다. 다음 동성애는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기존의 언론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제시된 동성애자의 삶의 현실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간 국내의 모든 매체들은 동성애자들이 자신과 성적 지향성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 낸 동성애자의 공동체를 패덕과 난행의 공간으로 호도하고 모멸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온갖 비난과 모욕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많은 동성애자들을 금치산자로 모는 짓에 다름 아니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많은 동성애자들을 자기 혐오와 절망으로 몰고 가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물론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공동체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최소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학교와 직장에 이르는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동성애자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동일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이들과 교류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관대함과 이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탓에 비롯된 부정적 결과일 뿐이다. 우리 역시 비일상적이고 상업화된 동성애자 공동체의 문화를 우려하고 비판한다.
하지만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긍지와 용기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우리들이 보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친교와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에게 강요된 은폐와 침묵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동성애를 새로운 삶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문제인 것이다. 다음,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가족의 위기, 전례 없는 이혼율의 증대, 결혼 제도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성과 사랑의 제도들, 대중 문화를 범람하고 있는 성에 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양상을 통해 이미 이성애적 성 제도에 무조건적으로 주어 왔던 가치와 권위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고, 또한 이성애가 누려 왔던 그 모든 완벽한 보편성 역시 회의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성애의 위기가 보수화되어 자신과 성적 지향성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폭력과 증오로 귀결되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 공포증과 한 짝이 되어 범람하는 동성애 공포증은 바로 불치의 질병을 무기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병리화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 본보기일 것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성병도, 도덕적 재앙도, 윤리적 징벌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염병이며, 그것은 성과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감염의 기회가 열려 있는 질병일 뿐이다. 도리어 에이즈에 부착되어 있는 그 난폭한 의미를 떼어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시대의 성과 사랑에 대해 새로이 모색하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는 이 모든 문제를 정면에서 응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가해진 온갖 모욕과 비난을 물리치고, 자긍심과 희망을 품은 동성애자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스톤월 항쟁 26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동성애자 인권 주간으로 선포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되새기고자 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견뎌야 했던 침묵과 공포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긍지와 자유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존재로, 또 아담의 타락으로 순리를 바르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도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이나 혐오스런 동물로 취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예수도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그리고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새로이 이해하는 역사적 시대의 빗장을 열 것이다. 동성애 인권 운동 만세!! 스톤월 항쟁 만세!!

우리의 주장

1.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인격적 모욕과 비난을 중지하고, 이들이 가진 성적 지향성을 해악시하고 부정하는 모든 의학적, 법률적, 교육적 관행을 중단하라.
2. 언론 매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그간의 보도 관행을 반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3.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밝힌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침해와 모욕을 중지하라.
4.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역병으로 호도하는 사이비 의학적 선전을 중단하고,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사회적 방역 체계에서 동성애자를 특별히 격리하고 규제하여 온 그간의 시도를 중단하라.
5. 동성애 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1995. 6. 26.

57 루이스 스메디스, 《크리스천의 성》 (서울: 두란노: 1997), 76.

58 미국의 경우 앤디 코미스키(Andy Comisky)는 'the Desert Stream' 과 'Living Waters' 라는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동성애자들 실질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돕고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stonewallrevisited.com/pages/andy_c.html(2002년). 그의 사역은 성경적 모델에 근거하여 진리와 은총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이성애적 결혼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목적에 강조를 둔다. 그리고 예수의 속죄와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Andy Comiskey, *Pursing Sexual Wholeness: How Jesus Heals the Homosexual* (Lake Mary: Creation House, 1989).

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버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대상임을 잊지 말자. 기독교 공동체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받아 주는 사역이 필요하다.[57]

3) 동성애자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의 필요성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라는 배타적 행위는 그들을 전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못 된다. 신학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학적인 검증도 깊이 논의되어야 한다. 과연 동성애는 유전적인 잘못으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런 경우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것은 크리스천 의학자와 신학자 그리고 크리스천 사회학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58]

이런 과제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적인 작업이다. 전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단순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한 대안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가령, 동성애자들의 치료를 위한 상담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들이 동성애를 벗어나서 이성애로 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가능한 전문기관을 만들 것,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사람들을 교육시킬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하고 희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실질적 도움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단체의 의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59]

7. 결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죄한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게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준다. 동성애에 대한 동정은 많은 곳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삶의 양식으로, 진화한 문화의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성경은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과 예수께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결혼을 통하여 성스럽게,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384891&cp=du(2012년 8월 15일). 국내에서 동성애 사역 기독교 단체는 홀리라이프와 웰스프링(wellspring.co.kr)이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 의미를 가지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까지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60]

성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아름답고 값진 선물이다. 인간의 소유물도 아니며, 인간의 놀잇감이 결코 아니다. 성은 성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60 안명준, "칼빈의 신학적 윤리학," 〈조직신학 연구〉, 창간호(1),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2002): 9-31. 이 논문을 인터넷으로 보기 위한 참고는 한국복음주의 조직신학회 홈페이지 http://theologia.co.kr/st.

군선교신학 제10권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이규철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Th.M)
■ University of pittsburgh 연수
■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신학박사 학위취득
■ 현 안동성결교회

1. 들어가는 말

역사상 '우정' 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이가 피타고라스(Pythagoras)라면,[1] 신학적 견지에서 우정에 관한 담론을 개진(開陳)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은 우정에 관한 특별한 책을 저술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고백록》을 비롯한 그의 주요 저서 곳곳에 우정에 관한 그의 통찰을 총총하게 새겨 두었다.

[1] 힐쉬베르거(Johannes Hirschberger),《서양 철학사》(상), 강성위 역 (대구: 이문출판사, 1995), 62. 힐쉬베르거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역사상 우정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이다. 피타고라스는 실제의 삶 안에서 그의 사상을 실천했던 철학자였다. 피타고라스의 사상과 가치를 뒤따랐던 피타고라스학파의 생활 양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정에의 이상이었다.

오메라(John J. O' Meara)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기질은 열정적이었으며 예민한 감수성과 부드러운 성품을 지녔다. 그는 선하고 용기 있으며,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한 충실성의 덕을 지닌 사람이었다.[2] 이렇듯 어거스틴은 덕이 있어 우정을 참되게 이끌었다.

비검(Thomas J. Bigham)과 몰리겐(Albert T. Mollegen)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생활에 대한 어거스틴의 신학적 통찰은 구약의 율법보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와 같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제시한 덕목들을 우선 취합한다.[3] 비검과 몰리겐이 지적한 바, 개인 생활에 대한 어거스틴의 그러한 경향은 우정에 관한 그의 담론에서도 여전하다. 사실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덕' 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분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 등으로 이어지는 고전 철학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들 고전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정이 덕이고 덕이 우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제 고전 철학자들이 견지한 우정에 관한 사상을 그의 마음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총이라는 조명 아래 여과시켜, 신학적 우정론으로 개진시키고 승화시켰다.《고백록》의 다음 진술은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4]

[2] John J. O' Meara, *The Young Augustine: The Growth of St. Augustine's Mind Up to his Convers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ltd, 1954), 208.

[3] 토머스 비검, 앨버트 몰리겐, "기독교 윤리",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442.

[4] Augustine, *Confessions*, 선한용 역,《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4. 4.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이하 *Confessions*는 *Conf.* 라고 표기함.

> 참다운 우정이란……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서로 매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술이 표방한 바와 같이, 어거스틴에게 있어 덕은 우정의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적극적으로 덕으로서의 우정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Caritas*)으로서의 우정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단순히 우정에 대한 고전 철학의 형이상학적 재검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로 승화시킨 신학적 숙고의 틀에서 받아들여진다. 이에 기독교적 우정의 이론을 설정한 최초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펼친 우정에 대한 담론의 정체를 살피고 해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실체와 신학적 의미를 파악함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시대 제 철학자들의 덕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한다. 이어 어거스틴의 주요 저서 속에서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 용례를 파악하고, 그 숙고에 함유된 신학적 암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철학적 배경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우정론의 기본 바탕인 '덕' 사상에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와 로마 시대 고전 철학자들의 논점을 간략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소크라테스(S●crates)

기독교의 옷을 입은 철학자라 일컫는 저스틴 미터(Justine Martyr)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실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하다.[5] 니브(J. L. Neve)에 의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소크라테스를 하나의 도덕적 모범으로 삼았다.[6] 그런 만큼 러셀(Bertrand Russell)이 분석한 바,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덕과 지식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7]

플라톤은 우정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정의를 이렇게 전했다.

> 우정이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자가 그 정신 혹은 육체에 악한 요소가 존재할 경우에 선한 자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네.[8]

소크라테스의 이 진술이 보여주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우정관은 참된 지식과 참된 선이 밀접히 결부된 도덕성에 기초한다.

김준섭의 분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앎이 있어야 덕을 행한다' 고 강조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덕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앎) 없이 덕은 불가능하다. 지식이 곧 덕이다. 그래서 최고선은 지식(앎)이다. 인간이 최고선, 즉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

---

[5] Justine Martyr, *The First Apology*, VI, Alexander Roberts and James Donaldson, ed., *The Ante-Nicene Fathers* Vol. 1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85).

[6] J. L. Neve, 《기독교 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52. 니브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명확한 지식이 선한 행위를 낳게 마련이며, 악한 행위는 무지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쳤다. 모든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나온 것이기에 단지 그것을 깨우쳐 나타나게 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인간 속에 있는 덕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모든 환경에서 인간을 이끌어주시기도 하신다. 고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적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불멸적인 것이 된다.

[7] 러셀, 《서양 철학사》, 한철하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152.

[8] 플라톤, 《향연, 뤼시스》, 범우문고(55) (서울: 범우사, 1997), 156.

어야 한다. 그 덕은 이른바 '사려, 용기, 절제, 정의' 인 사추덕(四樞德)이다.[9] 이런 견지에서 우정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선을 지향하는 특성을 띤다.

2) 플라톤(Plat●n)

우정을 주제로 한 플라톤[10]의 작품은 《뤼시스》(*Lysis*)[11]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선하고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음은 그 역시 선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이루기에 이 우정은 가능하다.[12]

플라톤에 따르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이루기에 이 우정은 참되다.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하고만 우정을 이룬다. 그렇지만

9 김준섭, 《서양 철학사》 (서울: 백록출판사, 1991), 71-72.

10 최재희, 《서양윤리사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38. 이 책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희랍말로 '광활(廣闊)하다' 는 뜻이다. 이것은 그의 총명한 자질에 체격마저 건강했기에 당시의 어떤 체조 교사가 붙인 이름으로서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 (Aristokles)이다.

11 서양 지성사에서 '우정' , '사랑' 이라고 번역하는 '필리아' (philia)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작품인 《뤼시스》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적 대화 편' 또는 '초기 대화 편' 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여 덕(德)의 정의(定義)에 관련된 문제를 놓고 대화 상대를 논박(elenchos)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다 외견상 긍정적인 결과 없이 파장(aporia)으로 막을 내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작품이 덕(德)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필로스' (philos)라는 일상 언어의 애매성을 그대로 끌어들인 상태에서 진행된다. 플라톤, *Lysis*, 강철웅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03), 9-10.

12 Plato, *Lysis, Symposium, Gorgias, Loeb Classical Library* (No. 166), tr. W. R. M. Lamb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5), 41.

덕이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우정이 될 수 없다. 플라톤은 이렇게 강조했다.

>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본의(本意)란, 선인(善人)은 서로 융합되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악인은 서로 융합되지 않고 피차에 서로 정욕으로 대하므로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없으며, 그 밖의 무슨 일에 대해서나 서로 충돌하여 원한을 품고 결국은 일치하여 융화를 도모하는 일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네.[13]

플라톤에 의하면, 우정의 가치는 우정 그 자체에 그 본연의 의미가 있다.

>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우정의 제1원리는 우정이 결코 다른 것을 위해 있지 않고 그것 자체를 위해 있으며 그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귀중하게 되는 것일세……. 우정이란, 요컨대 그 밖의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이 되겠네. 그렇다면 선은 곧 우정이라 추론할 수 있지 않겠나?[14]

비트삭시스(Vassilis G. Vitsaxis)의 분석에 따르면, 플라톤에게 있어 인간의 영혼은 크게 '이성' (Logistikon), '격정적인 의성' (意性, Thymoides), '물욕' (Epithymitikon)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15] 우정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과 연관하여 주목할 점은, 이성을 발휘하게 하는 덕으로서의 지혜이다.

13 플라톤, 《향연, 뤼시스》, 147.

14 *Ibid.*, 160.

15 비트삭시스, 《플라톤과 우파니샤드》, 박성호, 박성규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89), 122-123.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성은 영혼의 최상위 부분으로서 반성, 통찰, 추리의 기능을 한다. 격정적 의성은 분노, 혈기, 명예욕, 수치심, 불명예에 대한 혐오감 등을 발한다. 물욕은 영혼의 맨 하위 부분으로서 감각적 욕망(식욕, 성욕)을 지시한다.

이성의 지혜를 좇아서 의성을 발휘케 하는 덕이 용기이다. 용기는 전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성격이 있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물욕을 제어하도록 하는 덕이 절제이다. 여기에다가 전체 영혼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정의의 덕이 있다. 이 정의의 덕은 영혼의 세 부분이 각기 제 위치의 임무를 수행하여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게 함으로써 근본 원리인 이성 아래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마음의 전체적인 조화(내적 평화)를 초래한다.

바로 이것이 플라톤의 이른바 사주덕(四主德)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 사주덕 중 기본적인 덕은 이성의 힘에 의해 얻어지는 지혜이다.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우정관은 이성론(理性論)적 특성을 보인다.

3)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정(φιλια)은 하나의 덕이 아니라 덕을 내포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 사실 누구나 벗들이 없다면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사람들' 이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재물이나 지위도 남에게 덕을 베풀 기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한 덕은 친애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 가장 요긴하게 베푼 것이며, 또 가장 찬양할 만한 것이 아닌가?[16]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정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쾌락(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우정이다. 이 우정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우정이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채우고 빨리 식는다. 단지 쾌락만을 좇아 맺어진 우정이기에 쾌락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우정도 끝나기에 희생과 양보가 내포된 지속적인 참된 우정이 될 수 없다.

둘째, 유용성만을 추구하는 우정이다. 이 우정은 장년층과 노년층의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우정이며 서로에게 유용한 이용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맺어지는 우정이다. 그래서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우정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속 시간 또한 더 길다. 그러나 서로의 이익 계산적인 판단에 의해 성립된 우정이기 때문에 이익의 매력이 사라지면 우정 또한 끝이다. 따라서 이 우정 또한 참되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덕을 추구하는 우정이다. 이 우정은 덕을 중심으로 추구하기에 참될 수 있다. 덕은 참된 우정의 원인이다. 선한 인간은 덕의 고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우정은 선한 사람들만이 만들어 갈 수 있다.[17]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인간다운 것은 덕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덕은 참된 우정의 원인이다.

> 완전한 우정은 선하고 덕이 서로 닮은 친애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이 선한 사람인 한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원하며, 또 그들 자신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참된 의미에서 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본성이 그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정은 그들이 선한 동안 내내 지속한다. 그리고 선은 영속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각자 무조건 친구에게 선하다. 선은 무조건 좋으며, 또 피차가 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들은 또한 즐겁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

16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1, 최명관 역 (서울: 도서출판 창, 2004).

17 《니코마코스 윤리학》, VIII, 3.

18 *Ibid.*

한 사람들은 무조건 피차 즐겁기 때문이다.[18]

아리스토텔레스의 견지에서 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곧 최고선이다. 이렇게 행복과 덕은 본질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덕 있는 우정이 최고의 우정이다.

4)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어거스틴의 회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키케로[19]의 우정론은 그의 《우정에 관하여》(*Laelius de amicitia*)[20]에 집중적으로 개진되어 있다. 우정에 대한 키케로의 담론은 '친구는 또 하나의 자기'[21]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

19 이규철에 따르면, 키케로는 어거스틴의 회심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난 뒤 철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철학은 어거스틴의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지혜 추구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였고, 그로 인해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점에서 어거스틴의 회심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했다. 어거스틴의 회심 후 초기 저작에서나 후기 저작에서 키케로의 철학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거스틴의 철학적 정신세계에서 키케로의 비중은 사뭇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키케로는 어거스틴에게 철학적 방법에 의한 진리 추구의 방법을 가르친 것은 사실이나 《고백록》에 언급된 것처럼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단순한 애지로서의 철학이었다. 따라서 키케로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구체적 진리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키케로에 의해서 어거스틴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역설적 측면에서, 어거스틴의 회심의 여정에서 키케로의 위치가 가늠된다. 이규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거스틴의 회심》 (서울: 쿰란출판사, 2001), 179-185.

20 키케로가 B.C. 44년에 집필한 《우정에 관하여》는 그의 평생지기인 '앗티쿠스' 에게 헌정되었다. 이 대화편은 소(小) '스키피오' 가 죽은 직후인 B.C. 129년, 스키피오와 평생의 친구였던 '라일리우스' 가 자신의 두 사위 '판니우스' 와 복점관 '스카이블라' 와 정원에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Cicero,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1), 95.

21 《니코마코스 윤리학》, IX, 9.

> 우정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그 점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우정은 미래를 향하여 밝은 빛을 투사하여 영혼이 불구가 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이네. 진정한 친구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네. 친구는 그 자리에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는 가난해도 부자며, 약해도 강하며,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죽어도 살아 있다네. 그만큼 그의 친구들이 그를 존경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일세.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도 행복해 보이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만해 보이는 것이라네.[22]

키케로에 있어 우정(*amicitia*)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모든 사물에 관한 선의와 호감을 곁들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이다.[23] 따라서 우정은 취미나 특성이 자기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생성되며, 이러한 우정 안에서 두 사람의 의지와 사고가 일치하고 서로의 선함과 감정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볼 때, 키케로에 있어 우정은 상호 선한 의지와 의향에 기초한, 본질적으로 이타주의적(altruistic) 관계성의 결과이다. 사랑은 그 원인(the cause)이고 이타주의적이다.

> 평등과 도덕적 존중(moral esteem)과 타자(他者)를 존중하는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가장 높고 가장 고귀한 우정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덕스러운 선함보다 좀 더 동정적(공감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타입의 우정은 필연적으로 드물고 제한적이다.[24]

22 《우정에 관하여》, 7, 23.

23 *Ibid.*, 6, 20. 키케로에 따르면, 지혜를 제외하고는 불사의 신들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우정이다.

24 *Ibid.*, 5, 20.

키케로에 따르면, 우정은 인간사에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이다.

〈라일리우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정을 그 어떤 인간사보다 우선시하라고 권하는 것 뿐일세. 우정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우정만큼 적절한 것은 없기 때문이네.[25]

우리에게는 생활필수품이라는 물과 불 못지않게 언제나 우정이 필요한 것이라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즐겁고 유익하기는 하지만 평범하고 상식적인 우정이 아니라, 소수의 유명한 친구들에 의해 구현된 그런 종류의 진정하고 완전한 우정이라네. 우정은 행운을 더욱 빛나게 하고 불운을 나누고 분담함으로써 더 가볍게 해 준다네.[26]

키케로에 의하면, 우정은 지혜로운(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라일리우스〉…… 진정한 우정은 인척 관계보다 더 힘이 있네. 인척 관계는 선의(善意) 없이 존재해도 우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네. 우정에서 선의가 빠지면 우정이라 할 수 없지만, 인척 관계는 선의가 빠져도 존속하니까 말이네. 우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게 해준 것은 자연이 인간들 사이에 맺어준 인연은 무척이나 많음에 비해, 우정이라는 것은 호감에서 그것들을 모두 능가할 뿐더러 선택적이고 한정적이어서 단지 두 사람 또는 그보다 조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맺어진다는 사실이네.[27]

키케로의 언설에 따르면, 우정은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

25 *Ibid.*, 5, 17.
26 *Ibid.*, 6, 22.
27 *Ibid.*, 5, 19-20.

그 기원은 오히려 더 오래되고 더 아름답고 더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닐까? 우정이라는 말은 사랑(amor)에서 파생하였는데, 사랑이란 이해관계를 떠나 선의를 맺어주는 것이 아닌가. 우정을 가장하여 누군가에게 아부하고 순간의 필요 때문에 경의를 표함으로써 가끔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 그러나 진정한 우정에는 가짜와 가장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진짜이고 자발적이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우정은 필요보다는 우리의 본성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는 계산보다는 사랑의 감정과 결합된 호감에서 비롯된 것 같네.[28]

키케로에 따르면, 우정에는 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덕 없이 우정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우정은 찬란한 미덕이 빛을 내뿜고 유사한 성질의 영혼이 그것에 애착심을 느낄 때 맺어지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사랑이 싹트기 마련일세.[29]

키케로에 의하면, 덕이 동반된 우정은 행복을 유발한다.

우정이 온갖 방종과 범죄를 향해 문을 열어두었다고 믿는 자들은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네. 자연이 우리에게 우정을 준 것은 악덕의 동반자가 아니라 미덕의 조력자가 되라는 것이었네. 미덕은 혼자서는 최고 목표에 이를 수 없고, 다른 동반자와 결합할 때 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 만약 사람들 사이에 그런 협력 관계가 있었거나 있을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의 최고선에 이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최선의 동반자 관계로 간주되어야

28 *Ibid.*, 8, 26-27.
29 *Ibid.*, 14, 48.

> 할 걸세. 내 이르노니, 그런 종류의 우정이야말로 인간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 명예, 영광, 마음의 평정, 쾌활함을 내포하고 있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네. 행복은 우리의 최고 최선의 목표일세.[30]

키케로에 따르면, 덕이 내재된 이 우정의 중요 특징 중 하나는 서로에게 솔직하다는 점이다. 진실이 있어 우정은 참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키케로는 참다운 우정의 지속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정의 으뜸가는 규칙' 을 제시한다.

> 친구들에게 옳지 못한 것은 요구하지 말 것이며, 친구들을 위하여 옳은 것만 행하되 부탁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게나. 항상 돕겠다는 열성을 보이고 꾸물대지 말게나.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충고해야 하네.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가 하는 말을 항상 귀담아 듣도록 하게나. 자네가 충고할 때는 영향력을 발휘하되 친구로서 솔직히,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엄하게 충고하게나. 그리고 자네가 엄한 충고를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되 충고받은 대로 행하게나.[32]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정에 관한 키케로의 담론은 덕이 동반된 우정이 행복의 절대적 요인이라는 귀착점에 달한다. 그 우정 안에서 본성이 향

30 *Ibid.*, 22, 83-84.

31 *Ibid.*, 25, 91-92. 키케로에 따르면, 참된 우정의 태도는 솔직한 태도로 상대에게 충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한 마음으로 친구의 그 충고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아첨과 가장은 우정을 파괴한다. 웃음을 짓고 달콤한 말을 하는 친구보다는 적과 같이 쓴 말을 할 수 있는 이가 우정을 더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 쓴 말을 하는 이는 진실을 말하는 반면, 달콤한 말을 하는 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32 *Ibid.*, 13, 44.

하는 지고의 선을 따르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얻으려면 덕을 닦아야 함을 강조했다. 덕이 없이는 참다운 우정이나 다른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없고, 동시에 덕은 참된 우정을 결속시켜 주고 지속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정에 관한 키케로의 담론은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우정론의 종합체(synthesis)로서, 덕을 기반으로 한 우정의 행복론이라 사료된다.

3. 어거스틴의 저작에서의 우정에 대한 용례

어거스틴에게 있어 우정과 친구는 항상 중요한 것이었다. 어거스틴은 그의 주요 저작 곳곳에서 우정과 관련한 그의 입장과 감상을 피력했다. 마루(Henri Irénée Marrou)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우정론은 매우 인격주의적(personalistic)이다. 어거스틴은 둘 또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우정뿐만 아니라 우주적, 보편적 우정(Universal Friendship)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33]

어거스틴은 그의 초기 저작인《아카데미학파 논박》(*Contra Academicos*, 386년)에서 우정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우정은 아주 정의롭고 경건한 것' (quite rightly and piously)이라는 키케로의 정의를 인용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정이란 인간사와 신적인 사물에 마음을 함께함이며, 그것이 호의를 낳는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덕은 역시 우정을 이룸에 있어 친밀감,

33 Henri Irénée Marrou, *The Resurrection and Saint Augustine's Theology of Human Values*, tr. by Mother M. Consoata (Villanova: Villanova University Press, 1966), 29. 보편적 우정의 개념은《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의 격렬한 다량의 표현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정이 실효적(실제적)으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 빠뜨려진 것을 인식하는 내용들이다.

성실성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견지한 우정에 관한 사상을 계승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회심한 어거스틴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우정에 관한 사상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인간의 측면에서만 다룬다고 비판했다. 우정의 성립과 지속이 인간적인 덕에만 의지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안에서 선 의지와 애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실천적 삶" 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강조했다.[34]

어거스틴의 《복된 삶》(*De Beata Vita*, 386년)에 따르면, 우정은 '겸손함의 선함' 이 없으면 어렵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이는 다른 이들의 한계를 보고 비웃지 않는다. 더불어서 사람이 겸손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어거스틴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왜곡된 질투의 감정 없이 친구의 선한 모습을 닮으려 애쓴다. 어거스틴이 절제의 덕을 일컬어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덕목이고 모든 덕목들의 어머니다"[35]라고 선언한 배경이다. 절제는 겸손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우정을 논함에 있어 절제의 덕과 긴밀한 연관성을 논한 것 역시 고전 철학자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절제의 덕을 하나님을 위한 절제로 논의를 확장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숙할 수 있고 잘못된 열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절제가 없으면 삶의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이 하나님을 위한 절제로 인해 자신의

34 Augustine, *Against the Academics*, 3. 6. 13, Johannes Quasten, Walter J. Burghardt, Thomas C. Lawler, ed.,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12 (New York: Newman Press, 1978). 이하 *Ancient Christian Writers*는 *ACW*.로 함.

35 Augustine, *De Beata Vita*, II. 8, Ruth A. Brown tr., *A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leveland: John T. Zubal, Inc., 1984).

삶이 중심을 잡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36] 훗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복된 삶》의 그 논점을 다시 상기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했다.[37]

> 나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당신의 크신 자비에만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명하여 절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절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알게 된 것도 지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제로 인하여 분산된 우리 자신들이 거두어 모아져서 본래의 하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38]

어거스틴은 《독백》(*Soliloquies*, 386년)에서,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동시에 지혜를 얻을 친구를 찾는다.

> 이성 : 하지만 묻겠는데, 왜 당신은 친구들이 살아 있는 것과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나요?
>
> 어거스틴 :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 영혼과 하나님 앎을 함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이 발견하면 그것을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39]

어거스틴은 《질서론》(*De Ordine*, 386년)에서, 모든 마음을 기울여 덕스

36 *De Beata Vita*, IV, 31.

37 *Conf.*, X, 29, 40.

38 *Conf.*, 10. 29. 40.

러운 사람을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한다.[40] 어거스틴의 우정 담론과 연관하여《질서론》을 주목하는 것은 그의 우정론의 기본 출발점인 사랑의 질서의 가치에 대해 집중적 거론을 하기 때문이다.[41] 로버츠(David E. Roberts)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문제를 다룬《질서론》은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9년 동안 찾았던 악의 근원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42]《질서론》에 의하면, 악의 문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우주론적인 생각은 악을 하나님의 창조물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것도 아닌, 일시적인 것 곧 시작이 있는 현상으로서 인간 존재 안에서 소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 강자와 약자, 승리

39 Augustine, *Soliloquies*, 1. 12. 20, *NPNF.*, Vol., VII.

40《하나님의 도성》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덕은 '올바르게 질서 잡혀 있는 사랑의 질서' 이다. Augustine, *The City of God*, XV. 22, Philip Schaff,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886). 이하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는 *NPNF.*라고 한다.

41 기베트(R. Douglas Geivett)에 의하면,《질서론》에서 하나님의 섭리론에 입각한 어거스틴의 악에 대한 논의는, 도덕적 악의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주의 무질서로써 악을 고찰하는 데 집중된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도덕적 악의 문제는 자유의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R. Douglas Geivett, *Evil and the Evidence for Go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11-12.

42《고백록》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에 마니교에 끌렸던 것은 마니교가 악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답을 제공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Conf.*, III. 7. 12). 마니교를 통해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해답은 이원론이었다. 마니교에서의 이 세계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의 전장(戰場)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마니교의 세계 속에서, 어거스틴은 악의 원리 작용에 불멸성을 부여함으로써, 악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았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이 마니교와 절연한 후, 그가 마니교에 빠졌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마니교의 악의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극복해야 했다. 마니교에서 벗어난 어거스틴이 마니교로 인해 악의 문제에 대해 가져야 했던 딜레마는 바로 악이 실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능하시지 않거나 악을 원하시게 된다는 문제였다. David E. Roberts, "초기 저술들",《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130.

자와 패배자가 있고, 동시에 그 속에 자연의 질서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악의 문제도 전체적인 조화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해결된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한다.[43]

'프라이스' (Richard Price)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사랑과 질서는 선이고 무질서는 질서의 반대 개념으로서 악이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행복은 선이고, 질서이다. 무질서가 행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랑의 질서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행복을 소유함에 있어 전제가 된다. 덕은 사랑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곧 행복 자체이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자 행복 자체이며, 최고선이다.[44]

어거스틴은《마니교도의 습속》(*De Moribus Manichaeans*, 388년)에서, 373년경 그가 마니교의 청종자로 머물 당시 호라티우스(Horatius)라는 친구와 특별한 우정 관계에 있었음을 예로 든다.[45] 그런데 391-392년에 집필한《신앙의 유익함》(*De utilitate credendi*, 391–392년)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그 호라티우스와 가까운 친구 관계를 지속하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호라티우스를 찾기보다 도리어《신앙의 유익함》이라 불리는 그의 글을 쓰기 위해 주님의 교회로 회심하도록 힘을 썼다.[46] 그러면서도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흠모는 계속된다.

43 Augustine, De Ordine, II. 4. 12, Albert C. Outler, e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5).
어거스틴의《질서론》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질서의 문제로 이해되고, 인간이 질서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이성이라는 두 지침에 의해서이다. Ord., II. 9. 26.

44 Richard Price, *Augustine: Great Christian Thinkers* (London: Liguori Publications 1996), 77.

45 Augustine, *On the Morals of the Manichaeans*, XIX, 1, NPNF., Vol., IV.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의 친구 호라티우스는 그 이전의 문화적 배경(the former' s cultural background), 그의 독립적 영혼(his independent spirit), 그리고 영민한 마음(keen mind)을 소유한 자였다.

우정에는 이성으로도 확실하게 밝힐 수 없는 신비로운 무엇이 있다. 만일 우정에 형언 못할 이 요소가 없다면 아마도 우정 자체가 없는지도 모른다.[47]

어거스틴은 《가톨릭교회의 습속》(*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388년)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 미덕의 형태로 강조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부패되지 않은 절제(temperance)의 사랑,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용기(fortitude)의 사랑, 섬김으로 인간에게 종속하는 다른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정의(justice)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는데 삼가야 할 것과 도모해야 할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는 신중(prudence)의 사랑.[48]

어거스틴은 《마니교도를 논박하는 창세기들》(*Two Books On Genesis Against the Manichees*, 388-390년)에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49]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우정' (Friendship with God)이란 말을 썼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도덕적 노력의 부산물로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생각했다.[50] 그러나 훗날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과의 우정은 은총으로 여겨져야 하며 하나님 자신이 그의 우정(친구 됨)을 수여(授與)하신다고 설파했다.[51] 어거스틴은 우정을,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일시적인 것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관지었다.

46 Augustine, *On the Profit of Believing*, 1-2, *NPNF.*, Vol., III.

47 *On the Profit of Believing*, 10.

48 Augustine,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XV. 25, *NPNF.*, Vol. IV.

49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 33:11).

우정과 하나님의 은총을 연관시켜 이해하는 어거스틴의 담론은 그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꽃이 핀다. 《하나님의 도성》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지혜를 공유하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원초적 정의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우주가 가장 크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우리는 우주의 존재는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계심은 믿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증인은 아직 없다. 거기서 선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고 말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선지자는 현장에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 거기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잠 8:27), 이 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또 이 지혜는 거룩한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와 대변자로 만들며, 자기가 한 일을 소리 없이 알려준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며(마 18:10)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거룩한 영혼들에게 말한다. 이런 영혼들 중의 하나였던 선지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하며 또 글로 쓴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설복하기에 합당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그는 또한 우리들이 가지게 될 믿음을 오래전에 말했다.[52]

50 Augustine, *Saint Augustine on Genesis: Two Books on Genesis Against the Manichees*, 1. 2. 4, Roland J. Teske, tr., *The Fathers of the Church*, Vol., 84 (Washington, D. C.: Catholic University Press, 2001).

51 Augustine, *Sermons*, 335. 2, Edmund Hill O.P. tr., *Sermons: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Philadelphia: New City Press, 1994).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a*, 397년)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질서를 잡아주는 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무질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덕이 전제된 사람은 올바르게 질서 잡혀 있어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53] 웨덜(Paul J. Wadell)의 분석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우정 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을 선택하신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은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 더불어서 참된 우정을 나누며, 그 우정 안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계가 없다. 이런 점에서 내가 다른 이를 찾아서 만남을 이루는 것 또한 나의 계산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것이다.[54]

《고백록》은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의 보고(寶庫)이다. 모네이글(John F. Monagle)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에 품었던 우정의 일화를 소개함에 있어, 세상(세상적인 것들, 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퇴화적인 관점(a pejorative sense)에서 적대적 우정(inimica amicitia)의 형태를 띤다.[55] 어린 시절에 저지른 배 도둑질은 너무 친근하지 않은 우정 때문이었다는 《고백록》의 진술이 그 직접적인 예이다.

> 아! 우정답지 못한 우정이여! 너는 영혼을 이상하게 유혹한 자, 탐욕과 장난의 충동으로 해로운 짓을 갈망하는 자, 자신의 사욕을 차리거나 남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됨을 보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 가자! 그러자!"고 말하면 우리들은 파렴치 못함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56]

52 *The City of God*, XI. 4.

53 어거스틴, 《기독교 교육론》, 1. 22. 20-21, 김종흡 역, 세계 기독교 고전 제 33권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2).

54 Paul. J. Wadell, *Friendship and the Moral Life* (Nor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0), 97.

《고백록》은 그리스도인의 우정에 관해 '형제애를 가진 자애' (fraternal charity)라는 특별한 범주에서도 이야기한다.[57]

> 나는 그때쯤 고향에 돌아가 수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친한 벗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나와 같아 한창 피어나는 청춘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함께 자랐고 학교도 같이 다녔으며 함께 놀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나와 친한 벗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내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우정이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서로 매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롬 5:5).
>
> 그렇지만 우리의 우정은 달콤한 것으로, 함께 학문을 열심히 추구함에 따라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그를 참 신앙에서 돌이켜 나오게 하여 허구의 이야기나 해로운 미신으로 빠져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형편을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나와 함께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나의 혼은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복수

55 John F. Monagle, "Friendship in St. Augustine' s Biography: Classical Notion of Friendship" , *Augustinian Studies*, Vol., 2(1971), 83. 어거스틴은 우정을 뜻하는 '*amicitia*'를 그리스어 '*philia*'와 동일시한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우정의 개념은 광의적 관점에서 '이해' (comprehension)와 '탈구(脫臼) 교정' 의 뜻이다. 그것은 가족 단위 안에서 가장 근접한 상호 인격적 관계성처럼 물질적(material), 육체적(physical), 심리적, 그리고 사회학적 방편을 포함한다.

56 *Conf.*, II. 9. 17.

57 *Conf.*, IV. 7.

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의 발꿈치를 쫓으시고, 동시에 당신은 자비의 샘으로서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와의-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우정이 싹튼 지 일 년도 못 되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58]

《고백록》에 따르면, 고향의 그 친구는 '내가 알았던 그 생명의 모든 땀보다 내게 대한 땀이 더 큰 것임' 을 알게 한 일 년 뒤에 죽었다. 이 일로 인해 어거스틴은 매우 우울해졌고 수심에 잠겨 그의 고향집이 마치 감옥처럼 여겨졌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그는 '부서지고 피 흘리는 혼' (soul all broken and bleeding)과 함께 그의 고향을 떠났다.[59]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거스틴은 우정을 퇴화적이거나 또는 고양된 감각 안에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정의 개념을 '우정과 애정의 일치' (the union of friendship and affection)의 차원으로 상호 변환시켰다.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하나님의 도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려고(마 19: 19) 하는 자를 선의(善意)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마음씨를 성경에서는 보통 카리타스(*caritas*)라고 부르지만 아모르(amor)라고도 한다.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선택될 사람은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가르친다(딛 1:8).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diligis*: diligere의 2인칭 단수, 현재)고 물으셨고, 사도는 "주여 내가 사랑하는(amor: 동사 *amaredml* 1인칭 단수, 현재)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

58 *Conf.*, IV. 4. 7.
59 *Conf.*, IV. 7. 12.

했다(요 21:15-17).

내가 이 점을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diligere' 의 명사형인 'dilectio' 와 'caritas' 는 'amor' 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속 문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다만 그들이 그런 구별을 해야 하는지, 어떤 원칙을 두고 하는지를 나는 철학자들의 결정에 맡긴다. 하여간 선한 일에 관해서나 하나님을 향할 때에 'amor' 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그들의 저서에서 충분히 증언한다. 나는 우리가 다른 모든 서적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믿는 우리의 성경이 'dilectio' 와 'caritas' 를 'amor' 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60]

384년에 밀라노에 온 어거스틴은 그 지역의 모범 수사학 교수였던 베레쿤두스(Verecundus)와의 우정을 증진시켰다.[61] 그 우정은 씨가 뿌려졌고 결합되어 상호 간에 유용하고 즐거운 관계성으로 익어 갔다. 어거스틴과 베레쿤두스의 우정은 그가 세례를 받기 위해 카시키아쿰(Cassiciacum)에서 인퇴(引退)를 갖던 시기[62]뿐만 아니라, 최후 와병 중에 베레쿤두스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이다. 비록 어거스틴이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베레쿤데스와의 우정을 보물처럼 움켜잡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회심을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처럼 어거스틴에게 있어 우정과 관련된 긴장이 회심 때까지 존재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베레쿤두스는 근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단단히 묶어 놓고 있었던 쇠사슬 때문에 우리와의 우정

60 Augustine, *The City of God*, XIV. 7,
61 *Conf.*, V. 3. 5-6.

관계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내는 충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아내에게 묶여 있어서 우리가 걷기 시작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상태대로 기독교인이 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친절히 우리에게 자기의 별장을 제공해 주어 그곳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그에게 이미 의인의 몫으로 상 주신 것을 보니 미래에 있을 의인의 부활 때 당신께서는 그에게 꼭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63]

회심한 어거스틴은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공통적 사랑 안에(in the common love of God)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우정은 참되지 않고 덕스러운 것이 아님을 확신하였다.

진정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덕성도 없다. 신체에 대한 영혼의 지배와 악습에 대한 이성의 지배가 훌륭하듯이, 그 영혼과 이성이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신체와 죄악에 대한 올바른 권위가 없다.[64]

62 어거스틴에 따르면, 자신의 친구인 베레쿤두스는 밀라노의 수사학 문법학자였다. 베르쿤두스가 어거스틴에게 카시키아쿰의 자기 별장을 사용하도록 빌려줄 때 그는 아직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아내는 충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베레쿤두스는 397년 어거스틴이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병중에서 세례 받고 그 후 세상을 떠났다. *Conf.*, IX. 3. 5.; 어거스틴의 카시키아쿰으로의 인퇴는 386년 9월부터 387년 3월 초 사이에 있었다. 카시키아쿰에서 어거스틴과 함께 기거하며 토론하였던 자는 어거스틴과 모니카, 어거스틴의 아들 아데오다투스(Adeodatus), 알리피우스, 두 제자 리켄티우스(Licentius)와 트리게티우스(Trygetius) 등이었다. 데이비드 로버츠(David E. Roberts)에 따르면, 카시키아쿰에서의 토론이 386년 11월 10-12일과 19-21일에 있었던《아카데미학파 논박》, 11월 13-15일에 있었던《복된 삶》, 11월 16-18일이나 19-21일에 있었던《질서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David E. Roberts, *op. cit.*, 122.

63 *Conf.*, V. 3. 5.

실로 어거스틴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참다운 우정의 저자이자 참고점이시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에 멈추지 않고 우정에 관한 그의 담론을 우리의 중재자이자 평화이신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관계성으로 견인한다.

우리는 외적으로든지 내적으로든지 그리스어로 '라트레이아'(*Λατρεια*)라 부르는 예배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서든지 모두 함께든지 전부 그분께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각 개인에게와 조화로운 전체에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친구들을 현명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하여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분(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해야 한다.[65]

우정이란 사랑이라는 말에서 오는 것으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실함을 보장받는 것이다.[66]

《고백록》 저술 이후의 저작에서, 어거스틴은 우정보다는 '사랑'(charity)[67]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는 경향을 띤다. 우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렬히 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약간 주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매력(끌림)이나 유사점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아니카 팔토니아 프로바'(Anica Faltonia Proba)라는 미망인

64 *The City of God*, XIX, 25.

65 *The City of God*, X, 3.

66 Augustine, *A Treatise Against Two Letters of the Pelagians*, 1. 1, *NPNF.*, Vol., V.

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우정은 너무나 좁은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정은 사랑하는 모든 자와 친절한 호의를 품은 자에게 마땅한 것으로서, 비록 그 마음이 이들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자 해도 사랑은 다른 이에게 좀 더 신중하게 한다. 이 점을 우리의 원수들에게로 확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68]

어거스틴이 그의 생애 후반기에 이르러 우정보다 사랑을 자주 언급한다고 하여 우정에 대한 그의 관심과 강조가 결코 감소한 것이 아니었다. 어거스틴은《입문자 교리 교육》(*Instructing Beginners in Faith*, 400년)에서 좋은 친구와의 관계성 구축을 강력히 피력한다.

> 나는 호감이 가는 친구보다도 현명한 친구를 두고 싶다.[69]

또한 어거스틴은《입문자 교리 교육》에서 그 우정을 소중히 여길 것을 역설했다.

> 우정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 편에서 사랑이 없음을 보고도 시비를 않는 벗, 우리 사랑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에 못 미치는 벗을 배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70]

67 비검과 몰리겐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카리타스가 그 핵심이다. 카리타스는 용어의 관례상 자비(charity)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흔히 '사랑' 으로 부른다. Thomas J. Bigham, Albert T. Mollegen,《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437.

68 Augustine, *Letters of St. Augustine*, 130. 6. 13, *NPNF.*, Vol., I.

69 Augustine, *Instructing Beginners in Faith*, 9, Raymond Canning, tr. (Philadelphia: New City Press, 2006).

70 *Instructing Beginners in Faith*, 4.

어거스틴은《창세기 축자 해석》(*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401-415년)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 를 모티프로 삼아 잘못된 우정의 치명성에 대해 경계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아담은 하와를 어린아이를 얻기 위한 목적의 '돕는 배필' 로 여겼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우정과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어 주를 배반하게 하는 '호전적 애정' (a martial affection)이 존재하였다. 그들이 이 호전적 애정을 따랐을 때, 재앙의 결과가 찾아왔다. 아담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인 아내를 부정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했다. 교만과 함께한 그 불순종은 인간 종족의 습관적 표지가 되었다.[71] 리스트(John M. Rist)에 따르면, 이 경우에서와 같이 '호의적 우정' (*amicalis benevolentia*)의 타락은 인류에게 거의 치명적인 것이다.[72]

어거스틴은《삼위일체론》(*On The Trinity*, 400-416년)[73]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우정 안에서 한마음이 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선언한다.[74] 나아가 어거스틴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75]은 우정의 상태를 복원시키신다.

> (삼위일체 하나님은)친구처럼 그렇게 관계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

71 Augustine, *The Literal Meaning of Genesis*, 11. 42. 59. ACW., 42.

72 John M. Rist, *Augustine: Ancient thought baptiz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78.

73 이종성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삼위일체론은 초대 교회가 약 400년에 걸쳐 논쟁을 거듭한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을 종합하여 가장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며 정통적 삼위일체 신앙을 체계화한 불후의 명작이다. 어거스틴은 그의《삼위일체론》I. 2. 4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성가시게 요구해 온 다음의 사실을 밝힐 것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실체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이다." 이종성,《삼위일체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264.

74 Augustine, *On The Trinity*, VI. 1. 17, *NPNF.*, Vol., III.

자 존재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가 한 친구라고 부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76]

린하르트(Joseph T. Lienhard)의 분석에 의하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우정은 하나의 사건(accident)이기에 하나님에 의해 입각되지(predicated)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삼위일체론》에서 '성령의 잉태'를 아버지와 아들의 우정으로 볼 수 있음을 허용한다.[77]

나아가 어거스틴은《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우정에 관한 그의 관심과 진정성을 쉬지 않고 표명한다.

내일이면 원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다면, 결코 친구로 사랑할

75《하나님의 도성》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수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선포한다. 즉 아버지가 말씀을 낳았다. 그것은 지혜다. 그것에 의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아버지와 동등하다. 지고선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영이다. 그 자체가 다른 두 부분과 함께 실체를 같이하고 영원토록 함께 존재한다. 이 전체가 한 삼위일체론을 형성한다. 그 이유는 위격(Person)의 개별성 때문이다.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할할 수 없는 한 신적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다. 다 같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 전능이 분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한다. 그 세 분을 함께 말할 때 세 분의 하나님이라든가 세 분의 전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 이 세 분의 한 분 한 분의 분할할 수 없는 통일이 너무나도 위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의 것인지 아들의 것인지, 그 두 분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다. 즉 그는 두 분의 성성(聖性)이다. 그가 단지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신적 실체다. 삼위일체 안에서 제3의 위격(位格)이다." *The City of God*, XI. 24.

76 *On The Trinity*, V. 16. 17.

77 *The City of God*, VII. 6. 11. Joseph T. Lienhard, "Friendship",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Allen D. Fitzgerald,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99), 373에서 재인용.

수 없는 것이며 그에게 성실할 수도 없다.[78]

정말 용기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가짜 친구를 알아보는 현명함을 갖춘 치밀한 사람도, 자신이 선령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이 아예 당초부터 우정을 가장했거나 아니면 본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가짜 친구가 되어 버린 경우이거나 간에,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79]

현세에는 자칫하면 원수를 친구로 알고 친구를 원수로 믿게 된다. 그토록 괴로움이 많은 인간 사회에서, 진실하고 선량한 친구들의 신실한 믿음과 상호간의 사랑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근심은 커지기만 한다. 혹시나 무슨 해코지가 친구에게 닥치지나 않을까, 세상에 가득한 사악에 놀라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 이런 괴로움을 욕하고 싶거든, 그럴 엄두가 나거든 우정 어린 대화로 욕해 보라. 우애의 감정을 건드리고 파괴해 보라. 우정에서 아무런 감흥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법으로 금해 보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금하는 일이 도대체 가능치 않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괴로움, 일종의 상처, 마음의 생채기가 나으려면 보드랍고도 위안을 주는 섬세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80]

어거스틴이《하나님의 도성》말미에서 그가 그토록 선망하며 추구하여 온 우정에 대해 내린 정의는 너무나 고전적이고 매력적이다.

78 *The City of God*, XII. 21. 2.

79 *Ibid*., XIX. 5.

80 *Ibid*., XIX. 8.

우정은 '꾸밈없는 믿음과 선하고 진실한 친구들 사이의 상호적 사랑 이외에 허물과 어려움이 많은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 (What consoles us in his human society, so full errors and hardship, except unfeigned faith and the mutual love of good and true friends)이다.[81]

4.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에 함유된 암시

이상에서 어거스틴의 주요 저작에서의 우정에 관한 용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에 함유된 신학적 암시는 무엇일까?

1) 《고백록》을 전후한 우정 담론의 성격 변화

린하르트에 따르면,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우정의 질적 차원에서 두 시기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카시키아쿰의 인퇴(引退) 시에서 《고백록》 집필 때(397-400년)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고백록》 저술에서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이다. 어느 경우이든 우정은 항상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연민(공감)의 끈' (the bond that unites two persons in mutual sympathy)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그 '끈으로서의 우정' 의 근원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는 《고백록》 집필을 전후하여 질적 차이를 띤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적 동조(지지, 공감)를 우정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서는 은혜를 통한 성령의 선물이 우정의 근원이라고 어거스틴은 이해했다.[82]

린하르트가 지적한 바, 《고백록》을 중심으로 한 어거스틴의 우정 담론

81 *The City of God*, XIX. 8.

의 중심적 성격의 변화는 그의 신학적 성숙과 발전의 궤와 같이한다. 곧 어거스틴은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철학의 범주에서 논해진 우정론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계승하는 연장선상에 선다. 그렇지만 그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후 집필한 《고백록》을 정점으로 하여 우정에 대한 그의 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조망된다. 이는 어거스틴이 철학적 수사학자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사는 성숙한 신앙인이자 신학자로서의 발전과 성숙을 이룬, 인격적 회심을 한 신앙인임을 드러낸다고 판단된다.

2) 신학적 우정론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그리스 로마 고전 철학자들이 강조한 덕 사상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에 머물지 않고 그의 우정론을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까지 견인한다.

질송(E. H. Gilson)에 따르면, 어거스틴에게 있어 인간의 사랑에는 결코 위안이 없다. 도리어 그 사랑에 위안을 내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서로에 대한 애정에 상호성이 있을 때 그것은 사랑의 기초가 됨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에 있다.[83]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람을 그 자신을 위해서 사랑할 것인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82 Joseph T. Lienhard, *op. cit.*, 372.

83 Etienne. H. Gilson, *The Christian Philosophy of St. Augustine* (New York: Random House, 1960), 135.

다……. 이 문제를 분명히 볼 때, 아무튼 자신을 기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즐김의 진정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사람은 그 생활 자체가 영원 불변하는 생명을 향하여 가는 여행이 되며, 그 심정이 전적으로 이 일에 집중될 때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84]

이상에서 이미 강력하게 피력된 바, 사랑에 관한 어거스틴의 기본 생각은 인간이 진정으로 향유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밝힌다.

만일 사람들이 너를 즐겁게 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변하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확고하여 요동하지 않는다.[85]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만을 참다운 목적으로서 사랑(*frui*)해야 하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에 대해서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uti*)해야 한다. 나아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웃을 목적으로 사랑하면서도 더 고차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종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상적인 존재에 대한 사랑은 욕망(*cupiditas*)이지 진정한 사랑(*caritas*)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amor Dei*)이 진정한 사랑(*caritas*)이고 이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 진정한 형제애로서의 우정이다.

밥콕(William S. Babcock)의 분석에 따르면, '*caritas*' 와 '*cupiditas*' 는

84 《기독교 교육론》, 1. 22. 20-21.

85 *Conf.*, IV. 12. 18.

'무엇인가(something)에 대한 사랑' 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caritas*' 와 '*cupiditas*' 는 그 '사랑의 대상(objects)이 다르다' 는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는 '영원한 것' 대(對) '한시적인 것' , '상실되지 않는 것' 대 '상실되는 것' 의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기에 '*caritas*' 는 '완성된 사랑' (love fulfilled)이고, '*cupiditas*' 는 '미완성의 사랑' (love unfilled)이다.[86]

결국 어거스틴에게 있어 사랑의 질서를 잡아주는 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무질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덕이 전제된 사람은 올바르게 질서가 잡혀 있어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더욱이 하나님이 중심 되어 있지 않은 우정은 지속될 수 없다. 참된 우정을 나누며 그 우정 안에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정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우정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유발되고 견지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어거스틴의 담론은 '카리타스 사랑론' 으로 집약되는 신학적 우정론이라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우정의 신적 기원을 해명한 신학자라 평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로 이어지는 제 철학자들의 덕을 중심으로 한 우정론을 계승하는 선상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제 철학자들의 우정에

86 William S. Babcock, "Augustine on Sin and Moral Agency," William S. Babcock. ed. *The Ethics of St. Augustine* (Atlanta, Georgia: Scholars Press, 1991), 44-49.

관한 철학적 담론에 대한 재해석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다.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정에 관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사상을 그의 영혼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총의 조명 아래 여과시켜 이를 신학적 우정론으로 개진시키고 승화시켰다. 어거스틴은 덕으로서의 우정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서의 우정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우정에 대한 고전 철학의 형이상학적 재검토의 범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하는 카리타스의 사랑 안으로 깊게 뿌리 내린다.

어거스틴에게 있어 참다운 우정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형성된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지혜를 공유하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원초적 정의의 상태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에 있는 견지에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정에 관한 어거스틴의 담론은 철저히 신학적이다. 더불어서 '우정은 꾸밈없는 믿음과 선하고 진실한 친구들 사이의 상호적 사랑 이외에 허물과 어려움이 많은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 이라는 어거스틴의 견해는 너무나 황량한 세상살이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우정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함을 강력히 일깨운다는 점에서 참으로 인간학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어거스틴이 일생에 걸쳐 추구하고 펼쳐온 우정의 세계는 인간적 당위성으로서 행해야 할 덕으로 출발하여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따라서 참다운 우정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귀한 보물이라 사료된다.

군선교신학 제10권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 김상만 _ 군선교연구위원, 정책전문위원
■ 김택조 _ 연합사 군종장교
■ 이정우 _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학처장

1. 서론

1) 연구동기

지난 2012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필자들은 호주를 방문하였다. 주요 일정은 호주 국방부 각 군 군종실 방문과 호주연합교회 제13회 총회 참석이었다. 군종목사 차원에서의 호주 국방부 방문은 처음이었다. 캔버라에 있는 국방부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 육군군종감실과 해군 군종감실을 방문하였고, 점심에는 각 군 군종감들과 호주 군종학교장과 군종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모임을 겸한 식사를 하였다. 오후에는 공군 군종감실 방문에 이어서 캔버라와 멜버른 사이 앨버리에 위치한

호주 군종학교의 학교장과 실무자가 직접 호주 국방부로 와서 군종학교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주연합교회는 매 3년마다 전국총회를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호주 아델라이드 시에서 "풍성한 삶(요 10:10)"이라는 주제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이번 제 13차 호주연합총회에는 필자들이 속한 교단 총회장을 비롯하여 총회 관계자들과 호주교회 초기선교지역이었던 부산경남 대표 20명, 부산 일신병원 대표 8명, 대한 감리회 대표 태동하 목사를 포함하여 2명, 한국기독교장로회 유정성 총회장을 비롯하여 2명 등 총 35명이 참석하였다.[1]

짧은 방문 기간이었지만 호주 방문과 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함께 동역하는 군종목사를 비롯해서 군선교 관계자들을 위해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 필자들이 체득한 호주군의 군종활동과 호주연합교회의 군선교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발전적 상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본 소고를 통해 발전적 전망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미 동기에서 밝혔듯이 호주 군과 민간의 군선교 영역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혈맹관계인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캐나다 위주의 군종 이해를 넘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호주 군선교 전반을 이해함으로써 군종활동의 폭을 넓히고, 해외 군선교 정책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호주는 군과 교회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2] 1889년 호주 장로교에서 첫 선교사인 데이비스[3]가 복음을 전하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이야기〉 (서울:한국장로회출판사 2012), 346

순교한 이후 120여 년 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에 파송된 호주 선교 동역자인 양명득 목사를 포함해서 총 127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이제는 선교 동역자로 한국에서 복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순직 호주 선교사만 8명이다.[4] 또한 군 차원에서 볼 때 호주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이다. 한국전쟁 당시 두 번째로 파병을 결정하고 1만 7천 명의 병력을 보냈을 뿐 아니라 그 중 340명이 전쟁에서 희생하였다. 그들이 쏟은 헌신과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상호 협력과 교류가 민간 차원뿐만 아니라 군 차원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고자 한다. 1장에서는 연구동기 및 목적, 그리고 제한점을 밝힌다. 2장에서는 호주 군종현황과 군종학교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호주연합교회와 군선교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4장에서는 결론으로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군종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미래적 전망으로 군내 전망, 민간 전망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3인의 공동 작업이다. 따라서 3가지 개인적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방문기간 전후로 시간을 내어 함께 토론하였다.

[2] 양명득, "한국 선교와 호주연합교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회>, 149

[3] 존 브라운, 〈은혜의 증인들〉, (서울:한국장로회출판사 2009). 이 책은 호주 선교사 존 브라운 목사가 데이비스 첫 선교사를 포함하여 호주에서 파송한 126명의 선교사역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Ibid.*, 270. 순직 호주 선교사 8명을 위한 묘소와 기념비가 한호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2009년 마산공원묘원에 마련되었다.

둘째,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이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직접대면 뿐만 아니라 서면 질의, 그리고 다양한 책자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기본 동기가 호주 군종정책과 호주 군선교 현황 소개 그리고 미래적 전망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 및 문제제기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2. 호주 군종현황

1) 호주 군종 현황

(1) 병과연혁

호주군은 1911년 호주연방정부에 군종장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912년 성공회 3명, 기독교 2명을 국방장관 승인하에 군종장교로 지명, 결정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군종활동이 군내에서 활성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종장교 숫자가 증가하였다. 육해공군 군종장교 숫자는 120명인데 육군 70여 명, 해군 20여 명, 공군 30명이다.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 120명으로 구성되었다.

특이한 점은 우리 군에 비해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육해공군 군종감이 모두 다 준장이다. 육군은 성공회 신부가, 해군은 천주교 신부가 그리고 공군은 기독교 목사가 보직을 맡고 있다. 육군 군종감인 조프리 클라우드 웹 성공회 신부는 2010년에 취임했다. 고대근동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해군 군종감은 터트 러셀 홀 신부였다. 멜본 태생인 군종신부는 1987년 신부 서품을 받고 1991년에 입대하였다. 2011년 군종감으로 취임하였다. 공군 군종감은 머레이 디 얼 호주연합교회 목사이다. 2008년에 공군 군종감이 되었다. 군

별 종교별 배분을 하고 있다. 모두 다 자신이 속한 군을 대변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종단을 대표하기도 한다. 군을 대표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종단을 대표해서는 종단의 이해관계를 군에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한다.

(2) 군종 업무

호주 군종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종교 업무(Religious Ministry), 종교적 돌봄(Pastoral Care), 인성훈련(Character Training), 행정 및 참모업무(Administration and Staff Duty)이다.[5] 국방부 훈령 제2장 군종 업무 제4조 기본목표 "군종 업무는 종교 활동, 교육 활동, 선도 활동, 대민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6] 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 업무는 종교행사 및 종교의식을 실시하고, 지휘관에 대한 종교활동 및 군종지원 관련 조언을 제공한다. 종교적 돌봄은 병사들의 근무지, 가정, 훈련장, 의무시설을 방문한다. 소위 가족지원팀이라고 해서 군의관,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친교관련 활동가 등과 함께 장병가족 돌봄을 제공한다. 인성훈련은 장병들의 개인 인성계발 및 개인관계 기술 개발, 도덕적 판단 및 행동제어 관련 교육을 한다. 또한 훈련을 통해 부대 내 장병들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 및 인성발전을 도모한다. 행정 및 참모업무는 지휘관의 부하로서 참모로서 행정업무를 한다. 대위 임관을 해서 소령, 중령, 대령을 걸쳐 최종 각 군 1명씩 장군이 있다.

---

5 http://www.defencejobs.gov.au/army/jobs/chaplain/

6 육군 군종목사단, "국방부 훈령", 〈군종활동 관련 규정집〉 2009. 7. 31.

2) 호주 군종학교 현황

(1) 비전 및 임무

우리 군과 같이 군종 교육의 중심센터의 역할로서 야전에서 군종장교가 해야 할 각종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감당한다. 또한 지휘관, 군장병 및 가족들에 대한 종교적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여 군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노련하고 군인자세가 확립된 군종장교를 양성하는 일을 한다. 육해공이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것과 각 군이 요구하는 군종장교 훈련을 병행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개발한다.

(2) 군종학교의 역사

군종장교 훈련은 1920년부터 육군이 먼저 시작하였다. 2001년 육군이 주도하는 교육을 육해공군 통합된 형태로 바꾸었고, 2006년에는 국방 군종장교 대학(Defence Chaplains College, DFCC)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2010년에는 국방 군종장교 대학이 육군에서 분리되어 호주 국방대와 함께 합동 호주 국방 학술원(Joint Australian Defence Force Academy, ASFA)으로 편입 되었다.

(3) 임관 요건

호주 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종교자문위원회[7] 허락, 시민권자, 2년 목회 경험이 필요하다. 지원가능 종단으로는 영국성공회, 천주교, 호주연합교회, 장로교회, 침례교연합교회, 루터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구세군, 유대교이다. 연령은 56세까지 지원 가능하고 정년은 60세

이다. 3년 단위로 심사하여 연임 및 진급을 하게 된다. 호주 군종장교의 초임 임관관 평균연령은 40세에서 45세이다. 최근 해군의 경우 군종장교 지원자가 없어서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종교적 기본 조건을 갖추고 영어가 가능한 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8]

(4) 교육과정[9]

가. 초급과정1(ADF Chaplain Initial Course - MOD 1)

- 교육기간 : 12일
  - 현역(Full-time Chaplains) : 첫 임관 후 12개월 이내 수료해야 함.
  - 예비역(Part-time Chaplains) : 첫 임명 후 24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함.
- 교육목표 : 초임 육해공군 군종장교들이 첫 보직과 파병에서 지원 군종장교 임무 수행을 위해 준비시킴.
- 교육내용
  - 종교적 돌봄, 윤리적, 도덕적 조언
  - 종교행사 실시 및 활성화
  - 교단 군종장교로서의 임무 수행
  - 파병장병에 대한 군종업무 제공
  - 효과적인 행정 및 관리 실시

나. 초급과정2(ADF Chaplain Initial Course - MOD2)

- 교육기간 : 6일

---

7 우리에게 없는 조직. 종교자문위원회 RACS(Religious Advisory Committee to the Service)

8 http://www.defencejobs.gov.au/army/jobs/chaplain/ 군인 직업란에 소개된 내용이다. 참고 바람.

9 연합사 군종장교 소령 김택조 목사가 호주 군종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교육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조식으로 소개한다.

• 교육목표 : 군종장교들의 자살위기 개입 적용과 주요 사고 정신건강 지원 영역에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종장교로 준비시킴.
• 교육내용 :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 초임 현역(Full-time Chaplains) : 초급과정1 후 바로 수료해야 함.
  – 초임 예비역(Part-time Chaplains) : 초급과정1 후 빠른 시일 내에 수료해야 함.

다. 중급과정(ADF Chaplain Intermediate Course)
• 교육기간 : 12일
• 교육목표 : 육해공군의 군종장교들이 상위 계급의 임무와 조정자로서 준비하기 위해 훈련함.
• 교육내용
  – 팀 지도, 관리, 발전 방안 습득
  – 사령부 내 조정 및 협조하는 군종장교의 임무 수행
  – 파병부대 내 조정 및 협조하는 군종장교의 임무 수행

라. 선임과정(ADF Chaplain Senior Course)
• 교육기간 : 5일
• 교육목표 : 중령 군종장교의 대령진급 전 준비 및 역량 강화
• 교육내용
  – 호주군의 선임군종장교 역할 수행
  – 부대 내 군종장교를 지도, 관리 및 발전시키는 리더
  – 전략계획의 발전, 실시와 평가
  – 재정 관리 계획 발전 및 예산관리

마. 장병 인성개발 과정(Character Leadership Course)
• 교육기간 : 5일
• 교육목표 : 신앙원칙의 공부를 통해 장병들의 인성 및 신앙함양을 증진하여 부대에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준비하기 위한 과정임.
• 교육내용
  – 윤리적 결심 과정
  – 리더십
  – 파병장병 리더십

3. 호주 민간현황

1) 호주연합교회

호주연합교회는 성공회와 천주교 다음으로 호주에서 세 번째로 큰 기독교 교단이다.[10] 19세기 초 영국에서 호주로 온 세 개의 교단인 호주회중교회, 호주감리교회, 그리고 호주장로교회가 1977년 6월 22일 연합한 교단이다. 현재는 2,500개 교회이지만 연합 당시 3,500개 교회로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다.[11] 호주장로교회가 연합에 참여함으로 해서 한국과 호주장로교회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호주연합교회의 역사가 된 것이다.[12] 다시 말하면 한호선교 120주년의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호주연합교회가 계승하여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

호주연합교회는 호주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호주연합교회 사회봉사부(Uniting Care)는 호주에서 가장 큰 복지운영 단체이고, 오지선교부(Frontier Service)는 노인복지, 건강과 사회복지, 그리고 시골 지역의 목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체이다.[13] 탄생한 지 30여 년밖에 안 되

어 호주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호주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세 교단이 대화와 조정기간이 있었고 실제로 1901년부터 계속된 조정 실패의 역사를 갖고 있다. 연합기초서(Basis of Union)은 호주연합교회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14]

2) 종교자문위원회(RACS)[15]

천주교, 성공회, 호주연합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구세군, 유대교 등 6개 종교대표가 모인 위원회이다. 군에 종교자문을 하는 단체이다. 2년을 주기로 각 종단 대표가 회장을 수행한다. 현재는 호주연합교회 소속 목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RACS는 종단 대표들이 종단별로 지분을 정하여 군에 군종장교를 선발하여 보내는 데 합의할 뿐만 아니라 병과에 대한 비전과 정책들을 장관과 면담하여 자문을 하기도 한다. 종단들이 함께 의제를 갖고 논의하고 결의되면 군대를 상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이다.

10 앤드류 더트니, "호주연합교회의 소개", 〈호주연합교회와 교회 일치운동〉, 조성기 엮음,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96 저자는 호주 아델라이드파킨 웨슬리대학 학장으로서 2012년 7월 15일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이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이 총회장 임기가 1년인데 비해 호주는 3년이다.

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앞의 책, 126

12 위의 책, "호주장로교회와 한국교회", 25 연합 당시 장로교 일부는 연합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13 앤드류 더트니, 앞의 책, 97

14 위의 책, 16. 최초 1977년 연합 당시 만들어졌는데 1992년 현대적 언어로 재출판되었다.

15 호주연합교회 대표이며 동시에 RACS 현 위원장인 홀(Hall) 목사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4. 미래적 전망

1) 군내 전망

현재 세계 군종병과를 볼 때 미국뿐 아니라 영국, 이스라엘 등 군종병과가 군에 있는 나라는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캐나다 역시 150여 명의 군종장교 수를 갖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다부진 조직과 장군 병과장이 총지휘를 하고 있다.[16] 호주 군종병과는 120여 명의 크기임에도 육해공군 각각 군종병과장이 장군으로 전문성과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상호 공존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이 강하게 배어 있다. 군에서 필요한 것은 한 목소리 즉 연합정신이다. 개체마다 독립적으로 독특성을 확보하며 힘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때로 에큐메니칼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그 때는 연합정신으로 풀어야 한다. 군이 군종병과에 기대하는 것은 선교나 포교가 아니다. 유사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생관 확립이다.[17] 다시 말해 신앙을 통한 무형 전투력 향상이다. 이 신앙 전력화를 위한 군종장교들의 활동은 군선교로 이어진다.

최근 들어 군종병과에 장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 선교나 포교적 관점에서 풀어서는 안 된다. 장병 사생관 확립과 신앙전력이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 풀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캐나다나 호주 병과를 보면서 종교 상호 연합정신의 힘이라고 느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군의 환경 속에서도 병과의 위상과 군내에서 신앙전력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라도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군종 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호주 군종학교의 시스템, 각 과정들, 교육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있

16 이 부분은 대령 이정우 군종학처장의 캐나다 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7 한국군종목사단, 앞의 책 "군종장교의 임무와 사명".

다.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조직면에서 교육내용면에서 특이한 점이 없었다. 하지만 호주가 중립국이기 때문에 해외 파병을 많이 하고 있어서 평화 유지 교육 내용은 특이할 만하였다. 앞으로 이 부분이 호주와 교류하면서 풀어가야 할 미래적 과제라고 본다.

2) 민간 전망

기독교를 대표해서 이제까지 군선교연합회가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호주의 경우 교단을 넘어서 종단끼리 연합하는 종교자문위원회가 있다.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의미 있는 단체라고 생각된다. 캐나다도 유사한 군종시스템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종교자문위원회(Interfaith Committee) 지원과 도움을 크게 받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하는 기독교 전통과 유대교, 이슬람 등 민간 종교인들을 대표로 구성하여 상호 연합을 한다. 역할은 호주 종교자문위원회와 비슷하게 군장종교 지분을 정하고 군종병과 내 모든 종교이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한목소리로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군종정책에 관한 사회적 문제들과 기대 그리고 군종병과장 추천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국방부에 보낸다. 또한 캐나다 종교자문위원회는 신학박사나 전문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여 군에서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군종정책에 반영한다. 즉 전문가들은 종교자문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군장장교들이 보직한 모든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다시 말하면 각 부대 지휘관을 통해 군종병과가 보완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각 부대를 순회하여 군종장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병과의 필요들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것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다.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지만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연합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종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

5. 결론

호주 교회와 한국 교회는 혈맹관계일 뿐만 아니라 120년이 넘는 선교협력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 호주 방문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호관계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해와 협력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호주군의 군종병과의 위상을 파악하게 되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차원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군종병과 발전을 위해 어떤 협력들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필자들이 터득한 내용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계속적인 관계발전을 통해 이어져 갔으면 한다.

호주 방문 마지막 날인 7월 19일 오후에는 군선교연합회 호주지회 창설을 위한 사전 모임을 가졌다. 초대 회장으로 호주 시드니동산교회 황기덕 목사가 선임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호주지회를 통해 보다 더 활발한 상호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더 바라기는 사랑하는 후배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할 뿐 아니라 보다 진일보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헌신했으면 한다.

군선교신학 제10권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김동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Th.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M.A.)
■ 육군 리더십센터 상담학교관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그동안 우리는 장병들을 상담해 오면서 주로 '이 병사의 문제는 무엇인가' 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병사가 무엇을 잘해 오고 있고, 잘하고 있는 점들을 어떻게 더 부각시키고 강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조심스레 강점 발견을 기반으로 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을 새로운 군 상담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강점, 성공 경험, 예외상황)을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는, 단기간 내에 상담 목적을 성취하는 모델이 되겠다. 이 모델은 문제보다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

해 얻기 원하는 바에 초점을 둔다. 즉 문제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바라는, 또는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할 때 내담자는 문제에 깊이 빠져들지 않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오래 머물지 않고 첫회부터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변화를 꿈꾸며, 변화를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예전에 재미 청년이 미국 시사지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선정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청년에 의하면 하루 25분의 선행이 환경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사회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 일회용 칫솔이나 세면도구를 모아 두었다가 노숙자를 위한 시설에 보낸다 등, 일상에서 자질구레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다 살 만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바꾸는 데 원동력이 됨을 몸소 실천하고, 그것도 몇 해 동안 실행해 오고 있었다. 이 청년의 신념은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행에 옮길 때, 그것도 꾸준히 하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떤 일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벌어지고, 어떤 변화 또한 획기적인 것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작은 변화가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 떨어진 가랑잎 하나가 일으킨 파장이 수면 전체의 떨림으로 서서히 번져가는 것처럼 말이다. 학창시절 우리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출발과 어떤 막연한 변화를 기대하는 심정이 되곤 하며, 새로운 출발에 앞서 우리 모두는 또한 내적으로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뭔가를 계획하면서 더 나은 변화를 꿈꾸게 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계획들은 작심 삼일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을 답습하는 자신일 뿐임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변화를 위해 너무 지나치게 거창한 계획을 세워 실행도 하기 전에 질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잡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닌 내 안에 없는 것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원을 활용하여 돌변한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상담 및 심리 분야에서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는 모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합적 형태의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으로,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 활발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며, 어떻게 상담자가 내담자와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 속에서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

모든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현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은 내담자의 변화를 도와주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가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굳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내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변화를 꿈꾸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변화를 바라는 우리에게 이 해결 중심 단기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정은 귀 기울여 볼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모형은 변화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긍정적인 측면 및 문제 해결 측면,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 중심의 대화보다는 해결 중심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문제를 가질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일어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의 원인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소모하는 시간만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문제를 의식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다. 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발명을 낳듯이 말이다. 해결 중심 단기 모델이 전제하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작은 변화는 큰 변화로 이끈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내담자나 일상의 개인에게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새 학기가 되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시도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등등으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고 지속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어떠한가? 계획한 대로 변화를 꿈꾸는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과연 만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때로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너그러운 게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게으르다든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겠다고 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무엇인가를 할 그 날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실행되어질 때 그야말로 언젠가는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군에 새로운 상담의 패러다임으로 강점 발견을 기반으로 한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을 하루속히 전파 및 적용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우리 장병들에게 적절히 제공함은 물론 기독교인으로의 개종 및 성장을 이끄는 도구로서 이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 잘 활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2. 해결 중심 상담

1) 해결 중심 상담의 중심 철학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은 1978년 밀워키의 단기 가족 치료 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드셰이저(de Shazer)와 김인수 부부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모델은 에릭슨(M. H. Erickson)의 영향을 받아,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적응을 교정하려고 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필요없다고 본다. 즉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했던 경험, 강점과 자원 그리고 능력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기보다는 잘된 것과 그 활용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problem)가 아닌 해결(solution)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1]

무엇보다도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내담자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내담자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알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스스로 발견해 낼 수 있다고 본다. 해결 중심 단기 모델의 상담자 역할은 열쇠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내담자가 잠긴 문을 스스로 열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가 목표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성공감을 갖도록 하며, 그 성공감이 내담자의 능력이 되도록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다. 이때, 상담자는 문제 해결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면담 이전의 변화를 묻는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내담자의 성공적 경험을 부각시킨다.[2]

해결 중심 접근은 이처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저항을 낮추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약물 남용 노숙자, 우울증, 성인 정신과 환자, 산모와 어린 자녀,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 등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적용되어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 사회 부적응, 청소년기 문제, 보호 관찰, 교정 시설, 학대 아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성을 확인할 만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3]

이러한 연구들의 관점은 만성 정신질환을 가진 내담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내담자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병리적인 것에서 강점으로의 실천 전환은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망이 없는 사례' 들도 내담자 자신이 정한 목표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삶에서 커다란 향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내담자들이 새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그들의 재능과 자원,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4]

이처럼 내담자들로 하여금 좀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내담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마음속으로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원들을 수집하는 방법

1 P. DeJong & I. K.Berg,《해결을 위한 상담》, 허남순, 노혜련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38-39.

2 최규련,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를 적용한 부부 상담 사례 연구,"〈한국가족치료학회지〉 2권(1994), 17-39.

3 김인수 외, "무엇이 좋아졌습니까?"《해결 중심 치료의 적용》(서울 : 동인, 1998), 66-69.

4 Insoo Kim Berg, Scott D. Miller,《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서울 : 하나의학사, 1995), 29-38.

에서 발전된 것이다. 강점에 기반한 사례 관리가 정신 보건 영역에서 더욱 적용, 발전되면서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와 열망에 초점을 두고,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내담자가 구축하는 것을 돕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단지 내담자들이 목표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내담자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다.[5]

해결 중심 모델은 처음으로 치료에서 '단기' 라는 용어를 사용한 밀튼 에릭슨의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 드셰이저(Steve de Shazer)와 인수 김 버그(Insoo Kim Berg)는 심리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에 단기적으로만 머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치료 초기 해결에 바로 초점을 두고 해결로 이동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해결이란 내담자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의 예외들, 즉 성공의 경험들을 다시 생활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결 중심 모델 역시 강점 발견에서와 같이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버그와 드종(Berg & De Jong, 2002)은 내담자의 강점에 기초하여 작업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 구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은 모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천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이 두 접근은 모두 '내담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 하며, 목표와 해결책이 실천의 중심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에서 상담

5 이영분, "청소년 자녀 문제 치료를 위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권(1995): 180-181.

자들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평가하였으나, 강점 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은 모두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들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담자가 알고 있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지식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다.

둘째, 강점 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은 모두 문제 너머에 있는 내담자가 원하는 삶의 자세한 모습을 탐색하기 위해 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공통점은 강점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 모두 문제가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강점 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은 사람들의 실패와 결함보다는 그들의 능력과 열망에 초점을 둠으로써,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병리적 관점에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해결 중심 모델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상담 기술을 개발하였다.[6]

해결 중심의 상담 기술은 상담하는 동안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에 대한 넓고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유용함에 대한 확신 속에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확대 활용하는 것을 돕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들이 참여를 장려하면 할수록 서비스도 개별화되고, 내담자의 존엄성도 극대화시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즉, 해결 중심 모델

6 John S. Walter & Jane F. Peller, 《단기 가족 치료-해결 중심으로 되어가기》,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서울 : 하나의학사, 1996), 130-137.

7 P. DeJong & I. K. Berg, *op. cit.*, 27-29.

은 현장에서 강점 발견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담자들에게 보다 선명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7]

2) 해결 중심 상담의 기본 원칙

(1) 내담자의 강점 활용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내담자에게 비록 병리를 증명할 만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삶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접근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한다. 샐리비(Saleeby)의 역량 강화에 관한 견해와 이것에 기초한 가정은 전통적 문제 해결 접근과 명백한 대조를 이루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8]

인간은 개인적으로 갖는 흥미와 강점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성장한다. 사람들은 보통 잘하지 못하는 것은 피하고 대신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을 즐기며 의미를 둔다. 그러므로 상담자 중심으로 내담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사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담자 개인과 그 가족의 강점에 대한 탐색에 기초하여 내담자와 함께 결정한 계획을 수립할 때 내담자 체계의 변화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9] 그러므로 오한런과 윌크(O' Hanlon & Wilk, 1987: 132)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8 *Ibid.*

9 *Ibid.*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했던 경험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 기술, 믿음, 동기, 행동, 증상, 사회 관계망, 환경과 개인적인 특성[10]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2) 내담자의 소망에 초점

해결 중심 상담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가정도 하지 않도록 하고 내담자가 느끼는 개별적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어려움에 주목함으로써, 내담자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상담자는 사례 상담에서 내담자와 문제를 논의하고 상담자의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내담자가 수용하도록 납득시키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내담자의 견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의 원함을 잘 경청하는데,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준거틀을 수용하고 그 준거틀 내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준거틀을 배우거나 그것에 적응하도록 기대되었을 뿐, 상담자가 내담자의 준거틀을 수용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려는 접근은 실천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자의 준거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원조 상담자들은 그들을 어렵고 저항

10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활 스타일, 그리고 그들 가정의 문화 등이 상담자의 삶의 경험과 매우 달라도 내담자 경험이 해결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1 김인수 외, "무엇이 좋아졌습니까?"《해결 중심 치료의 적용》(서울 : 동인, 1998), 27-31

12 P. DeJong & I. K. Berg, *op. cit.*, 27-29.

적이며 부정적인 내담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형성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 자신이나 가족 특성에 따른 강점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 이것은 각 내담자 특성에 맞추는 맞춤식의 접근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개개 내담자를 위한 것이 아닌 전통적인 접근의 제한점을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3) 상담자는 내담자의 협력자

내담자의 협력자로 활동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상담자 중심의 접근을 사용하지 않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며,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쌍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내담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용하는 표현과 언어를 통해 그들의 관점과 그들 자신을 이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내담자에게 협력하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그들의 삶의 상담자이자 그들의 삶에 대해 상담자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기 위해 선택하는 표현 방법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내담자들이 상담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려주고 보여준다는 것은 내담자들이 상담자들에게 이미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조금씩 보여주는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의 협력은 필연

13 *Ibid.*

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사이먼(Barbara Levy Simon, 1994)은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개념 안에 "내담자와 가족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을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즉,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그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력에 있어 에너지의 흐름이 쌍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와 협력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내담자를 돕는 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온정주의에 빠진다거나, 내담자를 희생자로 만들거나, 내담자 관점을 선매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협력은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사례 관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담자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가도록 도모한다.[14]

(4) 내담자는 지속적인 배움과 변화의 존재

일반적으로 상담 분야에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자에 의존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존재라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 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체계를 설명하는 데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가족 체계, 항상성, 불변성, 문제 보유 경향성 등과 관련하여 먼저 내담자 가족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런 상태를 어떻게 다른 상태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사례를 이해하고 개입하였다.

이렇듯 내담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 가정하는

14 이인정, 최해경,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 나남, 1995), 41-43.

것과 내담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상담자로 하여금 현재 내담자의 사정이 최악의 상태이며 지금 당장 상담자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더 나아지는 변화들과 더 악화되는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도 반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인간 발달 이론에서도 이제는 내담자를 변화가 가능하며 잠재적인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드 세이저(1985) 역시 변화는 내담자의 삶의 일부여서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담자를 돕는다는 것은 내담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단지 확인하고 그 변화를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작업이다. 월터와 펠러(Walter & Peller, 1992)는 내담자의 삶에서 변화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 상태로 갈 것인가?" 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금 내담자와 그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데 의미 있고 가능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훨씬 쉬운 방법이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15]

비록 내담자가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언급하며 불평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개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루어져야 하며, 그 시작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해결점이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내담자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삶의 원하는 방향을 향해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져 괜찮을 때" 가 있는지와, 그 때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 때를 어떻게 지속하고 확장

15 P. DeJong & I. K. Berg, *op. cit.*, 24-28.

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따라서 변화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은 문제 상황에서도 항상 예외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즉시 상담자가 문제 상황에서도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내담자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어 내담자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노력을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그를 초대하도록 만든다.[16]

(5) 현재 및 미래 지향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강조된다. 내담자에게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보다 그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였던 원인에 대해 묻고 이해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더 깊은 관심을 둔다고 해서 내담자의 과거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내담자의 현재와 미래 삶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므로 내담자를 과거의 삶으로부터 분리할 수는 없다. 상담자가 과거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도 그와 관련한 내담자들이 현재 살아가는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내담자의 과거 정보에 대해 내담자들로부터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거와 문제로부터 가급적 멀리하게 하고, 현재와 미래에 무게 중심을 두어 해결책으로 지향하도록 도와야 한다.

16 *Ibid.*

3) 해결 중심 상담 사례 기본 규칙

상담자가 내담자를 최선을 다해 돕는다 하더라도, 그 관점이 내담자 중심이 아니라 상담자 중심일 때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잘 따라주는 경우에만 사례 진행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만일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점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상담자가 먼저 지치고 낙망하기 쉽다.[17] 그리고 그 사례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매우 어려운 사례이며 내담자가 전혀 변화하려 않는다 간주하고, 더 이상 사례가 진행될 수 없는 많은 이유와 근거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곤 한다.[18]

그러나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 중심에서 내담자와 파트너가 되어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함께 지향하는 실천을 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문제 중심의 실천 과정과는 매우 다르지만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 중심 상담 기술들이 하나의 기술로만 적용된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준거틀로 내담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규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규칙들은 상담자의 초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경직된 의미에서의 규칙들이라기보다는 사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안내 지침과도 같은 것이며, 상담자가 항상 염두에 둘 만한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17] J. Walter & J. Peller, *op. cit*., 34-37.

[18] 이정은, "만성 질환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결 중심 집단 효과성 연구," 105-17.

(1) 내담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상담자가 먼저 고치려 하지 마라

내담자가 생활 중에 있는 일들에서 아직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 해결의 필요 여부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가 가진 특유한 문화나 생활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러한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럴 때 내담자와 공동으로 무엇을 해야 효과적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 여기지 않는 것에 상담자가 개입하려 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것을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와 문제를 논의하고 상담자가 가진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내담자가 수용하도록 납득시키는 데 긴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다행히 내담자가 상담자의 견해를 수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담자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기 쉽다.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자와 해결책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상담자의 견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내담자의 준거틀을 그대로 수용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규칙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원함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다.[19]

[19] P. DeJong & I. K. Berg, *op. cit*., 112-116.

(2)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더 많이 시도하라

두 번째 규칙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되어 왔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잘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더 잘 관찰하고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점 발견을 기반으로 한 해결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유능하고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예외적으로 행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 행동은 가족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20]

이런 예외적인 긍정적 행동이 일어날 때,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주의 깊게 잘 관찰하여 성공의 유형들을 규명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긍정적 행동들은 내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과거 혹은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행동이기에 내담자로 하여금 그런 예외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이러한 성공적인 기간을 조금씩 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내담자는 자신이 행했던 예외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그가 행해 보지 못한 어려운 행동을 새로 익히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예외적 성공이 상세히 밝혀진다면 사례의 목표는 매우 쉽게 규명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규칙은 효과가 없는 것은 중단하고 내담자의 삶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다.

20 *Ibid.*

(3)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반복하지 말고, 다른 것을 시도하라

역시 세 번째 규칙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해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 '만약 네가 첫 번째에 성공 못한다면 계속해서 시도하라' 라는 격언에 매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왔고, 그러한 모습을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계속 효과가 없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는 효과가 없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 다른 대안을 더욱 볼 수 없게 되며, 내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그가 원하는 결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스스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효과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비록 그것이 다소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어떤 것이든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4) 해결 중심 상담의 자세(Not-knowing posture)

상담자로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문가의 위치에 서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한다면 상담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준거틀을 버리고 내담자의 준거틀을 탐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는 서서히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는데, 이는 한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내담자의 경험과 행동

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상담자가 (자신의 전문가적 준거틀에 근거하여) '선험적' 으로 아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인지와 설명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21]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는 상담자의 행동이 풍부하고 진실된 호기심을 전달하는 태도를 말한다. 상담자는 행동과 태도는 내담자 자신과 문제 또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생각한 견해 또는 기대보다는,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항상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상태가 되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로는 경청,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 내담자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반복, 개방형 질문 및 요약, 쉽고 간략한 설명, 침묵의 사용,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주목, 자기 생각의 표현, 과정에 대한 주목, 칭찬,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확인, 공감, 초점을 내담자에게 되돌리는 것, 해결 중심 대화의 확대 등이 있다.[22]

해결 중심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내담자의 준거틀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지각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범주들의 집합이다.[23]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주변에서 그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관리하거나 그것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준거틀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의 플래시와 같이 상담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21 김인수, 송성자, 정문자, 이영분, 김유숙, 《무엇이 좋아졌는가》 (서울: 동인, 1998).

22 *Ibid.*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의 전 과정은 내담자의 준거틀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상담과정으로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를 처음 만나게 될 때는 이름 교환과 일상적인 이야기 및 상담과정에 대한 명료화, 그다음으로는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질문과 내담자의 언어에 대한 존중, 제시된 '문제' 가 내담자에게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파악, 내담자는 어떠한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지, 내담자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끝으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작업하기 및 메시지 작성과 전달로 1회기 상담을 마칠 수 있다.[24]

5) 해결 중심 상담 질문 기법

해결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체계는 상호 신뢰와 협동을 기초로 하는 치료적 단위로 간주한다. 치료 체계의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하며 해결 방안을 구축해 간다. 상담자의 질문을 통하여 내담자는 상담자가 치료 목적을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관하여 알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질문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 질문을 통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며 기법이라고 본다.[25]

23 정민희,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을 적용한 알코올 중독 환자 집단 사례 연구," 33-38.

24 이정은, "만성 질환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결 중심 집단 효과성 연구," 53-57.

25 송성자, 김정택,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관점과 치료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권(1994): 131-150.

(1) 처음 상담 이전의 변화에 관한 질문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이 상담실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가 문제의 심각 정도가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담 약속을 하고 오기까지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약속한 후 지금까지 발생한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고 변화를 발견하기 위한 접근을 한다. 상담자는 어떻게 문제의 심각 정도가 완화되었는지를 내담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시한 방법에 관하여 인정하고 칭찬을 해준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한 것과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26]

예: 지난번에 상담 후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예외 질문: 성공했던 경험과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질문

예외 질문은 우연적인 성공을 의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개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제에 관하여 주로 부정적이며 문제에 몰두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질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거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연하게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성공하였던 행동을 하도록 강화시키는 전략 또는 기법이다.[27]

26 *Ibid.*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기적 질문: 현실 변화의 구축과 가능성에 대한 자기상을 형성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상상해 보고, 해결하기 원하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며, 치료 목표를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질문 기법이다. 기적 질문 접근 과정에서 자기 문제를 재인식하고, 해결된 상태를 상상하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인 것을 인식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기적 질문은 문제를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해결을 분리하여 해결 상태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28]

예: 밤에 잠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 지금 염려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상상합시다. 아침에 김 이병이 박 상병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지난밤에 기적이 일어나 박 상병이 변화하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른 부대원들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4) 척도 질문: 수치로 정도 표현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제, 우선순위, 성공, 정서적 관계, 자아존중감,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확신, 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노력, 변화를

27 *Ibid.*

28 J. Walter & J. Peller, *op. cit.*, 120-128.

위한 동기, 진행에 관한 평가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변화 정도를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척도 질문은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탐색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이다. 척도 질문은 문제의 심각 정도를 사정하고, 치료 목표 성취 정도를 측정하고, 사정 평가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유용하다.[29]

① 문제 해결에 관한 전망에 관련된 척도 질문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10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1은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를 말한다. 오늘은 몇 점에 해당하는가?

같은 척도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담자가 현재의 상태를 6점이라고 했다면, 6점에서 7점으로 변화할 때 무엇이 달라질 것 같은가?

친한 부대원이 여기 있다면,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얼마라고 말하겠는가?

② 동기에 관련된 척도 질문

같은 10점 척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겠는가?

친한 부대원은 당신이 어느 정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친한 부대원은 당신이 1점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겠는가?

29 *Ibid.*

③ 진전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 질문

10을 상담 목표가 성취된 상태라고 하고, 1을 상담받으러 왔을 당시의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의 상태는 몇 점인가?

1점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1점이 올라간다면 누가 변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

(5) 대처 및 극복 질문: 만성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관련된 것

문제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매우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장래 희망이 없는 것같이 생각한다. 대처 질문이 효과적인 것은 내담자에게 경험을 활용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30]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어내고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처해 온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 강화, 확대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유용하다.[31]

예: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 왔습니까?

계속 반항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참고 견디어 왔습니까?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6) 관계성 질문

이 질문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희망, 힘, 한계, 가능성 등을 지각하는 방식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

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때로 내담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생활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예측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다가 중요한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32]

예: '당신의 선임병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선임병에게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내담자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7) 간접적인 칭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담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을 암시하는 질문이다. 간접적인 칭찬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도록 이끄는(자기 칭찬) 질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칭찬보다 더 바람직하다.

간접적인 칭찬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내담자가 이야기한 바람직한 결과에 대하여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 "어떻게 당신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② 관계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어떤 긍정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30 *Ibid.*

31 *Ibid.*

32 정상원, "청소년 사회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 사회 사업-단일 체계 연구 방법을 활용한 실험 연구," 129-131.

즉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 만약 당신의 부대원들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그들에게 당신이 좋은 부대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 생각에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③ 내담자는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 당신의 부대원 개개인을 특별한 존재들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8) 2차와 그 이후 상담: 상담 효과의 유지, 강화, 확대

2차 회기에서는 지난번 치료 이후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은 어떠한 변화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변화가 없었다고 답변하면 아주 작은 변화를 발견하기 위해 하루하루 그리고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여 추적해 나간다. 작은 변화라도 발견되면 변화를 강화, 유지, 확대를 위하여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중심으로 여러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인정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33]

예: 지난주 동안 변화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중요한 것이니까 말해 주세요.

33 정동화,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 45-49.

(9) 후퇴와 악화: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보고할 경우

내담자가 변화하고 성장하였던 것이 후퇴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는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퇴와 악화된 상태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34]

〈후퇴된 경우의 질문〉

예: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의 후퇴는 과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 생활에서 과거와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그 정도에서 멈추게 했습니까?

〈악화된 경우의 질문〉

예: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 결론

그동안 우리는 군에서 상담을 시도할 때 주로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 문제점만 해결되면 상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결 중심의 단기 상담 모델이 우리 군의 실정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소개한 문제 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분석과 진단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의 문제 상황이나 행동들을 파헤치는 데 비해,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현재의 문제 패턴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34 *Ibid.*

기울임으로써 문제 진단보다 내담자의 장점이나 예외 등을 탐색하여 내담자의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 중심 모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는 것과 같이, 상담자들 또한 내담자의 과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내담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과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곧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 명의 군인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 곧 군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군 상담을 시도할 때 개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단기 공동체 상담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 내담자에게 자기 탐색 상담 과제(Pre-Session)를 제공하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곧 사람은 태초부터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거듭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을 기반으로 그 이론적 배경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문제의 원인을 규정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강점, 성공 경험)이나 예외 상황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이론이다.

지금 우리 군은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신세대 병사들이 계속 복무를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부대 안에 같이 생활하는 병사들끼리, 때로는 병사와 간부 사이에 서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어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심리적, 영적인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부여 받은 한국군종목사단과 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선샤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 및 미래 교인으로까지 성장, 연결시킴으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및 부름에 기꺼이 응하고 있으며 선샤인 운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 우리 군에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군선교신학 제10권 학위논문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1]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오희준

■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교육전공 졸업
■ 군선교교육원 6기 수료
■ 2825부대 산돌교회 목사

1.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그 규모에 있어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 1950년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2.4%인 약 50만 명이 기독교 신자였으나, 1965년 이후 매년 30%의 양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293%라는 폭발적인 증가[1]를 통하여 양적인 부흥이 있었다. 1993년 한국종교사회연

구소 통계를 살펴보면, '1950년에 3,114개였던 교회가 1960년에는 5,011개로 증가하였고, 1970년에는 12,866개로 증가하여 157%의 증가율을 보였고, 1980년에는 21,243개로 증가하여 65%의 증가율을, 그리고 1990년에는 35,819개로 증가하여 약 69%의 증가율을 보였다.[3]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교회 수의 증가는 교인 수의 증가로 이어졌고, 한국의 기독교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05 인구 주택 총조사' 에 따르면,[4] 종교 현황에 있어서 기독교 신자[5]의 비율이 1985년에는 16.1%에서 1995년에는 19.7%로 3.6%가 증가하였으나, 10년 뒤인 2005년에는 18.3%로 1.4%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각 연령대별 증가율에 대해서 1999년, 2003년, 2005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인 연령별 종교의 유무[6]와 연령별 기독교인 비율[7]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연령별 종교의 유무

연령	1999년		2003년		2005년	
	유	무	유	무	유	무
15-19세	46.7%	53.3%	46.2%	53.8%	50.6%	49.4%
20-29세	43.1%	56.9%	44.7%	55.3%	49.1%	50.9%
30-39세	50.8%	49.2%	49.3%	50.7%	47.9%	52.1%
40-49세	60.6%	39.4%	58.2%	41.8%	31.3%	68.7%
50-59세	61.8%	38.2%	62.4%	37.6%	28.3%	71.7%

(출처: 통계청 조사국 인구 총 조사과)

1 이 논문은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2 정진홍, "한국 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사회 변동과 한국의 종교》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257.

〈표2〉 연령별 기독교인 비율

연령	1999년	2003년	2005년
15-19세	48.8%	50.2%	38.14%
20-29세	44.83%	44.7%	36.36%
30-39세	36.74%	40.9%	36.87%
40-49세	31.46%	33.5%	31.32%
50-59세	26.8%	29%	28.33%

(출처: 통계청 조사국 인구 총 조사과)

먼저 〈표1〉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종교가 있다' 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999년보다 2005년에는 3.9%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 청년기에 '종교가 있다' 라고 응답한 수는 1999년에 43.1%에서 2005년에는 49.1%로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세 이후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없다' 라고 응답한 수가 증가한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표2〉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면 〈표1〉에 비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표2〉를 분석해 보면 1999년-2005년에 청소년기의 종교인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15-19세의 청소년 기독교인은 48.8%에서 38.14%로 10.66%의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20-29세의 청년기 역시 44.83%에서 36.36%로 8.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대

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115재인용.

4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5 기독교(개신교) :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모르몬교, 성공회,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 영주교 등 포함.

6 통계청, 행정구역/성/연령별종교인구. 통계청 조사국 인구 총 조사과(1999, 2003, 2005).

7 *Ibid.*

이후는 전체 종교인은 감소하였으나 기독교인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1999년의 기독교인은 20대가 44.83%였으나 6년이 지나 30대가 되는 인구는 36.87%로 조사되고 있다.

결국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인 수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한국 교회 역시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닮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청년 전도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체교인 중에서 청년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2007년도에 행해진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18-29세의 비종교인들은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믿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36.9%가 불교를, 35.4%는 천주교를, 그리고 27.7%만이 기독교를 믿겠다[8]라고 조사되었다.

윤성구의 논문에 따르면, "감리교의 J교회는 주일 성인예배의 출석 인원이 약 2,000명이나 청년부는 30-40명을 넘기지 못한다고 보았고, 장로교의 S교회의 경우 평균 5,000명이 출석을 하나 약 150명 정도가 청년"[9]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청년 전도가 어렵고 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군 선교이다. 군 선교란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1,004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민간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사역[10]

8 홍명유, "청년기 인지 발달과 교리 교육", 〈2011년 제51차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세미나,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편 (서울:총신 대학교기독교교육연구소, 2011), 39

9 윤성구, "교회 성장을 위한 청년부 활성화 방안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3-14.

1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 선교 사역 매뉴얼"(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1), 14.

을 말한다. 군대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청년 남성이라면 종교에 관계없이 군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전도 및 기존 청년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다.

현재 청년들의 군복무 기간을 보면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군대에서 생활해야 하며,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과 주특기 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약 18개월 동안 배치받은 부대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이 배치받은 부대의 군인 교회에는 군대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앙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들은 군복무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인원들도 있으나, 반대로 의무적인 종교행사, 부모의 신앙에 의한 반 강제 등 다양한 이유로 군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도 있다. 또한 군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 출석했으나, 현재는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 병사들도 볼 수 있다. 이 청년들이 군 생활 가운데 바른 신앙관으로 양육받게 된다면, 전역 후 민간 교회로 돌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 중 실제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통하여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군복무를 마치고 민간교회로 가게 되었을 때, 청년부에서 잘 적응하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년 전도의 중요성과 신교대나 훈련소에서의 진중 세례 후 양육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양육프로그램과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장병들이 양육 프로

그램을 통하여 전역 후 민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성장하며,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의 관련 저서, 연구 논문, 정기 간행물, 실제 대대급 군인교회에서의 출석 및 세례 통계표 등의 자료들을 분석, 정리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현재 군대에서의 군 선교에 대한 결과 자료들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군 선교 매뉴얼〉(2011)과 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 보고서(2010-2012)를 참고할 것이다.

둘째, 군인 교회에서의 장병 양육 방법에 있어서는 본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산돌교회에서의 양육 방법과 통계 자료를 통하여 대대급 군인 교회에 있어서 효과적인 장병 양육 모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를 기술한다.

2장에서는 대대급 군인 교회의 양육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2825부대 산돌교회의 기독 장병 양육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대대급 군인 교회의 양육 필요성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받고 부대로 배치받은 장병들은 대부분 처음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군인 교회이다. 이들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다. 8주라는 기간 동안 육체적인 훈련을 경험하고 주일에 잠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출석한 장병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육체적 피곤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어도, 예배 후에 교회에 남아서 양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신교대나 훈련소의 교회는 주일에 훈련병 예배와 현역병 예배, 군인 가족 예배로 나뉘어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육을 희망하는 세례 인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양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신교대나 훈련소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막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장병에게 집단적으로 간단하게 신앙 교육을 실시하고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최소 1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헌법적 규칙에서 5조 학습과 6조 성례를 보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세례 문답을 통하여 학습 교인이 되고, 다시 6개월 동안 신앙 교육을 받고 난 후 세례 문답을 통하여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된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기초 양육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세례를 받은 후에는 신자로서 교회에 적응하고 봉사하기까지의 단계를 거치고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1년 동안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민간 교회처럼 충분한 양육 후에 세례를 받는 선(先)양육 후(後)세례가 아니라, 선(先)세례 후(後)양육으로 인하여 대대급 교회에서는 양육 분야의 전반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세례를 받은 초신 장병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들은 부대 환경과 타 종교의 전도에 의해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

지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된다. 타 부대의 사례에 따르면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3개 종단을 돌면서 세례, 영세, 수계를 받고 부대에 배치되는 장병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라 할지라도 양육받지 못한다면 자대 배치 후 18개월 동안의 힘든 군생활 동안 자신들이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받은 신자라는 의식조차 잃어버린 채 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세례받기 전의 불신앙 상태로 전락하거나 타 종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 입대 전 세례를 받은 장병들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신자들과 동일하게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군생활 가운데 신앙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군 입대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과 청년회 회장을 했던 장병이 군에 입대한 후에는 신앙을 버리거나 예배에 참석하려는 장병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체계적 양육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운영 체계상의 문제이다. 자대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뿐만 아니라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도 자신이 세례 신자임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세례자의 명단이 대대급 교회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장병들이 작성하는 군인 신자 기록 카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대 배치 후 타 종교로 이탈하거나 무종교자로 행동하더라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3〉과 〈표4〉는 각각 군선교연합회가 조사한 연간 세례 실적 현황과 국방부의 전수 조사를 나타낸 것이다.

〈표3〉 2007-2011년의 군선교연합회의 연도별 수세 실적 현황[11]

연도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인원(명)	184,320	182,903	171,274	174,550	153,225

(출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 보고서)

〈표4〉 2009-2011 국방부 종교 장병 전수 조사[12 13]

	총계	종교 장병					무종교 장병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2009년	655,000 (100%)	180,488 (27.56%)	59,835 (9.14%)	86,755 (13.25%)	1,167 (0.18%)	782 (0.12%)	325,973 (49.77%)
2010년	653,000 (100%)	200,656 (30.73%)	66,023 (10.11%)	100,923 (15.46%)	1,736 (0.27%)	728 (0.11%)	282,934 (43,33%)
2011년	653,000 (100%)	171,245 (26.22%)	56,627 (8.67%)	84,925 (13.01%)	1,359 (0.21%)	126 (0.19%)	337,628 (51.7%)

(출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 40, 41차 정기총회 보고서)

〈표3〉과 〈표4〉를 비교해 보면, 수세 실적에 비하여 기독교를 선택한 종교장병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2009년의 장병 전수 조사에는 21개월의 군생활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부터 훈련소나 신교대, 자대에서 세례받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표3〉의 수세 실적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최소 30만 명 이상이 전군에서 세례를 받은 상황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표4〉의 2009년 종교 장병 전수 조사에서는 기독교가 180,48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184,320명이 세례를 받았으나, 2011년 전수 조사에서는 171,245명으로 13,000명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게 된다. 물론 종교 장병 전수 조사를 7-9월경 실시하기 때문에

1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63.

12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1), 65.

1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op.cit.*, 128.

2011년 12월까지의 수세 실적은 반영되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다를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실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군에 입대하기 전의 기독교 청년들의 숫자까지 전수 조사에 포함하게 된다면, 신교대나 훈련소, 자대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전수 조사에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선택하지 않은 장병의 수는 더욱 감소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무종교 장병의 수가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6.4%가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8%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훈련소나 신교대에서의 세례만으로는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명이다. 이 양육을 통하여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은 군생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훈련받게 된다. 이 양육을 마치고 전역한 후에는 민간 교회에서 지속적인 양육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3. 2825부대 산돌교회의 기독 장병 양육 방법

2825부대는 육군의 155mm 견인포 대대이며 4개의 포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주둔하고 있다. 산돌교회는 대대급 교회이기 때문에 군종목사가 아닌 군 선교사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 선교사를 돕는 군종병들은 이중 보직에 의해 평일에는 훈련에 임하고 자유시간이나 주말에 군종병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교회에는 9명의 군종병과 5명의 신우회원이 병사들을 섬기고 있으며, 평균 150명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출석하는 장병의 80%는 군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초신자들이다. 이 초신자들과 20%의 입대 전 신자들이 자대에서 군생활하는 18개월 동안 교회에서 시행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 교육을 받은 후 전역하여 민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군종병의 교사화와 2825부대 산돌교회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 및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군종병의 교사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교사로서 양육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간부가 거의 없다. 영내에 있는 간부들은 중위 이하의 장교나 중사 이하의 부사관들이고, 그 외 결혼한 간부들의 경우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나 군부대 교회보다는 민간 교회로의 출석을 선호하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의 군인 교회와는 상황이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군 선교사 혼자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헌신되어 있는 군종병을 교사로 세워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군종병들의 교사로서 활용되는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교사로서의 사역이다

부대로 전입 와서 첫 주에 교회에 출석하는 새신자들은 4주간의 신병훈련소와 4주간의 주특기 훈련소를 마친 장병들로 대부분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나온 병사들이다. 이들은 아직 부대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군종병들은 각 포대에서 새신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동질감을 활용하여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

군종병들은 각 포대의 양육 교사로서 4주 동안 새신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타 종교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2)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양육자로서의 교사 사역이다

4개의 포대를 군 선교사 1명이 주 중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소그룹을 양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초신자들과 신우들이 주말에 모여서 양육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간 교회의 경우 구역장을 세워서 각 구역별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거나, 주일학교 교사에 의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주 중에도 장병들이 신앙의 체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종병들이 양육의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군종병 역시 양육의 교사이면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병사들이다. 그러나 군종병 또한 주 중에는 모든 훈련과 경계 근무에 참여해야 하며, 주말에는 예배 준비와 새신자 양육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중적인 군종병 양육을 위해서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1박 2일의 일정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한다. 군종병의 자대 근무 기간 역시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되는 군종병과 기존 군종병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1년에 2번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교육의 장소는 교회가 되며, 군종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새신자 양육과 소그룹 진행을 위한 이론과 실습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는데, 장병 양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최종적으로는 교육받은 그들이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2) 장병 양육 프로그램

산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과정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진다. 첫째는, 부대에 배치를 받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이 새신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둘째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이다.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어지는 동아리 활동에 하나의 동아리로 등록하여 38주 동안 기초 과정, 성장 과정, 성경 개관 과정, 성숙 과정으로 4단계의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순환식으로 이루어져 중간에 참여해도 어려움이 없게 한다. 셋째는,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이다. 평일 자유 시간에 각 포대에서 군종 및 신우들의 인도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한다.

(1)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입대하여 2825부대 산돌교회에 처음 출석한 장병들은 총 436명이다. 이들의 세례 현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를 보면, 군입대 전에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은 14.4%인 63명에 불과하다. 신교대 및 훈련소에서 세례받은 인원과 자대에 배치되어 세례받은 인원은 322명으로 73.9%가 초신자이다. 민간 교회에서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지만 군대는 훈련 및 근무 환경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규정된 종교 활동 시간에서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시간에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종교 활동이 보장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다. 산돌교회의 예

〈표 5〉 2825부대 산돌교회 세례 현황(2010.1-2011.12)

	합계	입대전 세례자	신교대/훈련소 세례자	자대배치 세례자	미세례자
인원(명)	436	63	218	104	51
(%)	100	14.4	50	23.9	11.7

배시간은 오전 9시 30분-11시 30분으로, 점심식사 전까지의 30분 동안이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새신자에 대한 4주간의 양육이 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거나 자대에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초신자들은 각 포대 군종병들에 의해 4주 동안 집중적인 양육과 관리를 받게 된다. 새신자는 어느 주차에 와도 순환식으로 4주 동안 양육을 받게 되며, 근무나 휴가로 인하여 양육을 받지 못하면 해당되는 주간에 각 포대에서 1:1로 저녁 자율 시간을 이용하여 군종병이 양육하여 믿음의 초석이 세워지도록 한다. 이 4주간의 양육 때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받은 병사는 세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세우며, 미세례자는 새가족 교육 후 결신에 따라 세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새신자 양육 교재의 활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었다. 자체 제작하여 군종병을 통해 양육하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초신 장병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초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연종 목사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집필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교재를 통하여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2) 동아리 활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

새신자 양육 과정을 마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제자 양육

은 18개월 동안의 군생활에 있어서 세례받고 예배만 드리는 신자의 단계에서 신앙의 성숙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자 양육의 필요성은 개인의 신앙, 교회의 사역, 신학적 배경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높여주고, 셋째 다른 교인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며, 넷째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섯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고, 여섯째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역 범주에서는, 첫째 목사 혼자서는 모든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둘째 교인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경우가 발생할 때 필요하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도록 도울 수 있고, 넷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신학적 배경에서는, 첫째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삶의 본질이며, 둘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이고, 셋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게 하는 과정이며, 넷째 평신도를 사역화하며, 다섯째 참 교회의 구현이 개인의 성실한 제자화에 좌우되기 때문[14]이다.

현재 군부대도 일반사회에서 행해지는 주 5일제가 적용되어 특별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이 실시되고, 토요일과 주일은 휴무일로 일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 휴무는 훈련의 연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해야 한다. 2825부대의 경우 주 5일제로 인하여 토요일 오전에는 전 장병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14 안병창, "교회 교육과 제자 훈련 프로그램 유형", 〈2011년 춘계학술대회 제17회 논문발표회〉, 안양대학교 수봉관 8층 멀티룸, 한국복음주의 기독교교육학회 편 (서울: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2011), 11.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장병들의 친목과 개인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부대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산돌교회에서는 과거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지는 시간에만 제자 양육을 해야 했던 제약의 어려움을, 동아리로 제자훈련반을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교육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38주 동안 기초 과정, 성장 과정, 성숙 과정, 심화 과정으로 4단계의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1시간 30분 동안 강의 및 토론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 교재는 일반 교회의 경우 다양한 교재들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으나 군인교회의 경우 특수성에 맞는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모아 군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재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군부대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고 있는 교재들을 통하여 양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연종 군종목사가 집필한 3단계의 양육 교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에 의해 새롭게 편집된 〈The 좋은 군사〉를 활용하여 산돌교회에서는 기초 과정 8주, 성장 과정 10주, 성숙 과정 10주, 심화 과정 10주로, 총 38주 동안 진행되어진다. 새신자 교육 기간까지 포함하면 군생활 가운데 42주의 양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장병들은 군생활 가운데 양육을 성실히 받았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민간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동아리 활동으로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장병들은 새신자 양육을 마치고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소그룹식 토의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양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소와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강의식 양육으로 진행한다. 이 양육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병사들은 성경적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군종병이나 신우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3)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

미국의 대형 교회인 윌로우크릭 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기는 소그룹의 사역에 있다. 빌 하이벨스 목사와 그 관계자들은 "교회의 비전을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같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구장과 소그룹 담당 교역자, 대교구장, 부교역자들과 자원봉사 코치들, 그리고 섬김을 다하는 소그룹 리더들과 같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15]고 말한다.

그러나 군인 교회의 경우 민간 교회와는 달리, 주 중에 자유롭게 모여서 삶을 나눌 수 없고 주말에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과 주일 예배로는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간에는 힘든 훈련과 경계 근무가 주어지고, 저녁 식사 이후에나 자유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통제와 규율로 인하여 교회로 모여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초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의 소그룹 양육이 필요하다.

생활관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중심 시설이다. 이 공간에서 병사들은 휴식과 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저녁 시간에 생활관의 구성 병사들은 당직 사관의 통제하에 이병에서 병장까지 집단 생활 방식으로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집단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초신자들의 경우

15 빌 도나휴, 러스 로빈스 공저, 오태균 역,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7-8.

선임병들의 종교적 영향을 받거나 많은 고민과 환경적 스트레스로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중에 각 포대의 생활관에서 함께 모여 소그룹 양육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군생활 가운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소그룹을 통한 양육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신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이루어진다. 소그룹은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이나 소수의 구체적인 인격과 삶, 그리고 가치관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사역자가 되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16]인 양육 프로그램이다.

소그룹 활동은 각 포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장소를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소그룹 양육 리더로 세워진 각 포대 군종병과 선발된 신우 회원들을 중심으로 양육 훈련을 실시한다. 시간에 있어서는 석식 이후 자유시간이 2시간 정도 주어지지만, 생활관에서의 정해진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주 중 1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진행한다. 양육 교재는 주일에 주보를 활용하여 소그룹에서 나눌 내용을 배부하고, 개인 묵상을 통해 본문을 생각해 본 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그룹 경건 시간 나눔(Group Quiet Time Sharing)을 진행하도록 한다. 초신자들의 경우 무거운 주제의 교리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주제를 소그룹에서 나눌 경우, 신앙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모임이 활성화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리더인 군종병 역시 무거운 주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삶을 나누고 말씀을 군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Q.T.는 성경공부가 단순한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초석이 될 수 있게 한다.

16 장열환, 〈군 복음화를 위한 기독 사관 생도 제자 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88.

3) 양육 프로그램 진행에 의한 결과

2825부대 산돌교회는 출석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부터 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나타난 높은 출석률에서 장병들의 신앙에 따른 정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6〉은 부대에서 진중 세례를 통해 신자가 된 장병들이 양육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과 후에 보인 교회 출석률에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산돌교회 진중 세례자의 교회 출석 현황

연도	세례 인원	출석 인원	출석률(%)
2007년	8	3	37.5
2008년	25	12	48
2009년	44	21	47
2010년	47	32	68
2011년	57	41	72

〈표6〉을 보면 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는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정착하는 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환경에 의해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진급할수록 종교 활동 시간이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될 확률이 컸다. 반면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시기부터는 세례자들의 예배 참석에 대한 인

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되어진다. 양육을 통하여 세례자들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군종병에 의해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교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과 소그룹 활동에 의한 양육 프로그램의 시행은 대대급 교회의 출석과 신자 전수 조사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병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 타 종교로의 이탈이나 자신이 무종교라고 주장하는 장병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다음의 〈표7〉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825부대에서 전수 조사에 의해 파악된 종교 현황이다.

〈표7〉 2825부대 신자 현황 조사

구분	합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2009년	381	92(24.14%)	24(6.29%)	31(8.13%)	234(61.42%)
2010년	378	155(41%)	37(9.78%)	45(11.9%)	141(37.3%)
2011년	342	169(49.4%)	34(9.9%)	34(9.9%)	105(30.7%)

* 2011년도는 휴가 또는 파견에 의해 조사하지 못한 40명을 총원에서 제외하였음

〈표7〉을 보면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던 2009년도의 신자 현황 조사에서 기독교는 24.14%, 천주교는 6.29%, 불교는 8.13%였다. 반면, 자신이 '종교가 없다' 고 선택한 장병의 수는 전체에서 234명인 61.4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그 결과가 2009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0년의 기독교 신자는 2009년에 비해 16.86%가 증가하였고, 무교도 약 24.12%가 감소되었다. 이때 천주교와 불교도 각각 3.49%와 3.77%가 증가하였으나 기독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의 경우에는 2010년에 비해 천주교나 불교는 1.2%증가하거나 2%가 감소하였으나, 기독교는 8.4%가 증가하여 대대 병력의 약 49.4%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무교 역시 2010년에 비해 6.6%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전수 조사 결과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로,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세례받고 부대에 배치받은 장병들이 교회에서 실시한 새신자 양육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경공부와 주 중에 각 포대에서 군종병이나 신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양육받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라 본다.

4. 결론

1) 결론

선교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들을 배출하는 군대의 중요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군대에서는 매년 약 18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세례자들은 이후 체계적인 양육이 없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전역 후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군대에서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현재 군인 교회에서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3년 동안 2825부대 산돌교회에서 적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 군종병의 교사화이다

콜만은 "기독교 교육은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의식 전달 과정이며, 사람들을 변화된 삶의 헌신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에 전면하는 것"이라 했다. 기독교 교육에서의 교사에 대한 정의에서 번은 "기독교 교육 교사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증인으로 교사의 영향이 교육적인 과정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신적인 소명을 받은 증거자이기에 생활과 말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술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교사는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며 경험한 바를 삶 속에서 증거하며 말하는 사람[17]이다.

군종병은 군인 교회의 초신 장병들에게 생활관에서 신앙과 관련하여 행동과 말로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들을 양육의 교사로 세웠을 때 초신 장병들은 교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초신 장병들에게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새신자 양육이다

군입대 후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은 초신 장병들은 세례에 따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대에 배치받는다. 또한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자대에 왔으나, 예배에 참석하던 중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을 위하여 대대급 교회에서는 반드시 새신자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들이 처음 군인 교회에 출석하면 4주 동안 각 포대 군종병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부대 생활에 대한 조언과 신앙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타 종교로 이탈하거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확률은 사라지게 된다.

17 김희자, 《교사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5.

(3)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제자 양육이다

동아리 활동에서의 제자 양육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초신자와 기존 신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이다. 이러한 영적 성숙은 성경에 관한 지식, 올바른 이해, 그리고 삶에의 적용을 포함[18]한다. 군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곧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에 의해서 제자 양육을 받은 장병은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고 한국 교회의 일꾼이 된다.

현재 군대도 사회와 같이 주 5일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은 휴무 계획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토요일 오전에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군종 및 신우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하게 됨으로 부족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활동이다

피터 와그너는《교회 성장 원리》에서, "서로 친교하기 쉬운 지역에서

18 한춘기, 《교회 교육, 그 이론과 실제》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17.

19 최윤성, 〈소그룹 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57-58.

교회 성장이 가장 잘된다"고 말하며, 소그룹에 대해서 "사랑과 단결을 키워 나가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용기를 북돋워 준다"고 말한다. 즉 소그룹 내의 구심점이 신앙일 때 그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의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19]

생활관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중심 시설이다. 이 공간에서 병사들은 휴식과 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양육이 주말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평일에는 영적 전투 가운데 지치거나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다. 특히 초신 장병들의 경우 믿지 않거나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선임병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군종병들과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끌어주어, 양육이 성경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내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언

대대급 군인 교회는 군 선교에 있어서 실제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과 체계적인 양육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을 군생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전역하여 민간 교회로 보내고 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중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장병과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전역 후 민간 교회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들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대대급에 맞는 다양한 양육 교재와 양육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민간 교회에서는 다양한 제자 훈련 과정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 과정마다 양육 교재를 보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 체계를 군인 교회에도 적용하고 싶으나, 그 상황에 맞는 양육 교재와 제자 훈련 과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몇 종류의 교재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이에 군 선교 기관이나 군목단에서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양육 체계와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각 부대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군종병과 신우들을 위한 교사 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민간 교회와 달리 교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군종병이나 신우들을 교사로 세워 새신자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종병과 신우들을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대대에서의 군종병들은 이중 보직으로 주중에는 주특기 훈련과 근무로 인하여 교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어렵다.

간혹 사단과 같은 상급 부대에 군종목사가 있을 경우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나, 전 군종병이 아닌 대대별 1명씩을 소집하여 교육하는 것에 국한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교육은 대대급 교회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1번씩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집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거나 주말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대급 교회에서는 군종병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미비하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대급 교회에 맞는 군종병과 교사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다.

(3) 무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들을 위한 효과적인 전도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전군 전수 조사에서도 보면, 2009년 49.77%, 2010년 43.33%, 2011년에는 51.7%로 매년 50%정도가 본인의 종교를 무교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기독교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4) 군인 교회와 민간 교회의 연합된 양육 체계 연구이다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은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이루어지며, 그 이후는 민간 교회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군인 교회와 민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체계가 상이하여 전역하는 장병들이 민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민간 교회에서는 군인 교회에서의 세례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성이 낮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육 체계는 1, 2년으로 끝나는 단회성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인 교회에서 양육받은 장병이 전역 후에 민간 교회 청년부에서 양육을 받을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교회와 민간 교회가 연합하여 양육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의 연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들은 대대급 군인 교회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다. 또한 군인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전역 후 민간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전군 복음화, 전군 신자화를 통하여 군인 교회에서 배출되는 청년들은 한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군선교신학 제10권 공모논문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유 현

■現 육군방공학교 군종목사
■총신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역사신학)
■현 육군방공학교 , 천군교회 군종목사

1. 머리말 : 연구의 목적

2011년 여름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이 되었던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1]의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1]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은 2011년 7월 4일 오전 11시 50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해병대 해안 소초에서 해병대 2사단 김모 상병(당시 19세)이 K-2 소총을 탈취해 동료 해병들을 향해 사격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병대원 4명이 사망하고 김 상병을 포함한 2명이 부상했다. 또한 7월 6일 새벽에 군 당국은 사건에 대한 범행 공모 혐의로 같은 부대 소속 정모 이병(당시 20세)을 긴급 체포했다. 사건의 주범 김민찬 상병은 해병대 사병들 사이에서 후임병에게도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따돌림 문화의 일종인 '기수 열외' 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상병은 사고 조사단과의 문답에서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더 이상 구타, 왕따, 기수 열외는 없어야 한다" 고 발언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하였던 정 이병은 평소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가혹 행위를 당하여 분노와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범 김 상병과 공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 2012. 7. 26, 한국어 위키피디아(ko.wikipedia.org) 참조.

'기수 열외' 라는 말이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기수 열외란 기수 서열이 엄격한 해병대 내부에서 특정 병사에 대해 '이제부터 해병대가 아니니 선배나 후배 취급을 하지 않는다' 는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치 투명인간처럼 집단 안에서 집단원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집단 안에서의 의무는 물론, 더 나아가 집단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일체를 거부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수 열외는 단지 해병대뿐 아니라 여러 형태로서 군 안에서 여전히 잔존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왕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악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총기 난사 사건 몇 개월 전에 해병대 내에서 만연한 일반적 가혹행위 및 기수 열외의 위험성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원에서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대 내부에서 이에 대한 상황 인식이 박약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더 나아가, '여유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환경' 에서의 집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과정에서 집단원 중 약자를 도

2 2011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해병대 모 부대 가혹행위 피해 사례로는 선임병이 청소 불량, 군기 유지 등의 이유로 후임병 4명을 이층 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온몸을 폭행한 사례, 후임병에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 볼펜, 가위 등을 끼워 꽉 잡게 한 후 도구를 돌리는 가혹 행위를 수시로 하여 피해자의 양쪽 검지 관절뼈를 돌출되게 한 사례, 손바닥, 주먹, 슬리퍼 등의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행한 사례, 선임 기수와 조리 식단 메뉴를 외우지 못한다며 후임병에게 빵 5개를 10분 내 먹으라고 시킨 뒤 먹지 못하자 손바닥, 주먹으로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례, 폭행 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한 사병을 소위 기수 열외하여 후임병으로부터 폭행당하게 한 사례 등이 있다. 이 부대의 2010년 의무대 환자 발생 보고서에는 고막천공 30여 건, 비골 · 늑골 골절, 대퇴부 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 건에 달했지만,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단의 영관급 간부는 "과거보다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돼 해병대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며 "인권위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병대 가혹 행위 사례, 손에 가위 끼워 돌리고 빵 5개 10분 내 먹게 해", 2011. 3. 24, 인터넷 한국일보(www.hankooki.com) 참조.

태시키는 것을 불가피함을 넘어서 자연스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집단원 내부에서의 자연스러운 인식이 아닌가 예측해 본다.

물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에 불필요한 요소로 보이는 존재를 집단에서 과감히 제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틀린 선택은 아닐 것이다. 군에서는 이를 흔히 복무 부적응자라고 하는데, 그 해당 인원을 무조건 도태시키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라도 복무 적응을 시키기 위한 관리가 사전에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복무 적응이 좀처럼 달성되지 못해 보인다면 부대라는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것 역시 틀린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복무 부적응자라는 이름이 씌워진 한 사람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내가 어렵지 않게 거절당했구나" 라는 쓰디쓴 경험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있어 이른바 그 '거절의 경험' 이 군에서의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전 캠프에 입소하는 병사들은 보통, 그 이전부터 공동체에서 겉돌거나 사실상 분리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 이전 학교나 다른 또래집단에서 타의에 의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을 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배려받거나 보호받거나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겉돌게 되는 삶의 불안정성이 2000년대 이후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집단 따돌림도 삶의 불안정성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자기 자신이 고립되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며, 부대 내에서는 복무 부적응 및 악성 사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각 입소자의 사정에 공감하며, 향후 공동체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아 강도를 증진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군대 혹은 전역 후 각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비전캠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별히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심으로 사람을 향한 공감적 사랑이 무

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따르는 것을 가장 잘 해야 하는 군종목사는,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라는 질문 사항을 스스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무엇으로 답할 것인지를 항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 캠프 시행 이전부터 군종목사가 병영 내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간략히 보며, 비전 캠프 활용에 있어서 그 성경적 근거를 고찰하며 이에 근거하여 군종목사가 비전캠프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2. 비전 캠프 시행 이전부터 군종목사의 역할 및 비전 캠프 시행의 배경

1)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 : 어려움에 처한 모든 장병의 조력자

육군에서 비전 캠프가 시행된 것은 창군 이래 최근의 일이다.[3] 그러나 비전 캠프 시행 이전에도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군에 입대하는 수많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통한 건전한 국가관 및 더 나아가 건전한 인생관의 함양, 이를 통한 비전 투손실 및

3 육군의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2003년 육군본부 군종(감)실은 당시 군종감인 대령 박상칠 목사 책임하에 비전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군종장교들에 의한 육군의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육군본부, 〈비전 캠프2007〉 (대전 : 육군본부, 2007), 4.

4 주연종은 이를 군종 활동의 핵심 가치와 우선 가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핵심 가치는 종교적 지원을 통한 신앙 전력의 향상과 이를 통한 최고의 전투력 유지로 보고 있으며, 이 핵심 가치가 구체적인 상황하에서의 가치의 경중 완급에 따라 상담 혹은 비전 캠프, 기타 등등의 우선 가치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주연종,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군선교신학4》 (서울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6), 143-144.

정신 전력 강화에 그 역할이 있다고 본다.[4]

특별히 건전한 인생관의 함양의 차원을 보면, 한국 군 내에서 군종목사 제도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전쟁 당시 미 33사단 10공병대대의 한 무명의 카투사 병사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로서 탄원한 것이[5] 군종목사 제도 설치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군종목사 제도와 그 역할이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문제라 할 수 있는 생존 욕구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장 상황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자기 의지가 아닌,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마음과 시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6]

이와 더불어, 전쟁 상황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생존 문제에 대한 내적 갈등' 이 군에 입대하는 수많은 장병 가운데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이 예전에 비해 많이 짧아졌고, 병사로 입대하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자신의 전역 날짜를 알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입대 이전까지 각자의 삶의 특수성 가운데서 자신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자기 미래를 모색하고 또 이를 존중받으며 살아가던 지난 20

5 육군본부, 《육군 군종사》 (서울 : 육군본부, 1975), 39-40.

6 이러한 심리는 전장에 종군하는 성직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틸리케(Thielicke)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그라드 포위전 당시 종군하였던 목사들조차도 불안, 공포, 괴로움을 매일 새롭게 극복해 나가야 했으며, 이를 통해 생활과 설교가 밀착된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절대자를 향한 믿음을 더욱 실감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H. 틸리케, 심일섭 옮김,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6.

년간(특히 입대 직전 1-3년간)의 삶과 전혀 다르게, 기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격적인 의사 표현이나 선택을 통제받으며, 더 나아가 군 복무 중 각종 사고의 위험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자신에게는 미약하다는 사실에 부딪히며 갈등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은 수많은 장병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적이며 사회적인 생존 문제와 더 나아가 삶의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에 근거한 삶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군 복무 장병들의 비전 투손실 예방 차원에서의 군종목사의 병영 내 역할은 군종목사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강조되며 시행되어 온 것이며, 또 군 내에서도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군인들의 탈영과 절도, 사기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병 상담소 설치를 통한 군종목사의 상담 업무 시행 조치는 군종목사 제도 시행 초기인 1957년 2월 14일의 일이며, 국방부에 의해 문제 사병 선도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1967년 6월의 일이다.[7]

이는 제1차 전군 신자화 운동이 태동한 계기가 되는 한 일화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당시 1군사령관이었던 한신 장군은 군 내에 보호 사병, 출감자, 이상 성격자, 무의탁 가정, 극빈 가정 출신 등의 문제 장병이 15,200명이나 된다는 보고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이들을 모두 교회에 보냄으로써 기독교 신앙으로 정신 전력 강화를 통하여 군의 든든한 장병으로 거듭나도록 지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 지시 사항은 1군 내 모든 장병들로 하여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1인 1종교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지시

7 오덕교,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군선교 신학1》 (서울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132-133.

사항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로 당시 큰 관심사였던 보호 사병들이 감소되었고, 군에서의 사고가 뚜렷이 감소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8]

2) 비전 캠프 시행과 관련된 상황 : '자살'과 관련된 불안 요소의 증가

한편, 최근 육군에서의 비전 캠프 시행 시작(2004년부터)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전의 군종목사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정신 전력 강화 활동에 비해 최근의 활동이 어떤 포커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위함이다. 비전 캠프 2007 TF팀에서는 그 포커스를 '자살 예방' 이라고 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군 내부에서의 근거, 사회적 근거 2가지로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군 내부의 근거를 고찰할 부분이란, 근래 민주화 및 정보화

8 권오민, "신세대 입영 장병들을 위한 군 선교 전략" (서울 : 총신대학교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0), 19-20.
한편 그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1) 1970-1974년 전사자 현황 및 사고자 추이 증감 현황(육군)

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계	군 사고자 수
1970년	78,176	15,694	13,370	2,793	110,303	19,248
1971년	128,782	22,908	21,756	908	174,354	14,708
1972년	181,000	32,121	28,678	1,547	243,346	11,200
1973년	199,623	39,126	38,524	1,829	279,102	9,041
1974년	208,553	40,038	41,392	848	209,831	

표2) 위 기간 중 신앙 유무와 사고 발생 현황(육군)

구분	발생자 수	근무 이탈	폭행	자살	총기/강력	경제범	군용물	안전사고
무신앙자	164	107	15	4	2	4	2	20
신앙자	77	44	9	2	0.2	2	1	10
사고율	2.1배	2.4배	1.7배	2배	10배	2배	2배	2배

김홍태, "군 신자화 운동이 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 : 감리교신학대학, 1987), 7.

의 약 25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군에서도 일반 사회의 대군 불신의 요소를 줄이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별히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는 자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전과 달리 자살을 일반 사회는 모르게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 가운데 한 병사가 자살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및 후속 조치 없이는 일반 사회의 대군 불신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자율성을 통제하며 전쟁이라는 특수 목적에 맞추어 명령과 복종의 체계화로 구성되어 있는 군 조직의 특수성이 소셜네트워크 세대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군 입대 연령층의 청년층에게 있어서 내적 갈등 요소로 더욱 심화될 요지가 있으며, 이러한 불안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없이는 악성 사고로 인한 대군 불신 요소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으로 1997년말 IMF 이후 지속적으로 그 도가 심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것이 야기하고 있는 삶의 불안정성 증가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뒤르켐은 자살이 사회의 통합 정도에 반비례하는 것이라 보며, 집단적인 힘으로서의 사회의 약화가 자살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보았다. 즉 개인이 사회에 소속되는 것을 즐겨하면 즐겨할수록 그만큼 사회가 개개인 간의 응집력과 활력을 이루게 함으로써 한 개인이 외로워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는 스스로의 허약함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건전하게 조절하지 못하며 개인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끝낼 권리를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9]

IMF 이후 '88만 원 세대' 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오늘날까지의 시간의 흐름은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사

9 에밀 뒤르켐, 황보종우 옮김, 《자살론》 (파주 : 청아출판사, 2008), 249-250.

회적 삶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한 사회에서의 소외는 남녀노소 수많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유혹을 더욱 많게 하고 있다.[10]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극복 능력 및 기술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반적 맥락에서 현재 군에 유입되는 장병들 중 상당수가 군 복무 적응 장애나 행동 장애, 대인관계 장애 등을 유발할 요인이 항상 잠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11]

정리하면, 200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군에 입대하는 인원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인원들이 그들 자신의 요인 혹은 각자의 주변 요인들에 의해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외되고 왜곡된 인격으로 형성되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이러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왜곡된 자기 인식 체계의 전환 및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통한 건강한 자아상 회복을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고,[12] 이는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비전 캠프 입소자의 공동체 적응 강화를 위한, 비전캠프의 성경적 · 선교적 활용 가능성

1) 비전 캠프의 활용을 위한 성경적 근거 (사 61:1; 요 7:37-38)

이렇게 200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비전 캠프가 부대에서 시행되는

10 박치현, "자살 유혹하는 사회 : 자살은 과연 개인의 고독한 결단인가", 〈복음과 상황〉 2009년 8월호 (서울 : 복음과상황, 2009), 67-68.

11 육군본부, *Ibid.* (2007), 4.

12 *Ibid.*, 4. ; 육군본부, 〈비전 캠프〉 (대전 : 육군본부, 2003), 5-6.

것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는 것은 부대 내 인사 계통이지만, 프로그램 개발 및 교관 활동은 군종병과에서 지금까지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군종병과 중에서도 주로 군종목사가 타 종파 성직자와 달리 비전 캠프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각 부대에서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각 종파의 종교 행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종목사조차도, 가령 인격지도 시간이나 비전캠프 등의 시간에 전도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필자가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라는 것이 '교회에 와라' 라는 말의 전파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굳이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짐작되고 느껴지는 선한 영향력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군종목사가 자기 부대에서 어떤 모습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선교에 미치는 것이 크다는 것이다.

특별히 군 복무 중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장병들은 부대에서 특별히 선별된, 군 복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군 복무 적응 문제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군 복무라는 것이 입영하는 장병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 이상의 무력감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88만 원 세대' 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삶의 불안정성의 증가는 이미 군 입대 이전부터 생존 문제에 있어서의 자기 무력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실의 문제를 떠안는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군에 입영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13]

이런 수많은 문제를 떠안은 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병들, 특히 비전 캠프 입소 장병들에게 있어서 비전 캠프를 주도하는 군종목사는 어떤 선교적인 자세로 입소 장병들의 공동체 적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

을 것인가? 그전에 비전 캠프를 성경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적용할 가능성은 과연 있는가? 이는 성경을 상담의 차원에서 풀이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현직 목사이자 목회상담학자로서 활동 중인 임헌만의 논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임헌만이 목회 상담의 궁극적 목적과 필요성으로 인용한 성경 구절 중 본 논문에서 고찰해 볼 것은 이사야 61장 1절[14]과 요한복음 7장 37-38절[15]이다. 우선 이사야 61장 1절의 경우, '상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라' 는 전제하에, 목회 상담의 궁극적 목적으로 예수께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포로된 자' 는 '상한 마음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음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중독에 빠진 자' , '갇힌 자' 는 '정신병원에 가둬야 할 상황이나 귀신이 들린 상황'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16] 이사야 61장 1절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1차적으로는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

13 관련하여 우석훈은, 그의 글에서 오늘날 한국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40-50대의 남자가 주축이 되어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형국' 으로 본다. 이것이 20대 사이의 강요된 승자 독식 게임의 근거가 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대의 정신건강이 이미 위험수위에 달해 있지만, 교회나 점집에서 다소 기묘한 방식으로 정신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외에는 상담이나 공동체 문화적 지원이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석훈, 박권일, 《88만원 세대》 (서울 : 레디앙, 2007), 274-275.

14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 61:1).

15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ἐάν τις διψᾷ ἐρχέσθω πρός καί πινέτω.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καθώς εἰπεν ἡ χραφή, ποταμοί ἐκ τῆς κοιλάς αὐτου ῥεύσουσιν ὕδατος ζῶντος.*"

16 임헌만, 〈목회 상담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교재, 2005), 3.

일정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모두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헌만의 해석은, 상담을 통한 마음 중심의 치료 및 해방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그 논지를 발전시켜 보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이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져야 할 법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모습이 왜곡된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가령, 가족 상호 간의 화목과 순종 및 섬김 대신 폭력과 반목(反目), 심하게는 존속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단체 생활 간에 동료들 간의 동료애 및 협력 대신 집단 따돌림 문제로 인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 제도를 기피하는 현상(피해자의 경우) 및 사람을 사람 그 자체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고의 고착화(가해자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증가로 인한 대인관계 극복 능력의 약화 및 삶의 불안정성의 고착화로 인한 스스로 제약되는 삶 및 희망의 상실 등을 주요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 간 왜곡된 시각이 방치되고 고착화될수록 각 개인의 마음 중심이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각 공동체 그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될 뿐더러 그렇게 형식화되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자의 반 타의 반 고립되는 악영향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된다.[17]

집단 상담 및 치료로서의 비전 캠프를 통해 입소자를 만나게 되는 군종목사의 목적으로는, 각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자아 강도를 높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입소자에게 있어서 앞서 설명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어떠한 왜곡된 시각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그 왜곡된 시각의 원인을 탐색하는 가운데 이러한 왜곡된 시각이 어떤 모습으로서 각 입소자의 공동체 내 소외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그

가운데 비전 캠프의 목적으로서, 왜곡된 시각의 교정 및 그 시각의 원인 혹은 결과가 되는 상한 감정의 치유에 있어서 최소한 그 가능성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임헌만은 목회 상담의 목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요한복음 7장 38절 중 '그 배' (κοιλιάς αὐτου)라는 단어를 '속 깊은 곳, 존재의 진공' 이라 해석하며, "사람의 허물, 즉 죄, 약점, 상처 등으로 인한 두려움, 수치감, 열등감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된다. 목회 상담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옴으로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다.[18] 즉, 여기서 한 사람의 마음 깊은 중심을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은 마음' 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가운데 치유되고 죄 사함 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 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후자 쪽이 목회 상담의 필요 및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집단 상담으로서 비전 캠프의 성경적 근거를 간략하게

17 필자의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비전 캠프에 입소하였던 필자의 소속 부대 한 병사는 가정 및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따돌림을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집착하게 되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입대 때부터 이미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던 이 병사의 생활기록부 기록 중, 장래 희망란에 "대한민국과의 인연을 끊고 일본에 가겠다"는 기록이었다. 관련해서 "전역하는 대로 군복을 찢어 없애버리고 싶다"는 말도 상담 중 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편, 현재 비전 캠프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입소자들은 대부분이 자아 정체성의 혼란, 친밀감 결여, 낮은 자존감, 복무 부적응 행동, 여러 가지 신경증적 증상(막연한 두려움,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 억압된 분노, 박탈감, 우울감 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입소자 중 10% 정도는 자살과 관련된 임상적 징후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군 입대 전의 외상(trauma)을 비롯하여(결손 및 이혼 가정, 가정 학대, 집단 따돌림 경험, 대인 기피 등) 현재 군 생활상의 위기(체력적 한계, 업무 미숙, 애인 변심, 건강 문제, 인간관계 갈등 및 의사소통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꾀병 증상을 가진 입소자들도 있다. 육군본부, *Ibid.* (2007), 8.

18 임헌만, *Ibid.*, 4.

나마 생각해 보며, 어떤 사람이 비전 캠프라는 용어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라 설명한 사실을 기억해 본다. 성경적 시각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서의 비전 캠프를' 생각해 본다면, 비전 캠프 입소 장병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들 각자의 성장 과정에서 만나게 된 크고 작은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소외된 원인 및 그 원인이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 어떤 왜곡된 시각을 제공했는지를 함께 탐색하며, 그렇게 '포로되어 갇히게 된' 마음 깊은 중심이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연구한다.

여기서 기존 상담학이 내담자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가치 중립적 시선을 견지하며 내담자를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적 시각에서의 상담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보편적 허물의 문제에 집중' 하여[19] 그 내담자의 마음의 근본적인 답을 알고 계시는 보혜사(Counsellor)인 성령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20] 실제로 예수님도 각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죄 사함의 문제를 꼭 거론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2)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 장병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적 활용의 가능성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군종목사가 비전 캠프를 통해 목사로서 비전 캠프를 선교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캠프 입소 장병의 복무적

19 그렇다고 이것이 내담자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근원적 답을 찾고자 하는(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당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담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접근을 할 수 있다.

20 임헌만, *Ibid.*

응을 위한 공동체성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방법론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군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종교 행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군종목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심지어 비전 캠프 시간에서도 그러한데, 내담자의 위치에 있는 입소 장병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입소 장병의 종교가 프로그램 진행자인 군종 목사와 같은 기독교일 경우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적인 가능성은 비전 캠프의 프로그램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비전 캠프를 실제로 주로 운영하는 군종목사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 자체에 선교적인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군종목사의 태도에 선교적 가능성을 두는 것이 옳고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시금 비전 캠프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2007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인 비전 캠프가 어떤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지, 〈표1〉 비전 캠프의 단계 구분과 핵심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1〉에서의 단계 및 핵심 개념으로서 운영되는 비전 캠프의 핵심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전 캠프에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이라는 가정하에 관계적 특성을 모든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문제 해결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진행자와 입소자 사이의 관계이며, 입소자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는 학습을 경험한다.

둘째, 'Here & Now' 의 관점에서, 입소자 서로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신념에 직면함으로 자기 내면세계의 비합리성에 근거한 문제 행동 패턴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한다.

셋째, 안전하고 모성적인 환경을 입소자가 자각함으로써, 입소자들의 유치하고 덜 발달된, 때로는 거칠기까지 한 감정들을 솔직히 표출할 수

〈표1〉 비전 캠프의 단계 구분과 핵심 개념[21]

단계	일차	해당 프로그램	핵심 개념
사전 준비단계	1일차	등록 MMPI검사	• 등록 시 환영받는 느낌 갖게 하기 • 차분하고 여유있는 MMPI 검사
도입 단계	1일차	오리엔테이션 #1. 자기 소개하기 #2. 마음을 열어요	• 비전 캠프에 대한 기대감 갖게 하기 • 비전 캠프 규칙에 동의하기 • 수용적 존중을 통한 마음 열기 • 어색함 누그러뜨리기(Ice Breaking) • 낮은 수준의 자기 개방
전환 단계	1일차 2일차	#3. 나의 이야기 #4. 나의 발견(심리 검사) #5. 더불어 함께 #6. 영화 감상/종교 행사	• 갈등과 저항에서 집단 응집으로의 변환 •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공동체 활동 → 집단의 안정성, 신뢰성, 응집력 • 심리 검사/영화 → 자기 발견의 심화
작업 단계	3일차	#7. 서로 통해요 #8. 나를 풀어주기 #9. 나의 꿈을 찾아서	• 행동 변화의 촉진 - 의사소통 개선과 대인관계 향상 -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의 변화 • 감정의 정화 → 과거를 딛고 미래로
종결 단계	4일차	#10. 마음 다지기 #11. 새롭게 시작해요 (수료식)	• 실천 의지 강화 • 나눔과 추수 • 미래에 대한 희망 • 비전캠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있도록 허용함으로 내가 현재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를 과격하거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 즉각적으로 명확히 알려준다.

넷째, 입소자들 서로가 상대방의 거울 역할을 하며 자기에게 비춰진 상대방의 모습을 되비춰주는 것을 체험함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는 자기 영역(hidden area)을 개방하도록 돕고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영역(blind area)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된다.[22]

21 육군본부, *Ibid.*(2007), 21.

이를 통해 비전 캠프 진행자로서의 군종목사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각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캠프 입소자들에게, '대인관계에 과감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안전하며 모성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것 중에 '입소자들의 덜 발달되거나 거친 감정들이 솔직히 표현될 수 있도록 수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관찰은 하지만 섣불리 평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군종목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입소 병사들을 사랑하고, 그들 각자의 성장에 있어서의 사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근본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정을 사랑으로서 공감해 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캠프 입소 병사들의 대인관계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교정해 주는 군종목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앞서 설명한 것 중 'Here & Now' 관점으로 자기를 자각하는 것과 입소자 상호 간의 피드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입소자의 성장 배경 및 생각에 대하여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자가 '오로지 그것만 자기 해결책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이 고착화된 원인을 인정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를 목회자로서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을 떠나 왜곡된 시각으로서 '각자의 삶에 따라 옳다 여기는 다른 어떤 것에 경도된' 각 사람의 보편적 범죄의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대안 즉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 고립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22 *Ibid.*, 12-15.

교정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자아 강도가 비전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

병영 내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의 진심어린 조력자로서의 이미지로서의 군종목사상이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전 캠프 내에서도 이어지고 강화된다면, 비전 캠프의 선교적 효과가 프로그램 운영 중에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간이라 볼 수 있다. 개정된 프로그램에서는 종교 행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종교를 가진 입소 병사 위주로 종교 행사 참석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필자가 이전에 실제로 경험했으며 현재 교관으로 지원 중인 사단 내지 군단 비전 캠프에서는 천주교나 불교 종교인이 아니고서는 전원 기독교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당 수요 예배를 위한 한 가지 구체적인 제안 사항으로는, 그 때만큼은 입소 병사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의 초대의 메시지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특별히 주안점이 될 만한 키워드를 '공동체' 로 설정하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를 소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소외되었던 비전 캠프 입소 인원에게, 그들조차도 소외시키지 않고 받아 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은, 향후 공동체에 소속되어도 충분히 살만한 자아 강도의 증강뿐 아니라, 속칭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진전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남들은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는 시선으로 간주하는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군종목사의 이미지는 복음 전파에 있어 그 촉매제가 되기 쉽다.

더 나아가, 3박 4일의 비전 캠프는 각 입소 병사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며, 따라서 이후에도 필요에 따른 부대 및 보직 조정, 정기적인 상담관 및 상담병 연결 등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비전 캠프를 통

한 교회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전 캠프 수료 그 이후에,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비전 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가 선교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비전 캠프를 통해서 특정 종교 전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육군본부 군종실에서 발행한《비전캠프 선도 사례집 : 다시 찾은 나의 꿈》에 따르면, '분노와 절망 및 냉소에 일관하는 일상을 살아왔지만, 비전 캠프 퇴소 후 부대에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변과 잘 어울려 지내게 된 A병사' ,[23] '법대생이지만 사법고시를 보지 못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군에 입대한 후 복무 기피 목적으로 정신착란 및 고의적 기물 파손 등 괴상한 행위를 일삼았지만, 비전 캠프 입소 및 퇴소 후 교회에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계속 읽게 하는 등의 조력적인 행동의 결과로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독교 세례를 받기까지 한 B 병사' [24] 등의 사례를 보면, 비전캠프를 통하여 입소자가 집단 안에서 공동체성을 어떻게 되찾으며, 이것이 어떻게 선교와 연관되는지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 공동체(학교 등)에서 소외 고립된 지속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공동체(군대)에서도 비슷한 경험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 내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

23 육군본부 군종실,《비전캠프 선도 사례집 : 다시 찾은 나의 꿈》(대전 : 육군본부, 2008), 20-22.

24 *Ibid*., 34-37.

을 제공해 주는 몇 사람을 만남으로써, 현재 공동체(군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구체적으로 고립 및 소외에서 공동체 참여로—생긴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군 내부의 공동체(교회) 몇 사람을 만남으로, 이전에는 그 공동체(교회) 자체를 잘 알지 못하던 것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 공동체(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25]

이 두 가지 가능성은 곧,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비전 캠프를 통하여 입소자의 공동체 적응력 및 공동체에 대한 호의적 인식에 대한 강화와, 더 나아가 비전 캠프에서 주로 교관으로 활동하는 군종목사의 비전캠프 입소자와의 관계 및 영향력을 통한 선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군에서 부적응하는 장병이 나타나는 문제는 비전 캠프 시행 이전이나

25 이 첫째 가능성과 관련, 개인적으로 3가지 사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입대 이전부터 고교 자퇴 후 의무적인 공동체(학교, 군대 등)에 끝까지 제대로 붙어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현재 군에서도 복무 부적응 증세를 보이던 한 사람이, 비전 캠프 입소 및 수료 이후 후속 상담 및 부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군 복무 적응을 한 것은 물론, 검정고시를 통한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C병사. ② 집단 따돌림의 부정적 영향으로 남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못함으로 군에서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비전 캠프 입소 및 수료 이후 후속 상담 및 부대 차원에서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군 복무 적응도가 많이 좋아진 것은 물론, 현재 공동체(군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얼마 전 간부사관을 지원하기까지—비록 불합격했지만—한 D병사. ③ 본래 일본 창가학회(남묘호렌게쿄) 신자였고 부대 내에서 내성적 성격에 우울증, 대인 기피 등 복무 부적응 증세로 사단 비전 캠프에 입소하여 상담을 시행했는데, 퇴소 후 대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해 주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라고 말한 E병사.

이후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설령 비전 캠프를 시행하는 등의 관심과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건 몇몇 사람의 문제이지 부대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군에서 부적응에 의한 사고와 그 가능성의 비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내부적으로 '그들만의 문제' 라고 방치하는 시각에 머물면 그 대상이 되는 복무 부적응하는 각 개개인의 공동체 내부에서의 소외감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부대 내 결속력의 문제 요인이 노출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삶의 불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의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많이 입영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만큼 군 차원에서의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처는 부대 장병들의 사고 예방 및 정신 전력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 차원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비전 캠프가 육군 각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비전 캠프를 실무적으로 시행하는 군종목사들에게 있어서 보다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비전 캠프 및 캠프 입소 병사들에게 접근하는 개념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를 통해 안전한 공동체라는,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병사들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교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적인 해석도 가능한 것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가장 큰 공감적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왜곡된 신념이 고쳐졌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캠프 입소 병사들의 아픔에 공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군종목사의 모습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을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비전 캠프 프로그램 그 자체는 성경적이거나 선교적인 것

은 아니다. 어떤 군종목사가 비전 캠프에 입소한 병사들 거의 전원을 전도했다고 해도, 그것은 비전 캠프 프로그램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비전 캠프 프로그램 간 비는 시간에 틈틈이 전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입소 병사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해 준 것이 입소 인원 전원 전도의 영향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비전 캠프에 주로 실무적으로 활동하는 군종목사들이 보다 성경적인 집단 상담의 시각—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캠프 입소 병사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인류애적인 시각—으로 캠프 입소 병사들에게 접근한다면, 그만큼 비전 캠프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 및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의 가능성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군선교신학 제10권 공모논문

21세기 한국 군 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홍석균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M. Div.)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신학석사 (Th. M.)
■ 육군 수기사 제5198부대 맹호포병삼선교회 담임목사

1. 오늘날 한국 군 선교 현장을 고민하며

한국전쟁 이후로 한국군의 역할은 더욱더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1년 10개월의 군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군의 특성은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은 특히 복음의 수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에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군에 와서 힘든 훈련과 내무 생활, 불편한 상하급자의 관계를 직면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게 된다.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없는 선교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군대가 선교의 황금어장인 것을 인식하고 많은 노

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군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단연 세례 운동이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7만 명 정도로 많은 세례를 청년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한 세례 운동은 '비전2020운동' 으로 이어졌고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를 75%까지 이루려는 원대한 비전 아래 열심히 세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전2020운동' 에 많은 선교학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집단 세례를 집단 개종으로 볼 수 있는가? 세례 운동을 전개할 때 숫자적인 성과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후에 철저한 양육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세례를 지속적으로 주어 세례 신자는 숫자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자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전2020운동' 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2020년까지 기독교 인구 75%를 이룬다는 전제 아래 지금쯤이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50% 수준쯤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운동을 전개한 1998년보다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에서 기독교는 876만 336명에서 2005년 861만 6,438명으로 14만 3,898명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2008 한국 교회 종교 현황, 2009년 1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한국 교회에의 전반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군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인을 꼽아 본다면 집단 세례 후에 체계적인 양육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세례에는 열정을 쏟았지만 세례 후 체계적인 양육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고 난 뒤 물과 거름을 주지 않고 열매를 보려고 한 착오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의 미래와 한국 군 선교의 건실한 열매를 위해서는 과거 군 선교의 철저한 선교학적인 분석과 함께 양육에 따른 효과적인 군 선교 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2. 한국 군 선교의 현 실태 및 문제점

과거 군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진중 세례식에만 집중해 왔다. 그래서 교단과 교회는 많은 재정을 아끼지 않고 진중 세례식에 투자하였다. 또 군 선교라 하면 민간 교회가 군부대에 가서 위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전후방 각지에 가서 위문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물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군 선교에 일익이 되었다.

그러나 군 선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진중 세례식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세례를 베풀지만, 기독교 정체성을 세례자들에게 제대로 확립시키지 못한 채 부실 신자만 양산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군 선교 현장은 과거와 같이 선물이나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해서 교회로 군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병사들의 월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족함이 없는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효과적인 군 선교를 위해서는 과거의 군 선교의 방법론을 성찰하고 현재 군 선교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1) 가시적 성과 위주의 진중 세례식

최초 진중 합동 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합동 측이 파송한 이상강 목사가 군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결실로, 연대장 유정묵 대령을 비롯한 154명이 합동 세례를 받음으로 출

발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보병 제26사단(5110부대)에서 최세태 목사의 집례로 1,46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12월 5일에는 제5사단(9011부대)에서 한준섭 군종감의 집례로 1,005명이 세례를 받았다. 다음해 4월 25일에는 육군 보병 20사단 3,390명, 도합 3,478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단회 수세 인원으로 최고를 기록하며 군과 한국 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합동 세례식이 매스컴을 타고 전 부대와 교회에 알려지자, 각 부대에서는 합동 세례식 붐이 일어나 수많은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때가 1차 진중 세례식 운동이었다.

〈표1〉 연도별 세례 현황[1]

구분 / 연도별	합동 세례		일반 세례	계
	횟수	인원		
1971년	6	4,377	2,943	7,320
1972년	39	23,405	18,954	42,359
1973년	43	26,803	17,880	44,683
1974년	15	6,390	19,506	25,896
계	103	60,975	59,283	120,258

이러한 진중 세례식 운동은 비록 1980년대에 주춤하게 되지만, 다시 2차 진중 세례식 운동으로 군 선교는 다시 재도약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새로 '군복음화후원회' 이사장에 취임한 곽선희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중 세례 운동은 1997년 이후 20만 명을 넘어서서 1999년 216,080명이 세례를 받았고, 2000년에는 187,156명, 2001년에는 191,758명이 세례를 받는 등 집단 개종 운동이 일어나서, 제2차 진중 세례 운동이 시작한 지 10년 만에 170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2]

그러한 세례 운동은 한국 군 선교에서 가히 높이 살 만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많은 세례 장병의 증가가 가시적인 기독교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 다음 표는 기독교의 세례 장병의 양적 증가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표2〉 10년간 세례 영세 수계 현황[3]

종류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세례	85,000	128,000	130,000	186,000	190,000	177,003	207,951	216,080	187,156	186,959	182,230
영세		3,397	3,908	3,915	4,739	6,597	6,597	10,618	14,512	21,387	19,687
수계		63,530	62,865	63,118	62,136	77,570	77,570	80,607	80,539	83,317	81,542

국방 개혁 2020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군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독교 수세 실적이 유지되거나 증가되고 있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또 2007년에 원불교에서 최초로 군종 장교가 들어오면서 신자대비 군종 장교의 숫자를 맞추자는 주장에 따라 전수 조사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군종 장교 숫자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인원 대비해서 기독교가 여전히 많은 세례 신자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감사할 만한 일이었다.

〈표3〉 비전2020실천 운동 사역 연도별 기독교 수세 실적 현황[4]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182,230	155,767	161,825	162,260	154,808	153,225	174,550	171,435

1 오덕교, "군 복음화 50년의 역사", 《군선교신학 1》 (2004), 139-140.

2 *Ibid*., 147-148.

3 육군본부, 《군종 50년사》 (2002), 597.

〈표4〉 종교별 비교현황 (국방부 전수조사 통계기준/2009년 9월)[5]

구분	합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무종교
신자인원	655,000	180,488	59,835	86,755	1,167	782	325,973
신자대비(%)	100%	27,56%	9,14%	13,25%	0.18%	0,12%	49,77%

※ 국방부 백서 (2008년) 참고 / 전군 655,000명 기준

그러나 이러한 많은 기독교 세례 신자 통계 이면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때,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진중 세례식이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많은 세례군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대 배치 받고 자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세례 신자들이 다른 종교를 번갈아 다니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올바른 세례 교육 없이 세례를 받게 되다 보니 기독교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채 부실 신자가 양성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부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병사들의 기독교 정체성과 세례의 상관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례를 받기 위해 교육받은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을 기록해 달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 받았던 대상자는 48%가 기록했지만, 부대에서는 18%밖에 되지 않았고 '교육받은 적이 없다' 고 대답했던 자들은 11%, '기억이 안 난다' 6%, 무응답이 49%를 차지하였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해당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물음에, 사회에서는 '그렇다' 라고 65%가 대답했지만, 부대에서는 13%만이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또 '세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물음에, 사회에서는 5%만이 '그렇다' 고 하였지만, 부대에서는 69%나 차지하게 되었다. '또 훈련소 진중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명확한 신앙고백을 확인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사회에서는 78%였지만, 부대에서는 46%밖에 되지 못했다.[6]

또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례에 따른 올바른 세례 교육이 부족했던 군 선교의 이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세례 운동은 기독교 거룩성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세례는 기독교의 성례이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7)에 밝히고 있다. 이 말은 세례는 과거 옛사람이 죽고 죄 용서를 받아 성령으로 새사람이 되는 진지하고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세례식을 군대에서 많은 인원에게 주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세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세례 숫자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기독교의 거룩성을 격하시키게 된 것이다.

2) 군 선교 사역자의 부족 및 이동

한국 군 선교의 역사가 60년이 되기까지 선교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요인은 군 선교 사역자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51년 2월 28일 32명의 목사와 신부가 무보수 위촉되면서 군종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전후방 각지에서 군 선교 사역자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군 선교 사역자가 군 선교에 큰

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2010, 66.

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2010, 123.

6 남송현, "군 선교 전략으로서 훈련소 진중 세례식에 대한 연구" (2002), 86-90.

영향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군 선교 사역자들의 제한되는 상황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1) 군 교회 대비 사역자의 부족

군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는 군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군인 교회를 통하여 활발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예배, 위문, 세례식, 성찬식, 그밖에 전도 집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군인 교회는 전후방 각지에 육군 849동, 해군 35동, 공군 85동, 국직 35동으로 총 1,004개의 교회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군인 교회 대비 군종 장교의 숫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종 장교의 숫자는 육군 191명, 해군 29명, 공군 44명으로, 합계 264명이 종군하고 있다.[7] 그렇다 보니 연대급 이하의 군종목사는 주일이 되면 대대 이하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0년 국방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군종 장교 숫자도 점차 줄이는 상황이라 점점 어려움은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이러한 군종목사 숫자의 부족을 보안하기 위해서 한국군 선교는 민간 사역자를 협력 파트너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전방에서는 군부대 주변에 있는 민간 교회의 사역자가 본 교회의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오후에 군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한다. 또는 노회나 교회를 통하여 파송한 군 선교사들이 담임목회자가 없는 군인 교회를 맡아 담임하면서 부족한 사역자의 숫자를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역자의 숫자는 687명밖에 되지 못한다. 또 이러한 민간 사역자의 숫자는 상급 부대 교회나 대도시에

7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9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2010), 123.

있는 군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기 때문에 전방에 대대급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군종 장교 264명에 민간 사역자의 숫자 687명을 더한다 할지라도, 총 사역자는 951명으로 1004 군인 교회를 책임지기에 부족한 숫자인 것이다. 더군다나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민간 사역자는 370명[8]에 불과해서 체계적인 군인 교회 운영과 전략적인 군 선교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2) 군종목사의 전출에 따른 선교 불안정성

군종목사가 군 선교에서 영향력은 민간 군 선교 사역자보다 훨씬 크다. 군인의 신분이므로 부대 출입이 자유롭고 행정 업무 처리도 빨라서 사역에 있어서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군종목사는 군인 교회를 맡을 때 그곳에서 군인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고 선교하기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종목사는 군인의 신분이므로 2년 내지 1년에 전출을 가야 하는 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담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에 많은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 한 목회자가 군 교회를 담임하면서 세웠던 사역의 방향이 다음 사역자가 오면 연계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역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군인 가족들이나 성도들도 군종목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를 받아들일 때마다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단별로 교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목회자의 신앙 강조점에 따라서 일관된 신앙 양육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8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Ibid*., 114.

3) 양육 시스템의 부족

군인 교회는 사역자가 안정적이지 못한 군 선교 현장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양육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피교육자가 바뀌어도 고정화된 양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정된 양육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교육자가 바뀌어도 그 교육 과정의 순서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일관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

〈표5〉 군인 교회 병사 양육 현황 (2010년 11월)

조사 대상	새 가족 양육	교리	성경 개관	교회사	신앙 실천	세계관 (문화)	기타
1, 2, 3, 6, 7, 8, 9, 11, 12, 15, 17, 20, 21, 23, 25, 26, 27, 30, 31, 37, 39, 53, 55, 56, 57, 60, 61, 63, 66, 71, 72, 73, 75 사단 육사, 부사교, 3사교, 보병학교, 종행교	1, 2, 3, 7, 8, 9, 11, 12, 15, 20, 23, 26, 27, 30, 39, 55, 56, 57, 60, 61, 71, 73, 75사단	25, 31 사단	17 사단	25 사단	25, 31, 39 사단	25 사단	리더십(3사단) 큐티 나눔 (7, 15, 21, 37사단) 전도(11사단) 신앙 심화, 영어 성경 (20사단) ＴＥＥ(27, 61사단) 성경 공부 (30, 31, 60, 71사단) CCC순 모임 교재 (31사단) 자체 제작 (25, 39사단) 군선교연합회 "북한 사랑" (56사단) 친구야 교재(63사단)
총계 38	28	2	1	1	3	1	18

그러나 오늘날 군 선교에서는 세례를 많이 주어 세례 신자는 양산되고 있지만, 양육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1) 군인 교회 내의 양육 현황

군 선교 현장에서 양육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사단급 교회에게 일일이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서 새신자 양육은 다수의 부대가 시행하고 있으나 병사 양육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별로 군 선교 사역자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에서만 양육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었다.

(2) 군 선교 단일 양육 시스템의 부족

이렇게 군 선교 현장에서 양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군 선교 단일 기관이 이를 보안해야 한다. 이러한 양육 시스템이 미흡한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해 왔다.

첫째, 〈좋은 군사〉라는 양육 교재를 2001년 발간하였다.

군에서 세례를 받은 후 정착을 위해서 군인들에게 맞는 양육 교재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양육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교재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2010년 10월에 총 88명(군종 목사는 52%였고, 민간 사역자는 48%)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좋은 군사〉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88%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서 군선교

연합회에서 발간한 〈좋은 군사〉가 실제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었다.

둘째, 세례 군인이 전역 후 결연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도록 하였다. 세례 후 유명무실한 신자를 방지하고 전역 후에도 지역 교회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결연 교회를 두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군 선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 시스템은 막상 신앙 훈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 군인들에게 양육을 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셋째, 세례 후 성찬을 통하여 신앙 성숙을 이루고자 시도하였다.

장병들에게 세례 후 기독교 정체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군선교연합회에서 세례 후 성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례식을 거쳤음에도 기독교 정체성이 확보되지 못한 장병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없던' (?) 기독교 정체성이 생길지 의문이다. '세례 → 성찬' 이라는 순서적 시행이 정체성 '형성 → 강화' 라는 도식으로 단순히 정리될 수 있을지, 충분한 신학적 토의와 현장 검증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9]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체성은 한 번의 일회성보다 지속성으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장병들의 체계적인 신앙 양육에 대한 고찰이 다시 한 번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체계적인 양육과 시스템이 없는 선교가 계속된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건실한 군 선교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9 정비호, "군 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 《군선교신학 8》 (2010), 76.

3. 군 선교에서 양육 사역의 중요성

그러므로 세례 후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 사역에 사역의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양육 사역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을 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군 선교 사역이 될 것이다.

1) 명목주의적인 신앙 방지

행크 해네그래프는 그가 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에서, 미국 교회가 성공과 번영에 눈이 멀어 탐욕스러운 바알의 신민이 되어 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10]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에 빗나간 미국 교회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는 비단 미국 교회만이 아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바로 명목주의 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신앙의 형식만 남아 있고 본질을 상실한 모습인 것이다.

명목주의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마 7:21). 사도 요한도 사데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 이라고 책망하셨다(계 3:1-3). 이러한 책망은 구약시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지적되어 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10 행크 해네그래프, 《바벨탑에 갇힌 복음》, 새물결플러스 (2010), 339.

이니라"(사 1:12). 이 모두는 종교의식은 있지만 신앙정신이 없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이다.

이러한 명목주의 신앙은 군대 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매년 군대에서 세례를 17만 명에게 주면서 세례 신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례만 주고 실제적인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대에 와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명목주의 신자의 양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목주의 신자들이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확고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3년이라는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제자로의 의식을 변화시키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군 선교 현장에서도 청년들을 명목주의 신자에서 알곡 신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10개월이라는 군생활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청년들의 소명과 비전 확립

오늘날 사회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라고 한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다원주의, 상대주의, 감성주의에 빠져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꿈과 비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젊은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꿈이 없다고 말하거나, 있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소개한다.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노후 보장을 하는 것으로 한정시킨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일반적인 청년들의 모습

이 아니라 기독교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그 문제점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신앙에 근간을 둔 참된 비전을 심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묵시(비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비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방황하고 혼돈에 빠지지만, 그 방황과 혼돈을 바꾸어 온전한 비전을 가지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시 119:105)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청년들의 삶에 분명한 소명과 비전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명과 비전의 확립은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사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육 과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양육 과정을 통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립되는 것이다. 특별히 일반 병사와 같은 대상은 대다수가 20대 초반이 많다. 이들에게 바른 소명과 비전을 심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들에게 성경적인 소명과 비전을 심게 되면 이들이 사회에 나가고 가정을 꾸릴 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군대에 와서 1년 10개월(병사 기준) 동안 머문다는 것은 그들에게 바른 소명과 비전을 심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통해서 소명 의식을 심어서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3) 영혼 전도의 효과

군대는 '황금어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다. 물고기가 집중해서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엄청난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이다. 이러한 군대는 다시 말해서 전도하기가 사회보다는 용이하고 효과가 크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는 복음의 수용성이 높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혼란의 시기를 겪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군대 와서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군대의 규정에 따라 생활하게 될 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또 군대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곳이다. 힘든 훈련과 고된 내무 생활에서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영혼 전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혼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크리스천이 비크리스천보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산다면 비크리스천은 크리스천에게 그 이유를 물어올 것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라고 말씀하셨듯이, 크리스천이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은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다. 그들이 소망에 관해서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훈련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을 통해 잘 훈련된다면 영혼 전도의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 군 선교에서 양육사역의 문제점

군인 교회 내에서도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병들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세우는 것에 열정을 불태우는 귀한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1) 가변적인 부대 상황

(1) 지휘관에 따른 변화

군대는 계급 사회라서 철저하게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특별히 군대는 지휘관의 영향이 크다.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건물 하나가 세워지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휘관의 영향력은 군대 내에서 절대적이다. 이처럼 지휘관은 종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서 해당 종교에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휘관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면 일반적으로 교회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나 지휘관이 타 종교가 된다면 심각한 영적 전쟁이 된다. 교회 활동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그 지휘관의 해당 종교에서는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양육을 하려고 해도 지휘관이 정해진 종교 활동 시간 외에 어떤 성경공부와 신우모임을 금지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모임이 봉쇄된다. 아무리 목회자가 열정이 있어도 구조적으로 양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기독교 지휘관이 있는 부대에서는 군 선교 사역자와 잘 협조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경공부나 신우회 활동을 통해서 양육훈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여건 속에서 양육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기독교

지휘관이 다른 곳을 전출이 가게 되어 새로운 타 종교 지휘관이 오게 되면 잘 운영되어 오던 양육 훈련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군 선교 현장은 지휘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곳임을 무시할 수 없다.

(2) 훈련 및 근무 환경에 따른 제한

군대는 전쟁과 방어를 위한 집단이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운영이 훈련과 경계 근무로 유지된다. 훈련 중 공식적으로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군인들이 받아야 하고 전투 부대 같은 곳은 전술 훈련과 같은 많은 훈련들을 소화해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교대로 초소 근무나 격오지 근무, 특수 근무, 불침번 등을 돌면서 교대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대는 훈련과 근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훈련이 있거나 근무가 있으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 교회처럼 양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려운 여건이다.

2) 제한된 시간과 장소

(1) 규정된 종교 활동 시간 내에서만 양육

군대에서 종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날은 일요일과 수요일이다.[11] 이렇다 보니 군대에서 민간 교회처럼 평일이나 이 외에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 물론 지휘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 활동으로 정한 날짜와 시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특별히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을 만나고 삶을 나누는 양육 과정을 통하여 인격적인 제자 훈련이 되는데, 군인 교회에서는 이러한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인격적인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다만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 성경공부와 같은 종류의 훈련은 가능하지만, 깊은 제자 훈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군대 내에서 양육 사역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해서 높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11 국방부, 〈군종 활동 관련 규정집〉 (2009), V-4.

(2) 양육 장소의 제한성

또 군인은 군대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양육도 군인 교회 내에서나 영내에서만 할 수 있는 제한이 따른다. 경우에 따라서 군 교회가 영내에 없어서 종교 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병사들이 외부 교회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철저한 보고 계통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빠른 시간 내에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또 영내에서나 군인 교회 내에서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열악하다. 사단 이상급 같은 교회에서는 시설이 좋아서 성경공부나 양육을 할 수 있는 소예배실이 있지만, 연대급이나 대대급 교회에서는 양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군 교회는 예배중심으로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교회 건물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군 교회의 재정상 성경공부나 양육을 위한 장소를 건축하거나 마련하기에 넉넉한 상황이

12 권태영, "21세기 한국적 군사혁신과 국방개혁 추진", <전략 연구> 제12권 제3호 (서울: Kris, 2005), 44.

13 조영진, "미래 인력 구조 발전 방향" 미래 지향적 인력 설계 및 정책 방향 (서울: Kris, 2005), 21.

아니기 때문에 양육의 장소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3) 양육 리더의 부족

(1) 리더로 세워지기 부족한 짧은 군 생활

2005년 9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개혁 2020에 따르면, 군 구조 개편과 병력의 단계적 축소화를 다루었다. 총 병력을 현 68.1만 명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할 예정이다.[12] 특별히 병의 인력 구조 단계별 인력 조정 추정안을 보면, 2006년도의 45만 명에서 2010년에는 40만 명, 2015년은 34만 명, 2018년도에는 27만 명, 2020년도는 22만 명으로 줄어들 예상이다.[13] 따라서 군대에서 간부를 제외한 병사들의 복무 기간도 지금의 1년 10개월에서 점차 더 줄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 상황에 따라 청년들이 입소해서 훈련소 9주(2010년 천안함 사건 때부터 늘어남)를 보내고 후반기 교육(경우에 따라서 4주에서 6주까지 있음)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뒤에 업무를 배우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기는 최대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1년 6개월 동안 병사들을 리더로 세워서 병사들이 병사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양육 리더로 세워서 후임들을 양육하다 보니 리더나 양육을 받는 자나 신앙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료에게서 신앙을 양육받기를 꺼려 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 입대하는 대다수의 시기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양육자와 피양육자 사이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협력 사역자의 숫자 부족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 사역자가 필요하다. 민간 교회에서 열악한 군인 교회를 맡아서 양육 리더를 일정 기간 동안 보내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대 내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외부 사역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여건이다.

4) 혁신적이지 못한 양육 시스템

(1) 민간 교회 중심으로 사용되는 양육 교재

군대는 군인들이 있는 특수 집단이다. 젊은 군인들에게 맞는 양육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양육 교재는 민간 교회 중심이거나 기성세대를 위한 양육 교재라는 한계가 있다.

(2) 미디어 활용이 부족한 양육 시스템

오늘날 청년 세대는 영상 세대이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영상이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그런데 기존의 양육 방식은 교재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각적인 부분에 발달된 청년 세대가 문자 중심의 교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3) 소그룹 중심으로 제작된 양육 교재

기존에 많은 양육 교재들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숙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민간 교회에는 너무나도 효과적인 양육 시스템이다. 그러나 군대는 시간과 대상의 제한이 따른다. 정해진 종교 활동 시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군인들에게 소그룹 위주의 양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5. 결론 : 21세기 한국 군 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연구를 기초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21세기에 한국 군 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군종병을 활용한 새가족 양육을 시행

군종목사 또는 군 선교 사역자에게 있어서 군종병은 부교역자와 같은 것이다. 기도의 동역자이자 사역의 동역자이다. 군종병들과 잘 동역할 때 효과적인 군 선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종병을 활용해야 한다. 특별히 군종병을 세워서 양육하도록 시킬 때 같은 병사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양육자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양육을 시킬 만한 분량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양육 모델이 되어야 한다.

첫째는, 새가족에 대한 일대일 양육을 맡도록 한다. 새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신병들이 많다. 그들에게 4주간의 양육 과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대 배치 받고 교회 오자 마자 4주 동안 교육을 받게 한다. 제1과는 복음, 제2과는 예배, 제3과는 성경, 제4과는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때 군종병들은 자신들의 중대 신병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신병들이 자대에 처음 와서 어려운 상황을 들어주기도 하고, 기독교 마인드로 위로할 수 있다. 그러면 신병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4주간에 걸쳐 양육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중대급 군종병들의 위로와 관심을 통해서 기독교에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군종병 수련회를 통해서 새신자 양육의 선(先)교육을 시킨다.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군종병들이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군대는 새로운 신병이 들어오고 병장들이 전역하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군종병들도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새가족 양육 과정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그들을 선(先)교육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 시간은 바로 군종병 수련회(약 2박 3일 또는 3박 4일을 교회에서 실시한다)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휘관에게 정식적인 공문으로 요청해서 군종병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받을 수 있다. 단 지휘관에게 협조를 구할 때 기독교 '군종병 집체교육' 으로 명명하고, 교육 내용은 상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심병사를 군종병이 잘 관리해서 군 사고율을 줄이는 데 일익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락하게 된다. 그래서 군종병 수련회를 통해서 위의 새가족 공부의 '총 4과' 를 군종목사나 군 선교 사역자가 먼저 교육하고 군종병들을 서로 대상으로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한다. 그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안하고 교정해 주게 된다. 이렇게 군종병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휘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위문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의 좋은 선입견을 가지도록 한다.

이렇게 군종병을 활용해서 교육받은 내용만 전하게 될 때 진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군종병으로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중대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효과적인 군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될 것이다.

2) 저녁 예배 시간을 활용한 강의식 양육

병사들이 양육받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군대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해진 규정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맞는 양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양육 과정은 일대일이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양육하는 자) 대 다수(양육을 받는 자)로만 양육할 수밖에 없는 종교 활동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강의식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강의 방식을 택할 때 양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단, 작은 인원들을 양육할 때나 중대급 교회와 같이 소수인원들을 양육할 때는 소그룹이나 제자 훈련과 같은 방식도 가능하다).

첫째, 보장된 종교 활동 시간을 통한 양육이다.

병사들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다.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이다. 다른 시간에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없고 한다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전투 부대나 전방에서는 평일에는 바쁜 훈련과 교육 일정 때문에 평일에 시간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양육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파워포인트와 영상 매체를 활용한 양육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N세대라고 말한다. N세대는 인터넷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매스미디어에 익숙한 청년들의 모습을 가리킨다. 듣는 것이나 읽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책이나 문자보다는 파워포인트와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미리 파워포인트 작업과 영상을 제작하고 또는 중요한 영상을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 양육에 맞는 교재를 제작하거나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기록하도록 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맞는 흥미 유발과 적용이 있는 양육이다.

오늘날 청년들의 감각세대이다. 자신의 관심사에 흥미를 유발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 부분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심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젊은 군인들에게 맞는 이성 교제, 부모님께 효도, 군대 생활의 적응력,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는다.

이러한 저녁 시간에 강의식 양육을 하게 되면 보장된 종교 활동 시간 내에서 양육을 할 수 있고, 다수를 양육할 수 있고, 미디어를 활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젊은 청년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양육 과정으로 훈련

병사들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이 1년 10개월이다. 2020년까지 차츰 줄여 1년 9개월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서 병사들이 군교회에서 훈련소 2개월 정도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양육과정을 정하면 효과적이다.

첫째, 조직신학과 성경신학과 교회사와 실천신학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군인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신앙 도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설교와 저 본문의 설교를 산발적으로 하다보니 신앙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없고 들었던 내용이 흩어진 파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파일을 한 파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체계적인 양육 과정을 두는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교리를 통해 조직신학, 성경 개관을 통해서 성경신학,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천신학, 창조론과 문화를 통해서 세계관을 양육 과정을 만든다면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양육 과정에 따른 주별 집중화된 양육을 두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체계적인 과정을 둘 때 주별로 집중화된 양육을 할 수 있다. 기독교 교리는 12주, 성경 개관은 16주, 교회 역사는 12주, 신앙생활은 12주, 창조론과 문화는 12주로 해서, 총 64주를 통해 훈련소를 제외하고 1년 3개월의 체계적인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별 양육 시스템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입대하든지 꾸준한 출석만 이루어지면 모든 과정을 양육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주별 양육 과정의 비중은 군 선교 사역자가 중요시 하는 부분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고 군 부대의 훈련 일정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셋째, 양육 후 수료식 및 소감 발표의 시간을 가지면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집중화된 양육 훈련과 함께 수료식을 하고 수료증을 함께 주게 되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양육 과정을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단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수료식을 할 때 간증이나 소감을 발표하면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양육을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넷째, 양육 과정 중에 또는 양육 후 전도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 양육 과정의 단계는 없다. 어느 과정부터 나와도 그 순서에 맞게 양육을 받으면 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음 차례에 있는 과정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육과정에 초청하기도 용이하다. 어느 때나 전도를 해서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과정을 마치고 좋은 효과를 보았을 때 다른 전우들을 초청할 수 있다. 양육과정은 설교나 예배와 같이 진지하거나 중엄한 분위기에서 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초청하기에 효과적인 것이다.

군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선교의 현장이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의 현장이다. 그들을 이 나라의 대한민국 건강한 군인으로 세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무장된 군사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군 선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여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민족의 기독 청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를 책임지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길 기대해 본다.

판 권
소 유

군선교신학 10

2012년 10월 5일 인쇄
2012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 쿰란출판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 | 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rbooks@gmail.com
qrbooks@daum.net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 쿰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값 12,000원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